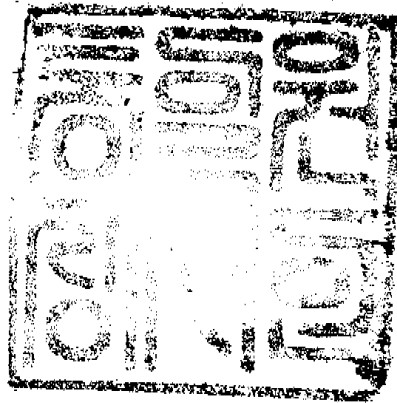


南北對話 20年の 評價와 向後展望



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인 사 말

오늘 南北對話事務局 創設 20周年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學界와 言論界를 대표하시는 重鎮 여러분을 모시고 이를 기념하는 討論會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소련사태를 비롯해서 冷戰構造下의 世界秩序가 와해되는 가운데 南北韓間에도 유엔同時加入 등 平和共存 體制의 始發이 내다 보이는 시점에서 이와같이 南北對話 20年史를 성찰하고 앞으로의 對話推進 方向을 모색하는 일은 때에 맞는 매우 적절한 일이고 또 그 중요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南北韓間에는 크고 작은 여러가지 형태의 接觸과 對話가 200회를 넘어 여러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이는 緊張과 對決의 시대에서는 의미있는 結實을 거두기가 어려웠습니다. 70年, 80年代에 걸쳐서 「7·4南北共同聲明」발표, 南北直通電話의 開通, 離散家族 故鄉訪問團 交換 등 부분적인 결실이 있기는 했습니다. 이는 南北間에 不信과 對立의 간격을 좁혀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南北對話가 分斷 民族史에서 차지하는 意味는 크다고 하겠으며 그것은 우리 民族의 自尊과 統一繁榮을 지향하는 正當한 노력으로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의 南北對話에서 찾을 수 있는 잘잘못은 모두 값진 教訓이자 소중한 資產이 될 것이며, 앞으로 南北關係를 改善시켜 나갈 原動力으로서 우리가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南北對話가 成年期를 맞이함에 따라서 南과 北이 相互 現實과 實體를 認定하는 바탕 위에서 共存共榮 關係를 도모하면서 平和統一의 基盤을 구축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튼튼한 基盤을 깔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南北韓 유엔同時加入은 기존 南北對話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轉換點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근 여러가지 情況으로 봐서 北韓은 南北對話에 대해서 그 必要性和 危險性을 다 함께 認識하고 있으며, 短期的으로는 南北關係의 실질적 進展보다는 選擇的, 形式的 次元에서 對話에

임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政府는 어떻게 하든지 北韓을 開放으로 誘導해서 對話를 통해 平和를 制度化하고 交流와 協力の 길을 넓혀서 民族統合의 與件을 성숙시켜 나가려는 우리의 努力에 北韓이 동참해 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内外 狀況이 南北韓 平和共存과 統一與件 造成에 유리한 방향으로 급격한 變化 樣相을 보이고 있어서 長期的으로는 北韓도 生存과 體制의 維持를 위해서 그들의 對話態度를 修正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討論會에서 이같은 여러가지 狀況을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方向으로 對話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眞摯하고 격의없는 討議가 進行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討議에서 제시된 여러가지 좋은 意見들은 南北對話와 統一政策에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이와같은 기회를 많이 갖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討論會가 성공적으로 開催됨으로써 南北對話의 활성화, 그리고 실질적인 進展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討論會에 참석해주신 學界와 言論界 重鎮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討論會의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感謝를 드리면서 저의 짧은 인사말씀을 끝맺고자 합니다.

1991. 9. 2

副總理 兼 統一院長官 崔 浩 中

目 次

I. 南北對話 20年の 評價와 그 展望	3
- 主題論文 要約發表 및 討論 -	
II. 南北對話 20年の 評價와 向後 3年을 내다본 南北對話 推進戰略	49
- 主題論文 要約發表 및 討論 -	
III. 主題發表論文(全文)	91

I. 南北對話 20年の 評價와 그 展望

— 主題論文 要約發表 및 討論 —

主題發表：具宗書(中央日報 論說委員)

〈 討 論 者 〉

- 司 會：徐 時 柱(聯合通信 北韓部長)
- 討 論：金 鎮 基(KBS 解說委員)
- 都 俊 鎬(朝鮮日報 北韓部長)
- 鄭 璟 喜(韓國日報 論說委員)
- 鄭 雲 宗(京鄉新聞 論說委員)
- 黃 錫 鉉(서울新聞 論說委員)

· 主 題 發 表

司 會 먼저 討論會를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南北對話事務局의 創設 20周年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周知하시고 계시는 바와같이 主題發表者는 中央日報 具宗書 論說委員으로서 主題는 「南北對話 20년의 評價와 앞으로의 展望」입니다. 具宗書 博士의 20분간에 걸친 主題發表가 있는 다음에 討論에 들어가겠습니다. 討論者로 참가하신 분들은 京鄉新聞 鄭雲宗 論說委員, 朝鮮日報 都俊鎬 北韓部長, KBS 金鎮基 解說委員, 韓國日報 鄭璟喜 論說委員, 서울新聞 黃錫鉉 論說委員입니다.

우선 主題發表 20분, 다음에 討論者들에게 10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분씩 각기 말씀을 하시고 討論者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發表者가 거기에 대한 일괄적인 應答을 하는 식으로 進行을 하고, 11시20분 정도까지 1次 會議를 한 다음에 10분간 휴식을 하고 다시 1시간동안 11시반에 시작해서 12시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討論者 質問이 끝난 다음에 두번째 세손에 들어가서 質問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中央日報 具宗書 論說委員의 「南北對話 20년의 評價와 그 展望」에 대한 主題發表가 있겠습니다.

具宗書 자랑스런 자리에서 제가 發表를 하게 된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저는 일선 記者로 있으면서 對話事務局 創設을 지켜보면서 記事를 썼고 또한 南北對話를 계속 담당해 왔던 사람으로서 더없는 감회를 느낍니다.

저는 계속해서 南北問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보았고 또 對話를 지켜 보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간단합니다.

현재의 입장에서 말하면 저는 우리의 統一은 獨逸式 統一이 가장 적합하고 유익하다, 우

리쪽만의 이익이 아니라 民族 전체의 將來를 위해서 유익하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獨逸式 統一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의 北韓이 變化되어야 되겠다, 따라서 우리의 對話 戰略의 目標은 北韓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집중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北韓을 變化시키기 위해서는 對話와 交流가 많을수록 좋다, 누구와 만나도 좋고, 우리의 反體制 사람들이 北韓을 다녀오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결과적으로 獨逸式 統一로 가는데 유익하다, 저는 이런 認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體制가 상당히 우월하고 이미 우리의 國力이라든지 모든면에서 볼때도 그것이 입증돼 있고 우리 國民의 水準이 높은 반면에 北韓은 體制的으로 취약하고 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接觸이 많을수록, 對話가 많을수록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對話 자체를 目的視해도 좋지 않느냐, 對話를 열고 交流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웬만한 양보를 하더라도 우리한테 별 피해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기본 認識이 이렇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論文을 간단 간단히 要約을 해나가면 더욱 이해가 잘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論文 全體를 살펴보기는 어렵고 요점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序論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南北問題라든지 統一에 대한 세가지 基本的인 視角이 있다는 것을 살펴 보았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사회나 있는 유형입니다.

「保守派」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南北對話를 축소하고 지연시키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思考方式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急進派」입니다. 조금 환상적이긴 하지만 統一을 서두르고 또 北韓 偏向的인 그러한 견해가 우리 社會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간적인 존재로서의 「穩健派」, 비교적 合理的이고 統一의 정열도 있으면서 상당히 積極的인 思考를 가지고 있습니다.

統一은 變化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變化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思考의 變化, 政策의 變化, 그리고 行動의 變化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變化를 축소하고 지연시키고자 하는

保守派의 사고로는 統一에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統一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民族의 運命과 國家의 將來가 걸려있고 중대한 위험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統一을 무리하게 서둘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急進派의 思考도 統一問題의 접근에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穩健派의 思考가 가장 妥當性과 合理性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 개인으로서는 지금의 穩健派,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비교적 穩健派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보다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더 效果的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南北對話 20년의 評價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分斷國家의 접근 노력은 대중 세가지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獨逸型이 되겠습니다.

獨逸型은 對話를 먼저하고 그 對話에서 결정된 原則에 따라서 交流를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先對話 後交流, 상당히 성공을 한 對話 努力입니다. 獨逸에서는 1970년에 兩獨 首相會談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뒤에 兩獨의 關係正常化 基本協定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20년후에야 首相會談이 있었습니다. 獨逸式 속도대로 간다면 내년쯤은 基本協定이 체결되어야 될텐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또 어려운 점도 있는 것같고 豫測을 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中國型이 아니겠느냐, 中國型은 交流가 시작이 됐으나 아직은 對話가 없습니다. 일단 獨逸式에 대칭시켜서 中國의 接近方式은 先交流, 앞으로 對話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後對話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定型化해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臺灣政府의 경우는 三不政策을 大陸政策의 기본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變化에 대처한다. 이래서 그 요지부동의 三不政策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公式的으로는 얼마전까지 三民主義에 의한 大陸收復을 외쳐왔습니다. 그러한 反共國家 臺灣이 87년부터는 국민들에게 本土訪問을 공식 허용했습니다. 그

밖에 交流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그 이전부터 交流와 訪問을 허용해 왔습니다. 이래서 中國의 방식은 先交流 後對話가 될 것이다.

그러면 韓國은 어떠냐, 對話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合意된 것이 별로 없고, 制度化된 것은 더구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暫定的인 合意에 의해서 交流를 실험해 왔습니다. 과거에 제 1차 故鄉訪問團·藝術公演團 交流가 있었고, 최근에는 蹴球에서 交換競技, 公演團의 合同公演, 卓球·蹴球에서 單一팀 出戰과 같은 實踐的 交流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韓國은 公式對話를 시작했지만 基本的인 合意나 지속적인 交流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部分的인 合意와 일시적인 交流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南北間의 접근방식은 獨逸型도 中國型도 아닌 第3의 方式, 즉 對話와 交流의 並行이 아니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對話가 성과있게 추진되려면 두가지 條件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周邊環境의 성숙입니다. 즉 對話를 가능케 하는 條件의 성숙입니다. 또하나는 南北雙方 指導者의 對話意志입니다. 統治權者가 南北韓間의 懸案問題를 對話를 통해서 풀어나가겠다는 그러한 확고한 意志를 갖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가지 조건이 이루어지면 南北對話는 合意를 도출하고 또 交流도 實現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첫번째 對話, 第1期, 70년대 對話를 살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周邊環境은 성숙되어 있었으나 南北 指導者간에 對話를 통해서 民族問題를 해결하겠다는 意志와 확실한 計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큰 成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第1期에는 南北對話 자체를 目的視하고 싶고, 또 처음 對話라는 점에서 創始的인 效果 새로 시작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效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評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第2期 南北對話는 80년대 5共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對話의 環境도 미숙하고 양쪽 指導者의 對話 意志도 미숙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合意導出이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당시의 對話는 對話의 폭이 확대되었고 거기에 따르는 成果가 그만큼 증대되었다, 또 故鄉訪問團

交換이 처음으로 있었다, 이것은 하나의 成果로 기록할만 하다고 봅니다. 그때 對話의 폭으로 經濟會談, 政府官僚級 또 國會部門會談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成果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재의 南北對話가 되겠는데 90年代 南北對話는 周邊環境이 그 어느때보다도 유리하게 성숙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南北 指導者들의 對話意志, 또 對話의 必要性이 과거 어느때보다도 유리하지 않느냐, 이래서 저는 90年代 對話에는 상당히 進展과 效果와 成果가 있을 것으로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北韓體制를 維持할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金日成으로서도 압박하고 있는 權力承繼의 安全, 그리고 현재의 經濟難 打開, 人民的 不滿의 해소, 外部世界의 壓力, 이런 것으로 해서 南北對話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南北 사이에 어떤 合意와 實踐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北韓에 이익이 온다, 이런 판단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또한 지금의 어려운 입장에 있는 金日成 體制維持 自體를 위해서도 南北對話는 불가피하고 또 어느정도의 성과가 있어야 또한 體制維持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점에서 南北對話를 낙관적인 입장에서 지켜 보고자 합니다.

第3期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느정도 交流가 이루어진 것도 우리가 特記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3단계에 걸친 南北對話를 종합해 볼때 비록 公式的인 合意文書나 거기에 기초한 制度的, 持續的 交流는 이루어내지는 못했지만 많은 歷史的인 意味와 肯定的인 效果를 가져 왔다고 봅니다. 南北對話는 武力方式으로 시작된 統一努力을 平和的인 方式으로 전환시켰고, 獨逸型 接近方式으로 시작되었으나 큰 成果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中國型 接近方式으로 變形하여 成果를 擴大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南北對話는 對話環境이 성숙되고 對話意志도 강화되어 더 많은 成果가 기대된다고 보겠습니다. 對話의 環境과 그 變化의 展望중에서 周邊情勢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北韓의 對話態도와 우리의 戰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하겠습니다. 南北對話나 對北政策의 목표는 民族統一입니다. 이 統一은 民族의 和解나 民族力量의 손상이 없는 범위안에서 달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統一은 平和的이어야 합니다. 統一을 위한

南北戰爭이나北韓 또는南韓내에서 유혈사태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한戰爭과流血을 피하기 위해서는統一의 지연도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平和統一을 위해서는南北對話와南北交流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같은統一 努力이 정체 또는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北韓때문입니다. 북한이 종전의 孤立主義的 閉鎖政策을 수정하여 開放化 되어야 하겠습니다.北韓이 開放되면 內的인 改革이 수반되고 改革의 결과는北韓社會의 民主化, 多元化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狀態가 곧 統一直前의 東獨이나 變革前의 東歐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大韓民國의 對話戰略이나 對北政策은北韓의 政策과 路線을 변화시켜 開放하도록 誘導하는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달성되면北韓의 變化는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北韓은 그동안 蘇聯, 東歐의 變化를 외면하면서 “우리식으로 살자”고 종래의 孤立 閉鎖路線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外交的 孤立과 經濟的 沈滯였습니다. 이것은 國民的 不滿을 누적시켰을 뿐만 아니라北韓의 體制에 위협을 출만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금北韓이 당면한 至上課題는 金日成 體制의 維持, 金日成 體制의 수호입니다. 이 두개의 課題를 수행키 위해北은 최근 變化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美國과의 對話, 日本과의 修交協商, 大韓民國에 대한 實體認定, 유엔가입 결정, 核査察에 대한 伸縮的인 반응, 두개의 朝鮮 認定,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北의 變化가 아직은 對外的인 국면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金日成은 對外開放을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內政改革에는 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變化만으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北韓이 內部的인 改革까지 착수하여 民主化, 多元化가 되어야 하겠습니다.南北對話나南北關係에서北韓은 對外 開放의 차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추구할 것입니다. 더구나北韓이 지금의 難題를 타개하여 金日成 體制, 金日成 체면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美國과의 關係改善이 先決課題가 되겠습니다.美國과의 外交關係가 개선될 때 日本을 포함한 西方 國家들과의 關係가 개선되고 그래야만 西方의 지원하에 經濟狀態를 개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美國이 北韓에 대해 南北關係의 改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北은 南北關係를 進
展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담별 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측의 對應戰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統一 모델이 統一民主福祉國家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발행하는 인쇄물이기 때문에 억제를 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사실은 獨逸統一의 方式이 우리의 모델이 아니냐 이것을 提示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對
北政策의 當면목표는 뭐냐 北韓社會의 開放化다, 아까 요약한 그대로입니다. 현재 北韓은
獨逸式 統一에 대한 공포심에 젖어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北韓이 어느 일방을 먹거나 그 일방에 먹히지 않는 2政府 2體制를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獨逸式 統一方式에 대한 공포심의 반영입니다. 平和統一의 걸림들은 말할 것도
없이 北韓體制의 孤立性和 閉鎖性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北韓政策, 對北戰略은 北韓의 開放
化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北韓 社會가 일단 開放되면 각분야로 變化가 과급되어 對內的인
民主化, 多元化가 이룩될 것입니다. 그것은 北韓으로서 平和統一을 가능케하는 環境과 條件을
성숙시키게 됩니다.

우리의 北韓政策의 目標가 北韓社會의 開放인 이상 우리의 政策이나 制度가운데 北韓의
開放에 阻害되는 것은 과감히 開폐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戰略中の 하나로서 저는 제
한없는 對北開放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北韓 社會를 開放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對北政策이
적극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北을 두려워하거나 北과 접촉을 꺼려할 필요도 없
습니다. 北韓에 대해 우리 사회를 제한 없이 開放하고 北韓과의 접촉을 제한없이 開放하고
北韓과의 접촉을 제한없이 허용해야 합니다. 제한은 그것이 우리 사회를 명백하고도 현저하게
파괴하는 直接的인 것일 경우에만 취해져야 합니다.

지금 北과 南사이에 接觸과 交流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북측과 접
촉하고 교류하면 그만큼 우리의 실상을 北에 알리게 됩니다. 우리를 알게 되면 南韓에 대한
北韓의 인식에 變化가 일어나고 그 認識의 變化는 行動의 變化를 일으킵니다. 北韓社會가

이렇게 변하면 北측은 開放化, 民主化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北韓의 唯一體制를 多元體制로 轉換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곧 北韓의 政策, 路線, 體制, 勢力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體制의 우월성을 認識하고 北韓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제는 그 우월성이 이미 입증되어 지금까지 人類가 개발한 그 어느 體制보다도 우수함이 판명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우리 體制를 信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極右派들은 對北 劣等感에 젖어있습니다. 極左派는 우리의 體制를 부정하려 하고 있고 過小評價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 비현실적이어서 國民的 共感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社會的 土臺가 없는 그같은 認識體系, 즉 보수파나 극좌파의 인식체계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北韓體制는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北韓은 거짓을 바탕으로 한 강요된 宣傳으로 사회를 버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金日成 偶像化나 共產體制의 우월성에 대한 날조된 神話는 최근 蘇聯 言論의 보도와 共產圈의 현실에 의해 근본적으로 부정되고 있습니다. 金日成의 抗日活動, 6.25北侵說 등에 대한 蘇聯측의 否定的 보도가 그것을 입증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와 交流·接觸을 넓혀 북한주민 다수가 우리 남한동포가 누리는 自由水準, 物資水準, 未來에 대한 安定水準을 알게 되면 北韓社會는 급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許可制로 되어있는 共產圈, 특히 北韓과의 接觸交流를 사실상 申告制로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즉 政府는 국민들로부터 許可申請을 받으면 명백하고도 급박하게 위험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사 運動圈 學生이나 左派人士라도 訪北을 허용해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訪北效果도 엄정하게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具體的으로는 임수경이나 문익환목사가 과연 北韓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를 주었고, 우리에게서 어떠한 효과를 주었느냐, 북한에 대해서 과연 플러스만 주었겠느냐, 나는 더 否定的이고 마이너스적인 효과도 많지 않았느냐, 또 우리가

그들의 訪北으로 인해서 받은 具體的인 피해는 무엇이나 저는 아직도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南韓에서 하던 행위를 北韓에 가서 한다고 해서 우리 社會가 실제로 받은 危害는 어느 정도인가, 그들의 행위가 北韓社會의 變化에 미친 영향은 없는가. 그들의 拘束이 우리에게 미친 否定的 効果는 없는가, 이러한 점을 총체적으로 再評價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南과 北의 接觸과 交流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본다면 89년 平壤祝典 때 南韓 學生들의 不參, 90년 汎民族大會의 流産도 再評價되어야 하겠다. 만일 平壤祝典때 平壤側의 요구나 우리측 學生들의 요구대로 5만명을 평양에 보냈다면 그결과는 어떠했을까. 規模上 5만명이 무리여서 1천명 정도라도 보냈으면 어떠했을까. 우리 大學生들을 바라보는 北韓社會의 對南社會의 인식, 主思主義的 學生들이 主思의 현장에서 느끼는 主思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인식의 變化를 주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共產主義 社會에서는 어떠한 이론이라도 現實的 검증을 통해서 그 實效性이 입증되어야만 그 價値를 認定합니다. 이러한 認識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左派學生들이 책으로만 읽은, 宣傳을 통해서 받아들인 主體思想을 가지고 그 主體思想의 현실적 환경인 北韓에 가서 北韓의 가난하고 억압되고 부자유스러운 상태를 보았을 때 그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評價했을까, 저는 여기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싶은데 불행히도 平壤祝典 때 우리 學生들이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學生들이 北韓의 不自由하고 빈곤한 모습을 보고 北韓에 대한 幻想도 크게 완화되었을 것입니다. 北韓當局도 그때 학생 방문이 이루어졌다면 그후로는 선불리 學生들을 煽動하여 共同集會를 종용하지도 못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大規模 左派學生들의 派北에 부정적 결과도 따르겠지만 종합적으로 北韓을 變化시켜 우리의 정책 목표인 平和統一, 특히 獨逸式 統一을 가능케 하는 環境造成을 가속시켰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南北 與件上 對話의 상대는 북한의 執權體制, 金日成體制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北韓 住民의 이익과 복지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崔 副總理께서도 누누이 말씀해 오신 바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統一 外交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統一은 우리 韓半島의 地政學的 立地로 볼때 결코 우리의 國內 問題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周邊 4強의 利害關係가 걸려있고 유엔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獨逸統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西獨이 건국이후 일관하여 아데나워 基民黨 정부의 西方外交, 브란트 社民黨의 東方政策, 현재 콜 政府의 美·英·佛·蘇 占領 4개국에 대한 外交的 成功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統一이나 南北關係 發展은 外交的 뒷받침이 따라야 합니다. 그 外交는 첫째로 北方外交의 擴大·強化입니다. 이러한 外交는 북한에 대한 일종의 壓力이기 때문에 蘇聯과 中國을 통해서 北韓에 대한 開放壓力的 필요상 北方外交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는 對美外交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國家利益 體系上 美國과의 外交가 항상 중요합니다. 앞으로 南北對話의 성공을 위해서도 美國의 支援과 미국의 協力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機會主義的인 日本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日本은 南北關係의 발전이나 民族統一의 달성을 방해할 잠재적인 外勢로 봐야 합니다.

日本은 또 北韓의 開放을 기회로 北韓을 市場化하여 자기네의 經濟體制에 북한을 隸屬시키려 할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우리는 對日外交를 통해 日本이 北韓과 接觸하면서 南北關係의 發展을 방해하거나 北韓 經濟를 隸屬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히 사전에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美國이나 蘇聯, 中國 등 우리 주변 강대국들의 外交的 支援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對話戰略을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의 對北政策 목표가 北韓社會의 開放이고 이를 위해서 北韓과의 接觸交流를 제한없이 허용해야 한다면 南北對話에서의 우리의 戰略도 이에 준하여 보다 伸縮性있게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北韓과의 接觸, 對話, 交流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익을 주고 北韓에게는 不利益이 됩니다. 그것들은 많을수록 또 오래할수록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接觸과 對話, 交流 그 자체를 目的視해야 합니다. 接觸의 效果, 對話와 交流의 성과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體制의 파괴와 國家的 利益의 훼손에 현저하고도 긴박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웬만한 것은 양보해주고 그 대가로 接觸과 交流, 對話를 늘리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이익이고 統一을

앞당기고 獨逸式 統一을 가능케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담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結論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도 유리한 南北對話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對話環境이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南北의 指導者가 상당한 수준의 對話意志도 가지고 있고 對話의 현실적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회를 効果적으로 活用하여 統一을 위한 基盤을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몇가지가 考慮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과거에 보였던 우리 大韓民國 政府內의 政策決定 單位와 政策實行 單位 사이의 異質性은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7.7宣言에 나타난 그대로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89년 平祝과 90년의 板門店 汎民族大會에 우리 左派들이 대거 참가했다면 南北關係는 지금쯤 상당히 定着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당시에 執行過程에서 우리측의 조치는 7.7宣言이나 7.20大統領 民族大交流 宣言이 보여준 精神이나 거기에 대한 期待, 豫想과는 거리가 멀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北韓의 의도에 대한 지나친 과민반응과 統一戰線戰術에 대한 공포심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北韓으로부터 예상외의 提案이 나오면 먼저 그들의 底意를 예측하여 消極的, 否定的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또 北韓이 우리 사회의 여러 團體·機關을 상대할 底意가 있으면 統一戰線戰略이라고 하여 역시 부정적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戰略이란, 상대 즉 北韓의 戰略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북한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意圖라고 하는 것도 相對方이 알고 있다면 역시 實現되지 못합니다. 또 意圖와 目的 사이에는, 意圖와 그 실천된 結果 사이에는, 항상 상당한 乖離가 있게 마련입니다. 底意나 意圖를 알았으면 그것으로 상대방을 충분히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對話를 기피, 거부하는 것은 敗北主義의 姿勢입니다. 지금 北韓은 조금도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積極的으로 北韓을 대해야 하겠습니다.

세제는 필요하다면 秘密接觸 方式도 活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南과 北의 특수관계를 볼 때 非公開 接觸이 보다 효과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秘密接觸이라고 해도 공식기구에 의해 이미 밝혀진 基本政策의 범위안에서 協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두가지 기준을 벗어나서 秘密交渉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非效率的이었고 國民的인 合意도 얻지 못했습니다.

네제는 南北對話는 民族主義 精神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民族國家 單位의 國際的인 이익 경쟁이 극심합니다. 南과 北은 外國으로부터 民族의 利益을 수호하고 伸張시키는데 공동으로 最善을 다해야 합니다. 北韓을 日本의 市場化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도 이러한 民族利益을 지키는 길입니다. 南과 北이 공통의 民族主義에 입각하여 懸案問題에 접근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풀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民族主義 原則위에서 南北 問題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外國의 경계를 회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外國이 경계하면 妨害를 받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強大國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弱小國들의 民族主義입니다. 따라서 南北間의 秘密接觸은 이러한 民族主義에 입각한 民族利益의 守護次元에서의 協商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有效하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討 論

司 會 여러분들이 들으신대로 중앙일보 具宗書 논설위원께서 南北對話 20년을, 논문에는 자세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간상 要約을 해서 여러분께 들려 드렸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提起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主題發表者의 논문내용을 한번 더 간추려 보겠습니다.

“우리의 南北韓 統一은 獨逸式 統一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提唱했습니다. 그리고 그 獨逸式 統一方式을 위해서는 北韓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北韓을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統一政策을 혼신의 힘으로 거기에다 注力해야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北韓을 걱정하고 우리의 極左學生들이 訪北을 하는 것을 막고 하는 그런 행위는 없어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임수경이나 문익환목사가 가는 것도 主題發表者의 意圖는, 명확한 결론은 안 내렸습니다마는, 北韓側에도 상당한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를 具宗書 논설위원께서 제기를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자들께서는 이러한 데다가 우리가 主眼點을 맞춰서 과연 우리가 자신있게, 지금 주변 환경이 성숙이 되어있으니까 北韓과의 대화를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統一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향해서 南北韓이 만난다는 그 자체가 北韓을 개방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主題發表者는 提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경향신문의 鄭위원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鄭雲宗 공교롭게도 제가 순서가 먼저 되어서 당황했습니다.

우선 對話事務局 創設 20년을 계기로 해서 이런 중요한 심포지움을 가진 계기에 討論者로 참가해서 몇가지 意見을 提示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저는 무엇보다도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具宗書 博士께서 지난 20년동안 신문사 논설위원으로 계시면서 南北對話를 쫓 지켜 보시고 또 論評을 해주셨던 그런 回顧를 하셨습니다마는 저 역시 南北對話事務局과는

상당히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對話를 제의할 때마다 제 나름대로 對北提議라든가 統一政策이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예리한 시각을 가지고 현실을 보고 또 北韓에 대해서도 對話를 나름대로 촉구했습니다마는 지난 20년의 回顧를 현실적으로 볼때 여러가지 肯定的인 側面을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실망이 우선 앞서지 않느냐, 여러가지 狀況變化 또 國際情勢의 變化 이런 속에서 北韓도 상당히 변화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도 실제로 지난 20년동안의 南北對話를 回顧해 보면 과연 무엇을 우리가 지금 중요한 結實로서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겠는지, 交流와 協力の 증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接觸을 통해 20회 이상의 公式的인 對坐를 통해서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런 현실속에서도 아직도 우리는 무엇인가 마음 한구석에 허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 우리는 赤十字會談을 제의한지 꼭 20년의 歷史를 回顧했습니다마는 20년의 歷史라고 하는 것도 바로 南北對話事務局의 20년과 같은 脈絡에서 이해할 때에 지금 많은 離散家族들이 겪고 있는 離散의 恨을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오늘 南北對話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이 말씀드리어서 그분들에게는 상당히 悲嘆의 時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具宗書 博士께서 논리를 전개하신 지난 20년의 南北對話의 回顧, 評價에서는 많은 점에서 共感하는 바가 많습니다. 특히 自信感和 積極性, 前向的인 시각속에서 南北對話를 전개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지금도 說得力이 있고 또 對北政策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매우 前向的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하는 점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論文만을 가지고 제 所見을 말씀드린다면 그러한 積極性和 自信感和 前向的인 우리의 對北政策, 또 우리의 對話意志가 과연 北韓 쪽에 의해서 얼마만큼 誠實性있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져 왔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懷疑的이다, 우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具宗書 博士께서 지금 平壤祝典문제를 제기하시면서 과연 우리가 5만명이나 천명이 북으로 간다고 했을때 왜 그것을 안 보냈느냐 하는 것을 제기했습니다마는 과연 그 당시에 우리가

5만명이나 천명을 北韓으로 보냈다고 했을 때 과연 北韓이 그것을 받아들였겠느냐 하는 점도 우리는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對話 20년을 우리 나름대로는 肯定的인 여러가지 의미로 보고 나름대로 우리가 對話戰略을 어떻게 짜야한다고 하는 것을 強調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이 지난 20년 北韓의 對話戰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肯定的으로만 볼 수 없는 점이 많은 것을 우리는 이 시기에 느껴야 됩니다.

北韓의 對南戰略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戰略을 저 나름대로 類型別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물론 對話事務局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銳利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北韓이 지금까지 취한 태도는 對南挑發 또 그들의 企圖를 상당히 隱蔽하는 그러한 偽裝手段으로 對話攻勢를 지금까지 펴왔다고 하는 점을 하나 우리는 들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政治的인 混亂期라든지 過渡期에 對南提議를 적극화해 왔던 그러한 과거도 우리는 또 이 시기에 想起해야 합니다.

또 南北對話를 통해서 소위 南朝鮮 革命의 여건을 형성하겠다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對南提議도 우리는 看過해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시점에 있고 또 北韓 體制라고 하는 것이 國際社會에서 매우 고립화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北韓은 對南戰略을 나름대로 惡用해 왔다 하는 점, 政治的인 過渡期에 우리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는 그러한 수단으로 南北對話를 전개해 왔다.

또 韓·美關係에 있어서도 北韓은 韓·美關係를 이간시키는 그러한 戰略을 펴왔다. 이러한 여러가지 北韓의 對南觀이라든가 對南路線을 우리가 이 시기에 상기해 본다면 對話 20년이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積極性을 보였고 또 肯定的으로 또 前向的으로 해왔다고 우리는 자신있게 말하지만 北韓이 취해온 지금까지의 對話의 戰略이라든지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評價해 볼때 우리의 一方的이고 그러한 제외만 가지고 南北對話가 과연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성과있게 추진됐겠느냐 하는 점도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가지 對話進陟이 있고 北韓이 엉뚱한 구실을 내세워서 高位級會談도 연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련의 정세변화라든지 세계의 여러가지 변화에 있어서 北韓은 지금 상당히 당혹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점도 우리는 유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적어도 南北問題를 해결하는 그러한 문제는 具宗書 博士가 民族的인 시각에서 이것을 풀어 나가야 한다고 하는 當爲性은 인정이 되지만 적어도 北韓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北韓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우리의 제의를 受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들을 무조건 궁지에만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戰略이 아니라 적어도 開放化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그때 그때 면밀히 分析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솔직이 얘기해서 南北對話가 敗北主義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分析해 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敗北主義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시는 시각도 논문에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敗北主義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때 그때 능동적으로 우리가 對話를 전개해 왔던 그러한 過去에서 본다면 시의적절하게 제의를 하지 않았느냐, 솔직이 우리가 제의하고 있는 많은 그러한 문제들이 과거의 20개 示範實踐 事業중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제의하고 있는 여러가지 交流와 協力の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北韓이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 다 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 태도 때문이지 절대로 敗北主義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우선은 적어도 이 시대에 南北對話를 어떻게 풀어 나가겠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北韓의 정세를 좀더 면밀히 분석하는 그러한 지혜와 슬기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우선은 해 보았습니다.

司 會 鄭위원의 질문은 여러분들이 들으신대로 具박사께서 제시한 우리의 과감성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해서 北韓을 좀더 알고 北韓이 과연 「平祝」때 우리가 5만명이나 천명의 學生을 보낸다고 그랬을 때 北韓이 받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의 제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세손에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음은 조선일보의 都俊鎬 北韓部長께서 토론이

있겠습니다.

都俊鎬 척박한 풍토에서 20년동안 南北對話를 끌어 오신 政府關係者 특히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한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具박사가 발표하신 논문에 대해서 기본적인 제 소감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具박사가 보신 獨逸式 統一이 가장 적합하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일리가 있고 결국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具博士가 전개하신 이 기본 논리의 틀위에서 지금 전체적인 논문이 심지어 反體制 人士를 통해서라도 北韓을 방문하고 개방을 추진하도록 온 정력을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무조건 北韓同胞를 만나면 統一이 된다, 만나서 對話만 하면 統一이 된다는 그 시각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 「平祝」때 5만명을 보낸다든지 그랬을 때 과연 긍정적인 효과만 있었겠느냐 또 부정적인 효과는 없었겠느냐 하는 그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지금 갖고 있는 體制의 缺陷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北韓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갖고 있는 體制의 缺陷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否定的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거기에 곁들여가지고 그러면 無制限인 개방을 할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國家 保安法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國家保安法이라는 것은 北韓을 反國家團體로 인정을 해서 거기에 갔다 온다든지 政府의 목적에 의해서 가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계에서 國家保安法을 南北對話의 완화를 위해서 폐지를 해야 되느냐 폐지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對話를 하기 위해서 國家保安法이라든지 障礙 要素를 제거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면 國家保安法을 만약 없애는 경우에 우리 體制 안에서 일어나는, 말하자면 運動圈 勢力이라는 것이 北韓에 동조했다기 보다는 우리 사회 안에 어떤 불씨가 있기 때문에 殘存하고

은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큰 세력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또하나 더 구체적으로 여쭙 보고 싶은 것은 具박사의 논문에서 北韓이 유엔에 同時加入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朝鮮論理를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더 치밀하고 확실한 檢證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北韓이 「하나의 朝鮮」論理를 포기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北韓이 對話를 하자, 對話를 하지 말자 하는 것중에 對話를 하자는 상대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社會 各階各層이라는 명칭을 쓰면서도 실지로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嗜好에 맞는, 또 자기들의 理念에 同調하는 그런 사람들만 상대로 해서 對話를 하자고 그러는 것은 아직까지는 두개의 朝鮮論理를 승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北韓이 말하는 「하나의 朝鮮」論理라는 것은 바로 統一戰線戰略에 의해서 南韓을 容共勢力으로 만들어서 하나로 統一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檢證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北韓이 바라는 統一이 과연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民主主義 方式이고 共和制에 의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말하지만 北韓에서 말하는 統一方式은 역시 자기네들의 주장에 따른 자기들의 統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의를 시키느냐, 물론 그 합의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전에 交流가 있어야 되고 對話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20년동안 對話가 되지 않는 이유는 역시 北韓의 변하지 않는 그런 기본 목적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한가지 對話가 좀더 진척될 수 없었던 것은 南韓에서도 統一이라는 것을 하나의 政治的으로 이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統治權者들이 統一이라는 것을 어떤 진지한 기본 입장에서 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政治的인 目的, 말하자면 對內的인 문제를 統一로 糊塗하려는 그런 경향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對內問題의 준비없이 무조건 開放을 하고 對話를 하고 이럴 경우에 과연 이 길이 오히려 더 가까워질 것이냐, 오히려 그런 것으로 統一의 길이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交流問題에 있어서도 우리가 총력을 집중시켜서 交流를 하자 하는 그런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交流는 역시 무제한적인 開放보다는 우선 아직까지는 서로 믿지를 못하고 南과 北이 서로 믿지를 못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學術이라든지 아니면 體育이라든지 이것은 상당히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일 급박한 것이 이북은 經濟的인 문제입니다. 그런 經濟的인 交流도 政府가 주도할 것이 아니고 민간인 스스로가 그런 교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먼길 같지만 오히려 더 가까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司 會 들으신대로 조선일보의 都俊鎬 부장께서 具박사의 獨逸式 統一方式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만나면 北韓을 개방시킬 수 있다는 데는 약간 異見이 있다는 식으로 그 이견에 대한 논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KBS 金鎮基 解說委員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金鎮基 主題發表 내용 가운데 「北韓은 두려워할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나가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同感을 합니다. 또 對話는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을 好意的으로 봐줄 때 對話의 진전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對話에 임하는 자세를 낙관적으로 또는 호의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對話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논문 가운데 제가 당황한 두가지는 앞에서 두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한없는 對北 開放이 진정으로 南北對話에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주저하게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도가 다 됐습니다마는 문익환목사가 평양에 가가지고 김일성하고 포옹하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강경대군 치사사건 때 보면 先鋒에 서서 現政權을 打倒하고 統一하자고 외치거든요. 그런데 그런식의 極左派들을 무제한으로 마음대로 가고자 할 때 보내는 것이 총체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鄭委員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지난 8월 13일날 서울에서 열리는 汎民

族大會에 北韓에서 천명의 代表團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학생들을 받겠다고 그랬는데도 안 보냈지 않았습니까? 또 천명을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好意的으로 보고 받아 주고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볼때는 조금 주저하게 됩니다.

또하나 저는 어디가서든지 南北對話를 포함한 統一問題에 대해서는 상당히 保守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회사에서도 極右 保守反動이란 얘기도 듣고 있는데 統一問題를 바라보는 세가지 시각에 있어서 保守, 急進, 穩健, 이 세가지로 나누면서 保守의 경우는 상당히 否定的으로 너무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가령 統一恐怖症 환자라든가 對北 劣等感을 가졌 다든지, 사실은 「南北의 窓」이라든가 처음에 北韓關係 프로그램을 하면서 직접 휴전선을 넘어온 歸順勇士라든가 東歐에 유학하다가 돌아온 친구들도 전부 統一을 희망합니다. 北韓을 버리고 온 사람까지도 統一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保守主義라고 하더라도 統一을 또는 對話를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저는 保守, 急進, 穩健 이 세가지를 그동안은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保守的인 입장에 있는 분들은 統一의 장래를, 그러니까 資本主義 體制에 의한 自由民主主義 방식에 의한 統一을 끝까지 관철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保守的인 시각을 가진 것이고, 急進的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統一을 最高의 善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社會主義的인 統一이라도 統一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急進主義者들의 統一觀이 아니냐, 다만 여기서 지적이 된 穩健의 경우는 앞에서는 急進에 가까운 것으로 표현이 됐는데 뒤에는 獨逸式 統一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역시 이것은 統一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접촉은 늘 해야 되니까 이 접촉하는 것이, 가령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南北對話 과정을 보면 구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단계 南北對話 부분으로 넘어 가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70년대 南北對話는 對話에 임했던 분들이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對話를 통해서 統一을 하겠다고 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때 平壤까지 가서 對話를 하고 모험을

했던 것 아닙니까?

논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꾀 독트린이 나오고 닉슨 독트린이 나오면서 越南에서 미군이 빠지고, 여기서 1개 사단이 빠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때 소총하나 못 만들고, 총알하나 못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自主國防을 이룩해야 되겠다, 經濟建設 해가지고 自主國防 이룩하자,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벌기 위한 對話였습니다.

말은 平和統一이었지만 그때의 분위기가 월남 共產化가 되고 그러니까 韓半島도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 日本에서는 벌써 백만명의 難民이 생길 것이다, 2백만명의 難民이 생길 것이다, 그런 것까지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보면 적어도 對話하는 동안에는 쳐들어 오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對話를 시도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對話는 시간을 벌기 위한 戰略이었고 저쪽도 그것을 看破했기 때문에, 73년도에 6.23선언이 나오자 對話를 중단시켰던 것이고, 그리고 그 對話하고는 상관없이 땅굴을 팠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70년대에는 對話의 準備期라고 하기에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저는 저쪽을 덜 好意的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지만 80년대의 對話는 探索期라고 할까요. 가령 84년도에 水災物資가 내려온후 85년도에 赤十字會談이 이루어지고 離散家族 故鄉訪問團 交換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지게 된 背景에는 결국 아웅산事件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아웅산사건으로 인해서 國際社會에서 失墜된 北韓의 이미지라든가 北韓의 位相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平和指向的이라는, 말하자면 僞裝平和 攻勢를 위해서 그런 모험까지 하면서 離散家族을 받아들이는 그런 대화에 응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어느정도 國際社會에서 北韓의 好戰的이고 破壞的인 이미지가 해소되니까 對話를 끊었다가, 그다음에 아시안게임 妨害할 것이고, 올림픽 妨害할 것이다. 다 알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시안게임때는 金浦空港에서 爆發事故가 있었고, 또 올림픽을 앞두고는 KAL

事故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KAL기 墜落事件이 있는 다음에 그다음에 對話에 나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너무나 자기네들의 國際的인 이미지에 損傷을 가져 왔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국 對話의 자리에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 이미지가 어느 정도 사라지니까 對話를 중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南北對話 과정을 보면 사실은 對話를 통해서 平和統一을 이룩하고 民族의 同質性을 회복하고 하는 그런 단계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지 않았느냐, 다만 소련이 저렇게 변하고 우리의 北方政策이 상당히 효과를 가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對話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對話를 할 수 있는 체비를 차려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제 비로소 그런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측으로서는 북쪽에서도 이런 對話를 통해서 北韓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北韓이 對話에 응해 올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최소한도 두가지 조건 또는 세가지 조건이 充足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뭐가 하면 7.4共同聲明 이후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北韓의 對南 誹謗이 中止되어야 됩니다.

北韓의 對南 誹謗은 곧 現政權을 무너뜨리기 위한 煽動과 연결되는 것이지만 상대편하고 對話하면서 상대편을 계속 國際社會라든가 放送이라든가 油印物 등과 같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 誹謗하면 對話가 됩니까? 北韓이 對話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췄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北韓의 對南誹謗 中止에다가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駐韓美軍 撤收 주장입니다.

北韓이 여태까지 제시한 모든 前提條件이 노리는 것은 駐韓美軍 撤收입니다. 가령 東西獨이 統一이 되었는데, 西獨이나 東獨에 美軍이 약 25만, 蘇聯軍이 30만 駐屯하고 있었는데 統一되지 않습니까. 駐韓美軍이 統一의 障礙要因이 될 수 없는데,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그렇게 못하겠지만 駐韓美軍의 철수를 주장하는 첫째 목적은 역시 南韓을 武力으로 먹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武力으로 안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양면으로 해 온 統一

戰線戰略에 따라서 南韓을 와해시키고, 北韓이 남쪽은 美軍만 철수하면 저절로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호언할 정도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駐韓美軍 撤收主張하고 對南誹謗, 이 주장이 北韓의 요구에서 사라질 때 北韓이 진정으로 對話를 통해서 南北韓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對話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는 세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保守, 急進, 穩健 이런 세가지 방식도 있겠지만, 일본의 책을 인용해서 죄송합니다마는 日本의 도꾸가와 이에야스를 보면, 여러분 다 읽으셨겠지만, 노부나가式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히데요시式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에야스式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北韓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그러니까 좀더 폭넓게 확신을 가지고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북한이 어차피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狀況이기 때문에 몇년 걸리겠습니까, 5년 걸리겠습니까, 10年 걸리겠습니까, 다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統一을 무리없이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면서 이에야스 方式으로 南北對話라든가 統一問題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司 會 KBS 金鎮基 解說委員은 對話를 하는데 성과가 없는 것은 具博士가 지적하신대로 北韓의 불성실한 對南戰略 차원에 있다, 그러나 具博士가 주장한대로 만나는 것 자체, 對話 자체로만은 統一을 이루는데 약간의 異見이 있다, 그리고 무제한 開放에 대해서는 金鎮基 解說委員은 좀 위험시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鄭璟喜 論說委員께서 토론이 있겠습니다.

鄭璟喜 먼저 논문을 읽어보면 상당히 美學的으로 잘 전개가 되고 조직이 된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주 세련된 方程式에 의해서 모든 것을 조리있게 잘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남의 나라 일도 이렇게 정리하는게 어려운데 사실은 우리 발밑의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점에서 敬意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방향은 저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미학적으로 잘 정리된 方程式 方式만 풀다보니까 너무 圖式的이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는데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선 큰 차이는 아닙니다라는 結論에 있어서 저하고 약간 의견의 차이랄까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統一의 方式이 세가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재미있는 착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왜 그런 세가지 방식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덧붙이자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分斷된 상태하의 양 당사자의 人口의 均衡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됩니다라는 東獨과 西獨은 1:3.5정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中國方式이라는 것은 사실상의 統一方式이라고 할 수 있느냐?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中國이 臺灣에 대해서 領土權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주장의 한 방식이다 그렇게 말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의 경우에는 인구는 1:2가 됩니다. 北韓이 하나고 우리가 둘이고, 그런 의미에서 힘의 均衡狀態가 인구의 규모만을 볼 때 가장 우리가 서로 交渉하기 어려운, 讓步하기 어려운 그러한 팽팽한 긴장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西獨의 엄청난 經濟力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체적인 힘의 균형에서 分斷狀態를 해소하는데 상당히 불리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가 또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아마 여러분들 독일에 가 보신 분들은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브란트 社民黨 政權이 69년도에 등장한 이후에 일련의 改革政策에 의해서, 獨逸의 分配問題, 分配問題라는 것은 人權問題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파워의 分配, 威信의 分配 또 사회적인 正義의 分配에 있어서 상당한 長足の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상당히 중요한 차이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전제로해서 主題發表의 몇군데를 제가 좀 짚어볼까 합니다.

너무 圖式的이지 않느냐 하는, 말하자면 主題發表에서 좌우간 交流만 하면 저절로 변화한다,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역시 圖式的인 이해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北韓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그변화의 존재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더 정확하게 알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北韓이 변화하는데는, 主題發表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北韓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體制의 守護입니다. 이 體制의 守護를 위해서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해 가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主題發表者께서도 우리사회에서 保守的인 입장에서 北韓의 변화를 너무 과소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그러나 北韓이 변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지금의 상황하에서는 北韓이 변화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對內的으로는 변화하지 않고 그러니까 支配體制는 固守한 채 對外政策은 변화하는 것이다. 日本과도 修交하겠다, 美國과도 修交하겠다, 그리고 核査察도 받아들일 것이다. 또 駐韓美軍의 核에 대해서 당분간은 協商對象에서 빼겠다. 이러한 일련의 對外政策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외정책의 변화가 대내적인 支配體制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2分法으로 政策을 再組織하고 있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對南政策은 어떻게 되느냐, 對南政策은 對外政策의 대상이 되는 면도 있지만 對內政策의 대상으로서의 면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統一戰線戰略입니다. 이것은 北韓 내부의 對內 支配體制의 유지방식과 같은 맥락에서 對南政策을 생각하는 政策的인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對南政策은 對內政策 面보다는 對外政策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빛깔이 강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역시 對內政策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는 면이 강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統一戰線戰略의 대상으로 보는 면이 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北韓의 변화를 좀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主題發表者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더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北韓과 交流만 하면 저절로 변화할 것이다, 그렇게 斷定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면이 강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구라파고 동독이죠. 그런데 동구라파와 동독의 예가 있는데 北韓의 김일성 體制가 과연 자기네들의 體制 붕괴를 가져 올 수 있는 交流를 하겠느냐 이러한 의문을 제가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南北問題는 어떠한 美學的인 方程式으로 풀 것이 아니라 좀더 파워게임으로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70년대, 80년대 또는 현재 여러가지 南北對話가 있었다, 그것을 主題發表者께서는 3단계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對話도 사실은 파워게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主題發表者께서 말씀하신 對話交流 方式의 세가지 類型인 獨逸方式, 中國方式 또 韓國方式, 이것도 근본적으로 따져보자면 파워게임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파워게임이라면 저쪽 北韓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으나,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어떠한 조건 어떠한 양보를 하더라도 交流만 함으로써 저쪽의 體制崩壞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전제 밑에서 하는 交流, 그것을 과연 저쪽에서 허용하겠느냐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北韓이, 이것은 제가 학문적인 접근태도가 아니다 하는 비판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일성이라는 自然人的 존재와 상당히 큰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北韓이 南韓을 자기네들의 對內體制 유지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는 대상, 다시말해서 統一戰線戰略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배경이 문제입니다. 統一戰線戰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쪽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쪽에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전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에 西獨과 東獨의 관계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統一論議 과정에서 빼먹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獨逸方式, 獨逸方式하면서 西獨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하는 것은 이 토론에서 빼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西獨의 브란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두가지 깜짝놀랄만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나는 東方政策이고, 또 하나는 내부 改革立法인데, 그중에 企業經營에 노동자의

經營參與를 法的으로 立法化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勞使紛糾가 있을 때마다 이것은 고유의 경영권이다. 이 경영권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경영권이라는 실제적인 내용은 각 社會마다 그 社會에서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어떤 고유의 경영권이라는 것이 있는게 아닙니다. 과연 우리의 현재 경제체제가 美國이라든가 歐羅巴 先進社會의 經濟體制와 어느정도로 같고, 어느정도로 다르냐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바탕위에서 김일성의 統一戰線戰略에 대한 대응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도외시키고 무조건 北韓과 交流만하면 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主題發表者께서 임수경과 문익환목사의 예를 드셨습니다. 상당히 그럴법한 얘기입니다. 아마 저도 50%정도 또는 49%정도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50%내지 51%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主題發表者께서 문목사가 갔다 오고 임수경이 갔다 와도 별것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현재 政府가 北韓과의 왕래를 統制하는 상태하에서의 결과지 만약 백퍼센트 풀어 놔줄 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제가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 體制가 우월하고 北韓이 상당히 열세에 몰려있다는 사실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상당히 多元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김일성 만세도 부릅니다. 主體思想, 그 主體思想이라는 것이 뭐니까? 김일성 만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體制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體制가 多元的인 요소에 의해서 免疫性이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상당히 開放된 社會라는 것도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體制가 굴러 가고 있다는 것은 北韓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社會가 체질적으로 강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가 否認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社會에 北韓에서 統一戰線戰略을 쓸 수 있는 정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是認하지 않으면 南北問題를 건전하게 생각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쪽에 유리하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이 백년 살고, 천년 살 것이 아니고, 적어도 個人崇拜를 유지하고 있는 北韓體制가 영원히 갈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南北問題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아직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앞으로는 시간은 우리쪽에 유리하기 때문에 南北協商 과정에서 費用과 效果를 계산해 가면서 선택을 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김일성이 도저히 전쟁까지는 일으키지 않고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交流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무조건 交流하자, 제가 副總理께서 계신 자리에서 두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金剛山 開發費用에 대해서 또한번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金剛山 開發計劃이라는 것을 費用과 效果를 계산하지 않는다면 그럴법한 계획입니다.

우선 南北交流에 하나의 물꼬를 트는 것이 된다, 그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비용효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西獨처럼 막강한 經濟力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의 貿易赤字는 백억달러, 어쩌면 백억달러가 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것을 물론 經濟政策과 관련짓는다면 이 자리는 經濟問題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빼놓고 좌우간 우리 經濟도 그렇게 편안한 위치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費用效果를 도외시킬 수가 있는가 저는 度外視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어느분이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달동네 문제가 있습니다. 또 勞使紛糾가 왜 일어납니까.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운 생각을 할때에 역시 對北政策에 있어서도 費用效果의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豆滿江 開發計劃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들으셨습니까마는 北韓이 現狀打開을 위해서 北韓 나름대로 계산된 변화, 제 입장에서 보자면 對內政策은 그대로 놔둔채 對外政策을 바꾸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豆滿江 開發計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經濟特區라는 엄격하게 통제된 울타리 안에서 어떠한 對外政策의 변화 또는 經濟政策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자하는 것이 豆滿江 特區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북관계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統一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金剛山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금강산 플러스 두만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이 豆滿江 자체가 몇가지의 複數의 선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리라고 저는 낙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複數의 프로그램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할 때는 역시 費用效果를 계산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效果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北韓의 開放을 유도하는 것, 좀더 본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 그것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당분간은 그러한 본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접촉·교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역시 우리에게 하나의 가능성이 豆滿江 特區라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方程式보다, 統一을 빨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統一이 뭐냐 이것은 어떤 方程式이 있겠느냐, 말하자면 우황청심환 같은 特効藥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의 파워게임으로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司 會 서울신문의 黃錫鉉 論說委員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黃錫鉉 제일 마지막에 얘기를 하니까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셔서 할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具委員이 20년간 南北對話를 類型別로, 段階別로, 時期別로 잘 나누어 주셨고, 그 나름의 평가에도 대체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한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北韓이 대외적으로 「하나의 朝鮮」論理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규정을 지으시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冷戰的 思考가 아니냐고 규정을 하셨는데 그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논리가 아니냐는 제 나름의 판단입니다.

北韓이 물론 유엔가입, 南北對話 진척, 核査察 수용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經濟難 타개와 국제적 고립을 모면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南北對話 진척도 지금 콜레라라는 핑계를 들어서 10월 22일 연기를 해놨습니다마는 물론 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南北對話에서 어떤 실효성있는 결론이나 합의가 도출 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소련사태 이후 北韓이 그때 가서 南北高位級會談에서 不可侵宣言 채택이라든가 南北이 거의 의견이 접근해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다시 연기가 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핵사찰 수용도 그렇습니다. 지금 國際核安全協定 문안이 여러가지 허술한 면이 많기 때문에 北韓이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지연시키거나 사실상 기피하는 戰略을 세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가입도 그렇습니다. 물론 유엔가입이 南北이 同時加入이 되어가지고 동반자 내지 協力關係로 들어가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죠. 그러나 北韓의 현 실상으로서 유엔무대에서 南北關係가 協力關係나 和解關係로 들어갈 것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對南戰略이나 對美外交에 하나의 발판으로 삼을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南北關係가 梗塞될 조짐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피상적인 관찰로만 보면 對外的으로는 「하나의 朝鮮」論理를 포기하는 것같은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北韓은 「하나의 朝鮮」論理라는 것이 體制存立의 기반이 되는 논리입니다. 그 논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가령 北韓 外交部가 유엔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낸 聲明書에서 이것은 두개의 朝鮮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또 어제 北京에서 열린 日本과의 修交會談에서 日本의 管轄權 인정 요구에 대해서 그것은 內政干涉이라며 발끈한 것도 사실은 「하나의 朝鮮」論理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으로서 가장 큰 고민은 그것일 겁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지금 「하나의 朝鮮」論理의 포기를 인정하는 것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오히려 思想 統制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소련사태 이후 당연한 것이죠.

中國이 그렇고 北韓이 그렇게 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北韓 人民들도 지금 유엔가입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核査察 受容하는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北韓의 고민은 대외적으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문제하고, 대내적으로 體制守護를 위해서 思想統制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고민의 겹을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人民들을 설득하느냐 하는 문제가 北韓當局者들의 제일 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朝鮮」, 예를들면 그 세가지 문제를 거기에 對日 修交나 對美 關係改善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北韓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하나의 전략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北韓의 본질적인 변화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朝鮮」論理를 사실상 포기를 한 것이다, 그리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冷戰的 思考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규정이 아닌가 하는 점을 具博士께 여쭙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司 會 黃委員께서 지적하신 것을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다음은 10분간 휴식을 하고 11시 45분에 다시 모여가지고 討論者의 문제 제기에 대해 發表者께서 의견을 개진하신 다음에 플로어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司 會 그러면 2차회의에 들어가기전에 具宗書는설위원께서 主題發表하신 논리전개에 대해서 여기 계신 다섯분의 言論인들이 다소 異見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제 제기를 하신 토론자들의 견해에 대한 답변을 먼저 主題發表者께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도 여기 討論者 중에서 간단하게 하신 다음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플로어에 계신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具宗書 論說委員께서 다섯분의 討論者가 제기한 문제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具宗書 다섯분의 동료들로부터 좋은 지적을 많이 받아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야의 지적까지 있어가지고 제가 공부하는데, 제 思考의 領域을 그 방향으로 전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두 南北關係를 기본적으로 우려하고 있고 또 統一을 꼭 실현해야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인식차이가 다소 있더라도 억지로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메모된 범위내에서 제 생각을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鄭雲宗 京鄉新聞 論說委員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平壤祝典」에 저쪽의 요구대로 1천명이고, 요구한 5만명 전부를 보냈다고 했을 때 저쪽에서 받아 들였겠느냐, 저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일 能力도, 意思도 원래 없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공은 그쪽에 주는 것이 좋았지 않았겠느냐, 전술적으로 봐서 받아들이면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발표가 되어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心理戰 내지 戰術面에서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냐, 자기네들이 우리 학생들을 煽動해가지고 5만명 받아들일 것다 보내라 해놓고 안 받으면 무슨 변명으로도 합리화가 되겠습니까? 저는 받아들이면 받아들인대로 좋고 안 받으면 안받아들인 만큼 다 우리한테 유리하고 北韓에 불리하다. 北韓하고 싸워서 이기고 지고 손익을 따져서가 아니라 지금 南北韓關係에서는 허위가 지배하고 있고 아직도 正道가 아닌 詐術, 무슨 工作 이런 것에서 빨리 우리가 남북이 벗어나야 되는데,

특히 北韓을 거기서부터 분리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많이 가서 보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아직도 환상에 젖어 있다고 봅니다. 그 학생들, 특히 左派학생들이 가서 보면 설사 와서 무슨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양심은 못속인다. 北韓의 現場, 南韓의 現場을 그 사람들이 理性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비교를 해 볼것입니다. 무엇을 비교할 것인가, 어디가 더 좋은 사회냐, 누가 더 건설을 잘 했느냐, 예를들면 우선 自由가 어디가 더 잘 보장되어 있느냐 그것이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생활물자, 소비를 통한 福祉가 어디가 더 잘 되어 있느냐, 이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또하나 본다고 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어디가 더 많겠느냐, 우리는 이 세가지 점에서 우리가 壓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가더라도 자기만 안 속이면 됩니다. 자기 양심마저 속인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고 오는 것만으로 나는 유익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對話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있느냐, 토론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만나는 것 자체가 北韓을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시킨다고 봅니다. 그 변화는 것은 北韓이 지금 무슨 변화가 오더라도 지금의 北韓體制를 보다 緩和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찰을 할 때 北韓當局者, 또 北韓의 戰略家, 政策樹立家, 會談參加者의 변화가 전부가 아닙니다. 北韓 人民들이 어떠한 인식을 갖고 변화를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獨逸統一을 강조했습니다마는 獨逸統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平和統一이죠. 우선 戰爭 안하고 統一했다. 두번째는 무엇입니까? 共產體制 내의 인민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거기서 그쪽 지도자들이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民衆, 人民, 北韓의 國民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統一에 결정적입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만, 아까 鄭璟喜委員께서 여러가지 유익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과정에서 統一은 파워게임이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쪽 政權과 우리 政府와의 對話라든지 작용은 파워게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統一이 될때는 파워게임을 초월한, 우리가 獨逸式 統一을 생각할 때, 마지막 東獨人이 長蛇陣을 쳐서 체코로 도망가고 西獨으로 오고 할때에 그때 무슨 파워게임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체제간의 優劣競爭입니다. 獨逸 국민이 무엇을

생각했느냐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것이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워게임은 統一過程에서 對話過程에서, 政府對 政府 次元에서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 국면에서는 그것을 초월하는 게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다음은 朝鮮日報 都俊鎬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만나면 統一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겠느냐, 이것은 이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나면 統一이 된다는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만나면 저쪽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쪽의 허위선전 체계에 사로잡혀 있는 北韓사람들한테 南韓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사람이라도 만나고 한사람이라도 오는 것이 좋다. 南韓이 자기네들 보다 우월하고 김일성 보다도 우리는 몇사람의 指導者가 바뀌었지만 우리가 더 잘 산다, 더 자유롭게 산다, 미래도 밝다, 이것을 北韓 사람들이 알았을 때 사람에게는 理性과 함께 本能이 있습니다. 理性的인 판단으로 合理的이고, 本能的인 판단에 의해서 일어설 때 지금의 北韓體制는 存立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 交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고 비판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여기서 가능한 無制限 交流, 우리가 무제한 다 허용하고 했을 때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허용해도 실제 交流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北韓 자체가 더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을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나는 무제한 交流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말이기 때문에 피하겠습니다마는 갔다 올수록 누구든지 갔다 오도록 둔다. 北韓의 統一戰線戰略이 여기에서 먹혀들지 않는다. 또 우리 政府가 누가 갔다 왔는지 알고 우리 國民이 누구인지 아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어느정도 反國家的인 행위를 할 수 있겠는가. 저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막을 수가 있다, 體制維持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아까 鄭璟喜委員께서 문익환이나 임수경이 구속된 상태니까 지금 팬클럽이 풀어 준 상태면 달라졌을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하나의 좋은 계기를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만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左派 사람들은 이론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討論을 좋아해요. 우리 左派사람들을 북쪽에 보내면 그쪽에서 合意보다는 論爭만 하다 오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사전에 교육받은 그쪽의 諜者라면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우리 左派하고 저쪽 政府代表가 만나면 의견의 일치보다는 의견의 괴리를 더 많이 발견해가지고 돌아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상정해 봅니다. 어느정도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에서 한 그룹내에서도 싸우는 사람들인데 더구나 北韓에 가서 그 사람들 이데올로기에 쉽게 추종할 것 같지도 않고 합의에 도달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都部長께서 특히 國家保安法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저는 國家保安法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한 적이 없고 國家保安法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國家保安法으로 인해서 南北關係에의 발전이나 統一에 지장이 되고 北韓을 변화시키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과감히 修正하고 또 운영에서 신축성을 보여야 됩니다. 保安法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北韓政策은 南北關係를 발전시켜서 統一을 앞당기고 民族의 利益과 장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保安法 하나 고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朝鮮을」 포기하는 것은 속단이 아니냐?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의 조선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내적으로는 포기 안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까 黃錫鉉委員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전제가 있으니 그것을 불가피하게 평면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北韓이 「하나의 朝鮮」을 과연 그 논리를 지켜 나갈 수가 있겠느냐,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 두개의 政府를 말하고 있고 두개의 體制共存을 말하고 있고, 같은 자격으로 유엔에 두개의 議席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의 조선」을, 말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논리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설득력과 효력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논리적으로는 포기 안했는지 몰라도 사실상 이것은 폐기 처분된 것이 아니냐, 北韓은 폐기

안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따라서 外交交渉에서 그것을 내걸 경우 그것이 어느정도 상대방의 설득력이 있겠느냐, 반격받을 여지가 많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점에서 사실상 「하나의 조선」은 포기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포기됐다고 강변할 생각은 없습니다.

北韓의 統一方式을 都부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獨逸統一을 보면서 統一方案의 진짜 價値를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볼만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統一方式은 필요하죠. 우리가 統一問題를 생각하는 방향과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統一方案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방안대로 꼭 統一이 되겠느냐, 또 상대방이 있는데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統一方式에 가치와 평가를 너무 지나치게 중요시할,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기에 너무 지배되거나 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都부장께서 대내적인 준비가 된 후에 만난다. 저하고 큰 인식의 차이인데 저는 우리는 이미 준비가 돼 있다고 믿습니다. 體制의 우월성, 國民의 體制에 대한 信賴 그리고 北韓의 상대적인 취약성, 이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만나도 위험하지 않고 北韓에 불리하고 우리한테 유리하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KBS 金鎮基위원께서 자상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중복되는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길게 안하겠습니다마는 1천명을 우리가 보냈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鎮基위원께서 保守, 急進 분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면서 자신의 분류방법을 제시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분류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재미있고 좋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金鎮基위원께서는 자신이 保守로 몰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保守的인 견해를 가진 사람으로서 말한다고 하셨는데 내 분류방식으로는 金鎮基위원은 保守的인 견해를 가진 것 같지 않습니다. 상당히 온건파에 속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70년대의 對話는 시간을 벌기 위한 對話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認識의 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알가알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밖에 말씀하신 北韓의 성실성은 對南誹謗을 中止하고 駐韓美軍撤收 요구를 철회할 때 입증된다.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政府도 마찬가지로 美國政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믿고 있는데 北韓은 더합니다. 아주 철저합니다.

예를들면 美國의 경우 對韓國 政策의 기본은 특히 안보에 관한 韓國의 安全保障을 美國이 책임지고 있다고 매년 말하는 것이 政策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安保를 책임 지느냐 안 지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政策으로 삼고 있어요. 北韓도 자기네들이 駐韓美軍 撤收하라고 해서 撤收하지 않는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을 政策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對南誹謗 中止 주장도 상당히 對內用일 수가 있다. 그리고 北韓의 선전이라는 것은 진실에 바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北韓이 南北分斷을 영구히 고착시키는 것이라해서 그렇게 반대해 오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들의 논리라는 것이 얼마나 기반이 약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다음 鄭委員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한테 많은 가르침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圖式的이 아니냐 統一이 그렇게 圖式에 의해서 되는 것이냐, 만나면 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낙관적인 견해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費用과 效果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된다고 해주신 것도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西獨이 統一되기까지 많은 준비가 있었다는 것을 상세히 지적을 해주셨고, 이것은 우리 政府로서는 생각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獨逸統一에서 마지막에 東獨 사람들이 西獨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중요시해야 합니다. 왜 선택을 했겠느냐 그러한 조건을 西獨은 갖추고 있었는데 우리 政府는 어느정도 갖추고 있고,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의 政策展開는 有事時 統一의 계기가 왔을 때 北韓의 住民들이 南韓體制를 선택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 政府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고 계실 것으로 믿는데 이것은 우리한테 중요한 교훈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黃錫鉉위원께서는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의 朝鮮」 포기문제, 아까 제가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공통된 질문에 포함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獨逸式 統一을 잠깐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平和統一, 東獨 人民의 선택, 그리고 우월한 體制에 대한 무조건 歸屬, 이것으로 특징지어지는데 그런점에서 政治的으로는 共產主義 一黨 獨裁 政治에 대한 西獨 民主主義의 勝利입니다.

경제적으로 社會主義 統制經濟에 대한 資本主義 市場經濟의 勝利입니다. 사회적으로 全體主義的 단일 사회체제에 대한 多元主義的 複合社會의 勝利입니다.

國際 또는 外交面에서는 平和主義, 開放主義的 外交의 勝利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여러가지 獨逸式 統一의 가능성과 유효성과 또 바람직한 효과성, 이런 면에서 볼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統一方式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北韓이 변화되어야 된다, 北韓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많이 만날수록 변화를 加速化 시키고 유리하게 된다. 그렇게 될 때 北韓의 住民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쪽의 指導體制를 버리고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되게끔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것을 결론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司 會 들으신 바와 같이 主題發表者 具宗書 論說委員의 討論者에 대해 견해를 약간 달리한 논리 전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10분간 討論者 중에서 다시한번 어떤 문제 제기라고 할까, 오늘 主題發表 내용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2, 3분간 의문이 있으신 분만 말씀해주시죠.

그러면 討論者들이 가능한 한 말을 안 할려고 그러는데 플로어에 앉아 계신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南北對話에 大家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 言論人들이 보는 시각은 이런데 南北對話에 전문적으로 종사한 분들중에서 主題發表 내용이나 기타 討論者중에서 논리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다든지 하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들 들어 주시면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質問者 저는 운을 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보다도 오늘 우리나라 統一問題, 安保問題, 北韓問題를 제일 일선에서 유도해 나가 주시는 大家이시고 또 言論界의 重鎮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一目瞭然하게 앞으로의 흐름을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었으며 저는 대단히 큰 참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앞으로 對北政策에 좋은 자료가 되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 생각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具宗晝委員님께서 分斷國 접근 노력의 세가지 類型을 말씀해주셨는데 이것을 鄭璟喜先生님도 약간 이의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드린다면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말해서 이런 類型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당초 정책의지냐, 이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獨逸的인 先對話 後交流라는 것을 보면 69년 브란트 東方政策이후 이것이 마치 對話가 되고 交流가 된 것같이 얘기하지만 이미 50년대, 60년대부터 東西獨간에는 交流가 있어가지고 이미 상당히 활발했다. 그리고 브란트는 구체적인 統一問題에 대해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先對話 後交流 문제는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떠나서 과연 先對話 後交流라는 것이 獨逸의 政策意志였느냐, 결과가 그렇게 되었느냐, 또 그다음에 中國의 경우는 先交流 後對話라는 것이 이것이 政策意志로 그렇게 나온 것이냐, 현재 우리가 관측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냐, 南北關係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對話와 交流의 병행이라면 상당히 이상적인 것같지만 이것이 결과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西獨의 경우를 보면 西獨이 강했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當局論理로 풀어 갔고 또 中國은 中共쪽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소위 人民戰線, 統一戰線 차원에서 交流로 먼저 풀어 가고 있다. 그다음에 南北關係는 둘이 다 서로 팽팽해 가지고 우리는 상당히 우월하다는데 北韓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對話나 交流가 어정쩡한 위치에 있지 그것이 政策意志로서 나타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保守, 穩健, 急進關係도 아까 金鎮基위원님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南北關係 貸借對照表라는 것이 平和와 統一이 貸邊이나 借邊이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고 어느쪽으로 기우느냐 이것은 상당히 北韓의 태도에 많이 달려 있다고 본다면 굳이 保守다, 穩健이다, 急進이다 하는 그런 분류보다도 역시 제가 保守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北韓의 행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보다 보니까 保守라는 입장이지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자체가 保守라고는 볼 수 없다. 이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저희들이 잘 선택해서 써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방적 개방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具宗晝위원님의 開放問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동입니다. 다만 만약 北韓式의 開放을 우리가 그대로 용납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北韓이 對南戰略을 플러스 요인으로 보고 계속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當局論理, 당국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고 오히려 이 부분은 악화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의 對南戰略을 봉쇄하는데도 상당히 역할을 했다면 이것은 우리가 當局의 主導로 對話를 풀어 나가는데 있어 北韓을 봉쇄하는 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야지 너무 부정적 측면으로 보면 北韓의 對南戰略 주도로 南北關係가 풀려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당히 검토해야 된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北韓의 變化基準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면 막연히 大韓民國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오느냐, 資本主義 기준에 맞춰 오느냐, 이것이 혼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의 변화는 우리가 우리한테로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고 北韓 자체가 여러가지 革命路線의 포기라든지 平和共存을 추구함으로써 南北關係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방향에서 우리가 어느정도 설정이 되어야지 너무 지나치게 大韓民國으로, 마치 東西獨처럼 吸收 統合되는 그런 인식을 주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혼동을 겪고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言論에 제시면서 국민들한테 이해를 분명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의 朝鮮」이라든지 駐韓美軍撤收, 이런 논리의 문제가 나왔는데 北韓은

논리의 전환이라는 것이 간단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엔에 가입하면서도 결국 유엔에 들어가서 민족의 일부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엔에 들어간다 해버리면 된다 이것이에요. 우리처럼 國民의 同意를 받고 合意를 받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주는 논리대로 밑에서 소화시키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논리전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美·中國간에 國交가 正常化됐는데도 분명히 천안문광장에 美帝打倒, 資本主義打倒 구호가 걸려있었는데 지금 코카콜라 선전도 걸려있고 삼성 TV광고도 걸려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中國이 거기다가 美帝打倒라든지 資本主義打倒 구호대신에 코카콜라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革命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北韓이 논리적으로 변화가 있더라도 이것이 革命의 포기다 이렇게 우리가 速斷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끝으로 제가 조금 具委員님한테 아쉬운 것은 우리가 과거의 對話의 역사를 보면 當局과 非當局對話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역시 傳統的인 外交라는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當局間에, 政府間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있고 北韓은 원래 革命戰略에 의해서 統一戰線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人民外交의 차원에서 非當局間에 對話라든지 交流를 굉장히 우선했다. 아까 中國의 경우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우리는 當局論理를 계속 주장하면서 北韓의 非當局論理는 統一戰線차원에서 일축할 것인가,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20년을 회고하고 앞으로 政策을 전망하는데 北韓의 非當局對話, 소위 交流協力, 이 문제를 얼마만큼 우리가 受容해서 이것을 조화시켜 나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검토를 하고 여기에 代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司 會 지금 질문자께서 여러가지 의견과 우리가 연구해야 할 과제들, 예를들면 北韓에서 주장하는 當局과 非當局間的 政治協商會議 형식의 革命戰略에 대해서도 具宗晝위원이 제기한 무조건 만날 수 있다, 학생도 가고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 具博士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포괄적인 것입니까? 當局間, 非當局間 그것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具宗書 첫째 문제, 접근방식의 類型分類가 政策에 의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저는 政策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접근방식을 사후에 검토해 가지고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분류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獨逸에서 交流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이고, 기본적으로는 兩獨 基本協定 또 附屬協定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중요시해서 작은 부분은 생략하고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相互作用의 결과지 政策의 결과가 되겠느냐, 또 政策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더구나 분단국가는 1:1인데 한쪽에 비토 파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잘 안됩니다.

保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保守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保守勢力이 안정유지 세력입니다. 우리나라 保守勢力이 전부 자신감과 긍지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요즘 保守라면 아주 모욕적인 것으로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변화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것같은데 우리가 保守와 反動은 조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反動이라는 것은 과거 지향적이죠. 과거에 좋았다가 지금 나빠진 사람들, 과거로 되돌아 가고자 하는 사람들 '아 日帝때가 좋았다.' 하는 사람은 反動이죠. 保守는 現在指向的인 사람들입니다. 현재체제가 이만하면 됐다고 변화를 拒否하는 것입니다.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체제도 좋은데 이 체제를 유지해야 되겠다.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改革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保守입니다. 또 하나는 進歩라는 말을 씁니다. 진보라는 것은 현재가 구조적으로 나쁜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고칠점이 많다. 그래서 改革을 해야 되겠다. 체제를 두되 과감히 改革을 해야 된다. 改革의 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革命的인 방법에는 의해서는 안된다. 合法的인 테두리내에서 政策的인 수단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急進이 있습니다. 急進은 革命勢力이죠. 이것은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고 없애야 된다. 새질서를 건설해야 된다. 이것이 革命勢力입니다.

進歩勢力이나 急進勢力은 미래지향적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고, 수단의 차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볼때 우리가 保守勢力이라고 해도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긍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사회를 지키는 것은 保守勢力입니다.

그밖에 北韓式 交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에 이번에 저쪽 제의를 거부했다 이것이 戰術的이라면 저희들은 말을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戰術的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또 그것은 政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효과가 더 잘 되기 위해서 南北關係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戰術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범위내에서는 얼마든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미처 인식이 없어 가지고 일괄적이고 전폭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약간의 加減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北韓에 대한 변화문제인데요. 저는 北韓이 상당히 변하고 있다고 인식을 합니다. 北韓에서의 작은 변화는 절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큰 변화라고 봐야돼요. 우리가 어두운 방에서 바늘구멍 하나 찾아냈을 때 이것으로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밝은데서 구멍을 뚫어놓으면 빛이 들어와도 느끼지 못하는데, 北韓에서는 작은 변화도 큰 변화라는 것, 유엔가입만 하더라도 큰 변화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구조적인 변화에 앞서 가지고 표면적인 변화가 온다. 전체적인 변화에 앞서 부분적인 변화가 온다. 지금 비록 北韓이 구조적인 것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일부가 변했습니다. 또 전부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부는 변했어요. 이것은 변화의 시작이 아니냐, 변화가 계속될지 또는 후퇴할지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변하는 것만큼 인식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의 戰略과 思考와 政策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當局과 非當局對話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對話라고 하면 當局對話를 말하고 非當局對話는 일종의 交流가 아니냐, 非當局이라도 조직적인 큰 것은 對話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戰術的인 차원이라면 여러가지 신축성있는 決定과 政策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우리의 기본 전제하에 非當局의 對話도 가능한 한 제한하지 말아야 되겠다. 北韓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쪽의 스파이나 첩자가 아닌 한 그래도 자기 사회에 대한 책임도 있을 것이고 자신에 대한 판단도 있을 것이고, 國家機關이나 國民的 감시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책임하고 賣國的이고 反民族的인 행동은 못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고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司 會 플로어에 질문이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고 對話事務局 創設 20년을 맞이하여 言論界 重鎮 여러분들이 보는 南北對話,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具宗晝 박사의 獨逸式 吸收統一 방식논리가 유익하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는 北韓을 변화시키는데 우리 統一政策의 목표를 두고, 가능하면 北韓사람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우선 統一與件의 조성에 1단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論題를 가지고 다소 이견도 없지 않았습시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생각을 하고 言論界에서도 이점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오늘 討論會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II. 南北對話 20年の 評價와 向後 3년을 내다본 南北對話 推進方向

— 主題論文 要約發表 및 討論 —

主題發表：朴奉植(서울大 教授)

〈 討 論 者 〉

- 司 會：金 惠(外大 教授)
- 討 論：康 仁 德(極東問題研究所長)
- 李 相 禹(西江大 教授)
- 丁 世 鉉(民族統一研究院 副院長)
- 鄭 千 九(仁川大 教授)
- 車 榮 九(國防研究院 研究部長)

主 題 發 表

司 會 午後 會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세미나 중에 제일 나쁜 세미나는 發表가 너무 길어지고 討論이 너무 짧아지는 세미나이고, 發表와 討論의 길이가 비슷한 세미나가 그 다음에 나쁘고, 제일 좋은 세미나는 發表가 요령있고 짤막하고 討論이 길어지고 진지한 세미나가 제일 좋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히 明瞭한 論旨의 論文을 써주신 朴奉植 教授께서 워낙 원숙하신 분이 되어서 發表를 한 30분이내로 요약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發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討論에 대해 회답을 해주시고 시간이 있을 경우에 플로어를 연결하겠습니다.

朴教授님께서 「南北對話 20년의 評價와 향후 3년을 내다 본 南北對話 推進戰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朴奉植 감사합니다. 오늘 討論會 성패는 제가 얼마나 發表를 짧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요령이 어느정도 닿을지 모르지만 努力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읽어 보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논문은 1, 2, 3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章은 제가 후트 노트에도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다도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第1章은 康仁德先生님께서 작년도에 쓰신 「北韓의 南北對話 戰略戰術 평가 및 전망」을 거의 그대로 요약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康先生님 글이 이 분야에서,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성스럽게 되어 있어서 제가 引用을 많이 했고 사실상 第1章은 康先生님 것을 臺本으로 했습니다.

우선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말씀을 드려 보면 1970年代, 80年代, 90年代로 나누어서 70年代는 우리가 겨우 아슬아슬하게 南北對話란 방법으로 北韓의 南侵을 막아 온,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단히 劣勢에서, 불리한 여건에서 國內外 政治的으로, 아시는 바와같이 71년에 駐

韓美軍 제 7 사단은 갔고, 7사단이 가면서 73년까지 제 2 사단이 철수한다고 美國이 일방적으로 發表를 했었습니다.

또 越南戰爭은 월남패망의 패색이 짙어서 美軍의 철수, 美國이 말하는 명예로운 終戰을 내걸고 美軍의 월남으로부터의 철수가 명백히 되어있고 바로 그 여세는 그와같은 시기에 美·中共간의 和解라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美·中共間에 和解를 하면서 駐韓美軍을 철수 한다는 것은 金日成의 입장에서 본다면 韓半島情勢가 越南情勢와 거의 병행해서 한두걸음 앞서거나 뒤서거나, 南朝鮮解放을 할 수 있다는 이런 展望을 가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南北對話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당시에 GNP에 있어서 우리가 불리한 狀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우리 國民들이 그래도 버티어 냈던 것은 그 당시 정치지도자의 어떤 문제에 대한 確信과 그 지도자를 따르는 政治體制의 강인한 背景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南北對話를 해냈던 것이 아닌가, 돌이켜 보면 아슬아슬했던 일도 많았고, 바로 그 시기에 북한이 지하땅굴을 파기도 했던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70년대의 南北對話는 大韓民國의 體制維持를 위해서 아슬아슬하게 우리를 버티어 나가는 方法中 하나가 아니었던가, 그다음에는 70年代 末부터 80年代에는 역시 우리 나름대로의 經濟的인 成長을 배경으로 해서 자신을 가지고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나 對話 自體는 별로 진행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90年代에 와서 이제는 우리 나름대로 統一이라는 問題가 시간적으로 가시적인 거리에 와있는, 다시 말하면 統一問題가 기왕의 南北對話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體制를 유지하느냐, 그다음에 戰爭을 막느냐 하는 이런 消極的인 姿勢가 아니라 앞으로 90년대는 어떻게 하면 北韓을 어떤 방식으로 統一을 하느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南北對話의 位相이다. 또 北韓의 입장에서 본다면 70年代는 그야말로 越南에 있어서 共產主義의 승리, 이것을 南韓에서의 金日成政權의 對南戰略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 内外 與件이 대단히 그런 방향으로 성숙되어 있는 1971년에 大統領選舉에서의 선거상황을, 그 당시에 金日成이가 적절히 표현한 것을 제가 여기에 썼습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康仁德先生님의 글에서 보다 더 정확하게, 폭넓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73년 6.23宣言에 대한 北韓의 대응, 그 다음에는 74년 北韓이 美國議會에 편지를 내서 美國하고 平和條約을 체결하자고 나왔던 이런, 越南의 共產化의 과정이 하노이 정부가 사이공 정부를 상대하지 않고 美國政府를 상대로해서 1973년에 파리平和協定을 체결했고, 美國하고 직접 상대해서 美軍을 越南으로부터 밀어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73년의 6.23宣言도 北韓의 對話斷切의 이유가 되지만 越南에 있어서 하노이가 사이공을 상대하지 않고 워싱턴을 상대로 해서 目的을 달성하는 그 狀況을 역시 韓半島에서도 진행하기 위해서 74년에 美國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겠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속에서 75년에 사이공의 함락이라고 하는 것은 金日成에게에는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였었고 그가 北京에 가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잃을 것은 38선이요 얻는 것은 民族의 統一이라고 했던 것은 어느 시기보다도 客觀的인 情勢가 가장 유리하게 성숙되었던 시기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中共의 協調拒否로 무산이 되고 70년대가 막을 내리면서 失意에 빠진 金日成에게 또한번 절호의 기회를 주었던 것은 10.26사태입니다.

그다음에 10.26에서부터 全斗煥大統領의 政府가 들어서기 이전까지와 全大統領 政府 以後로 구별해서 우리가 北韓의 對南戰略을 구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10.26이후 崔大統領 政府까지 동안은 北韓이 이 사태를, 다시 말해서 10.26이후 조성된 南朝鮮의 情勢를 4.19때 맞이했던 情勢 못지 않게 유리하고 결정적으로 이것을 活用해야 될 시기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5.17이후 그다음에 全斗煥 軍事政府의 등장은 그들에게 이 절호의 기회를 박탈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北韓政府는 第5共和國에 대한 전면적인 拒否, 절대적인 拒否의 태세를 내외에 闡明하고, 특히 對南宣傳戰略에 있어서 南韓에 있는 5共和國 政府를 전면적으로 顛覆시켜야 되는 打倒의 對象으로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第5共和國 政府하고 接觸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은 올림픽 때문입니다. 1981년 IOC가 바덴바덴총회에서 서울올림픽을 결정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는 모스크바올림픽과 LA올림픽에 韓國의 參加를 저지해야 되겠다는 목적, 가장 重要하기는 제가 보기에 서울올

림픽을 막기 위해서 주로 體育會談으로 第5共和國을 상대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그 다음에 水災物資의 공급을 우리가 받는 바람에 이것이 契機가 되어가지고 經濟會談 혹은 기타 다른 會談으로 이어지는, 다시 말하면 初期에 第5共和國을 전면적으로 拒否하는 자세에서 올림픽때문에 그들 스스로의 必要에 의해서 對話에 호응해 나왔고, 이렇게 해서 80年代의 南北韓 對話의 현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1990년대에 와서 第6共和國에 대한 北韓의 對南戰略은 대단히 여유있는 자세에서 또 대단히 多方面的인 接觸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대로 共產主義의 沒落이 가져온 客觀的인 情勢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단순히 南北對話는 對話의 次元이 아니라 보다 더 統一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단순히 政權을 상대로 하는 政權間的 對話에 그치지 않고 統一을 실천에 옮기는 具體的인 計劃을 가지고 그것을 편리하게 하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條件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의 하나로서 南北對話, 다시 말해서 종래의 南北對話와는 좀더 개념이 다른 南北對話의 자세와 내용과 방법을 確立할 必要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南北對話라는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南北對話에 대한 國內的인 態勢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주변의 문제로 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新聞에도 늘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經濟가 生産性을 상실했다는 사실, 그다음에 政治에서 리더쉽의 不在, 그다음에는 근로자들의 勤勞意慾의 喪失,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부닥쳐 있는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民族은 다른 어떤 民族보다도 오늘날 共產主義의 붕괴에 대해서 共產主義가 망한데 대해서 소외시켜 이를 환호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民族이 이 지구상에서 共產主義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입은 민족이기 때문에 共產主義가 망한데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것을 환호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共產主義가 망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우리 民族에게 가져다 주는 문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될 문제 또한 다른 어떤 民族보다도 우리가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南北韓의 유엔가입이라는 것은 冷戰終熄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금

共産主義의 崩壞라는 사태가 우리에게 던져 주는 문제를 유엔가입을 위한 行事라는 것으로 問題意識을 축소시키는 결과가 온다면 오늘날 共産主義 崩壞가 우리 民族의 歷史앞에 던져 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오늘날 유엔가입이라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얼마든지 技術的으로 事務的으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처리하고 넘어가도 조금도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엔가입의 行事를 뉴욕에서 할 것이 아니라 뉴욕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이것은 共産主義의 敗亡이 가져 온 하나의 우리 民族에게 던지는 새로운 문제의 측면에서 汎國民的인 祝賀 혹은 歡呼, 또 동시에 던져진 문제를 國民的인 次元에서 맞이해서 여기에 본격적으로 접근하는 姿勢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속에서 우리는 다시 말해서 南北對話라는 것이 종래에 우리가 1970년대의 政權을 근근히 유지하는 자세, 80년대에 우리의 優勢를 자리굳히는 자세, 90년대 南北韓關係에서 뿐 아니라 共産主義의 敗亡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던져 준, 어떻게 보면 호박이 저절로 굴러들어 온 것같은, 결코 우리에게는 우리의 犧牲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만, 이렇게 造成된 유리한 情勢를 유엔가입이라고 하는 하나의 行事로서 문제의 重要性이 호도되어서는 안 되겠다. 보다 더 우리는 이 共産主義의 敗亡이 던져주는 우리 民族앞에 던져진 문제의 重要性을 國民的인 次元에서 의식하고 여기에 대한 國家的인 對應을 해나가는 중대하고 모든 國民이 參與하는 행사가 필요하고 그 行事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統一을 맞이하는 마당에서 大韓民國의 統一이 마치 西獨이 東獨을 말아 처리하듯이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과연 지금 현재 우리의 態勢가 충분한가 하는 문제를 챙기는 것이 南北對話를 이어 나가는 態勢의 確立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歷史의 흐름에 쫓겨서 金日成이는 독안에 든 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이 독안에 든 쥐때문에 독을 깨뜨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쥐를 놓칠 수도 있다. 우리가 10년전에 泰國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商品競爭이나 市場競爭에서 우리에게 도전할 세력이 될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日本으로부터 經濟協力을 받아서 간단히 10년이 채 안되는 사이에

東南亞 市場에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北韓은 經濟特區 운운해서 中共의 路線을 보다 더 이제는 과감하게 따르겠지요. 그다음에 日本하고 修交를 해서 日本 돈을 가지고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로 그들의 勞動力을 가지고 日本의 노하우와 돈을 가지고 합친다면 2, 3년내에 혹은 4, 5년내에 北韓의 商品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사이에 金日成 體制가 崩壞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金日成이가 中共의 路線을 조심스럽게 따른다면 體制가 깨지지 않고도 제한적이거나 中共의 본을 딴 經濟成長과 經濟의 體質改善이 가능할 수도 있다. 앞으로 3, 4년동안에 우리가 지금 현재처럼 經濟의 生産性을 상실하고 勞動生産性이 상실해지고, 貿易赤字가 3년 더 계속된다면 中共이나 蘇聯이 계속 지금의 大韓民國에 대하는 것처럼 앞으로 계속 3년, 4년 우리에게 대해서 매력을 계속 유지 해줄 것인가, 만약 오늘날 처럼 貿易赤字가 累積되어 가고 이것을 2, 3년내에 우리가 回復하지 못한다면, 물론 蘇聯은 우리가 30억 주기로 했으니까 30억때문에 계속 될지도 모르겠으나 中共이나 蘇聯이 우리가 만일 오늘날과 같은 經濟狀況을 빠른시일내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리라는 保障이 있기에는 우리 주위에 競爭者가 너무나 많이 登場하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유엔가입을 뉴욕에 가서, 나라의 政治의 中心部가 뉴욕으로 옮겨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오늘날 이 時代를 맞이해서 이 역사적인 共產主義의 敗亡과 統一에 있어서 우리에게 던져진 문제를 맞이 하는데 있어서 과연 올바른 行事인가 올바른 政策인가 저는 南北對話에 대한 態勢 혹은 앞으로의 우리의 準備와 관련해서 먼저 우리 지도층에서 이제는 統一을 맞이하는 態勢의 整備라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討 論

司 會 感謝합니다. 時間을 잘 지켜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워낙 제기해 주신 問題가 중요한 問題이고 사실 이 시점에서 누구나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問題이기 때문에 다시 발표의 요지를 되풀이할 필요는 없겠고 討論過程에서 이런 문제들이 활발하게 討論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상우教授님부터 먼저 討論을 해주시죠.

李相禹 고맙습니다.

우선 朴教授님께서 복잡한 問題를 간단히 잘 整理해주신데 대해서 感謝드립니다. 본인께서는 康仁德 博士님 것을 다시 再整理하셨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제일 첫째부분 南北對話 20年史를 정리한 것은 그 어떤 정리보다도 잘 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그 부분을 읽으면 거의 明確하게 지내 온 過程을, 흐름을 우리가 理解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論議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읽었다는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討論의 主題가 될 부분은 결국은 두가지 부분이 되는데요. 南北關係가 앞으로 전개 될때 관계되는 環境診斷 問題가 있고, 그 環境을 어떻게 우리가 評價하고 豫測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두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對應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統一을 앞당기는가 하는 두가지 문제로 要約될 것 같습니다.

環境診斷에서 國際政治의 흐름이라든가 東北亞 情勢의 變化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朴教授님께서 아주 간결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결국 環境 診斷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 되는 것은 우리 統一의 對象이 되는 北韓이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두번째는 北韓의 變化를 일으키는 要素가 뭐냐, 內部問題 및 國際環境問題, 이 두가지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영향을 과연 北韓 政治體制가 어떻게 受容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련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부분은 대개 朴教授님의 뜻에 동의하겠습니다마는 韓·中關係의 修交가 곧

이루어지리라고 내다 보신데 대해서는 조금 더 討論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후의 狀況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그동안에 저 나름대로 中國 사람들과 접촉해 본 結論은 그렇습니다. 中國에서는 확고한 것이 北韓과 日本의 修交가 전제되어야만 韓·中修交를 고려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변함없는 正確한 內容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北韓과 日本의 修交가 과연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것은 지금 여러가지 說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분은 豫想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또 日本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쉽게 北韓을 승인하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修交會談은 시작해 냈지만 오래 끌 것이다. 과거의 韓·日會談 關係를 회고해 봐도 그렇지 않느냐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北韓과 日本關係는 實質的인 協調關係는 상당히 빨리 진전되더라도 修交關係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韓·中關係도 거기에 따라서 소위 그사람들이 우기는대로 政·經分離의 狀況下에서 經濟的 交流라든가 非政治的 交流은 앞으로 계속 진척되겠지만 修交라고 하는 것은 멀어지지 않겠느냐 이것은 함께 討論해 봐야 될 主題가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제기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北韓의 對外政策 基調를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對南政策과의 상호 관련 문제입니다. 그것은 北韓이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더 보기전에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미 그동안에 나타난 행동을 보게 되면 北韓이 최소한도 對外開放에 관해서는 결심을 한 것 같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對日修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의를 올리고 있다는 것만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國際社會에 있어서의 北韓姿勢의 柔軟化가, 소위 부드러워진 것이 과연 직접 對南關係에도 적용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南北會談 戰略에도 계속 이어질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한번 論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의 討論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해서 우선 問題提起만 여기서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문제입니다마는 유엔加入 問題에 대해서 言及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朴教授님께서 말씀하신 것 뿐만 아니라 우리 社會에서도 여기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유엔에 加入했고 北韓도 加入을 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인데, 北韓과 우리가 유엔의 會員國이 되었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南北韓 關係改善에 좋은 도움만 줄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會員國이 되면 유엔에서 정한 모든 여러가지 유엔憲章 事項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안에는 여러가지 國際慣例를 따라야 되고 國際法規를 지켜야 되고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해석한다고 그러면 소위 大韓民國과도 平和共存을 수락해야 된다는 것으로 論理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마는 北韓이 그동안 해온 여러가지 行跡을 보면 北韓이 과연 유엔會員國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고분고분하게 움직일까 하는 것은 疑問으로 남습니다. 오히려 南北韓이 함께 유엔회원국이 되면 南北韓間에 國際社會에서 경쟁이 다시 激化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동안 國際社會는 우리 大韓民國의 독무대였었습니다. 北韓이 어떤 이유든지 스스로 參與를 안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競爭없는 독무대에서 우리 나름대로 혼자서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事事件件 北韓과 모든 문제에 있어서 競爭을 해야 되는 時代로 들어간다는 것도 생각해 두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제 見解를 말씀드린다면 유엔에 南北韓이 모두 會員國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 南北關係 展開에 도움만 주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挑戰과 새로운 負擔을 준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對備해야 하겠다는 점만 하나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北韓의 대남전략의 핵심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論議를 해야겠는데 그것은 오늘 討論의 主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마는 조금전에 朴教授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同意하면서 조금만 敷衍해 보겠습니다.

거듯절미하고 北韓의 對南政策을 요약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서 主觀的인 見解입니다. 北韓이 작년 겨울부터 금년 봄까지의 사이에는 중대한 變化를 한것 같습니다.

政策轉換이 있었다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北韓의 經濟狀態가 아주 나쁘다는 것에 대한 北韓 스스로의 是認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出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지금 현재 北韓의 體制 가지고는 이것을 克服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北韓으로서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현재의 궁지를 벗어날 수 없는데 까지는 도달했는데 다만 北韓이 갈 수 있는 길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레닌주의 국가들은 지금 改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蘇聯은 政治改革, 經濟改革, 對外開放 세가지를 동시에 추진했었고, 中國의 경우는 政治改革을 유보하고 經濟改革, 對外開放만 추진했었는데 北韓의 경우는 蘇聯을 보나 中國을 보나 그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政治도 유보하고 改革도 유보하고 經濟改革도 유보하고 다만 對外開放만 해서 이 難局을 극복하자는 것이 최근의 北韓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편의상 이렇게 엮어 보았습니다. 北韓이 보았을 때 남쪽은 아주 형편이 없는 體制입니다. 政治적으로 불안하고 反動政權이고 社會葛藤도 많고 혼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이 經濟적으로는 成長을 했다는 것을 北韓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政治적으로 저렇게 脆弱한 남조선이 저런 經濟成長은 가능했었는가 그 분석을 해보면, 北韓式 解釋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解釋이 될 것입니다.

남쪽은 日本 帝國主義者和 美帝國主義者로부터 資本主義 技術을 들여다 인민을 착취해서 값싼 勞動力을 들여가지고 값싼 消費財를 만들어서 第3國에 팔므로써 오늘의 經濟成長을 이룩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方式을 北에서 자기네 스스로 택한다면 남쪽보다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日本의 技術과 資本을 도입해다가 主體思想으로 잘 무장되고 훈련된 인민을 거기다가 투입을 한다고 그러면 南朝鮮 보다도 빠른 속도로, 南朝鮮과 같은 方式의 經濟成長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結論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걸 제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남조선내에서, 아까 朴教授님께서 얼핏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계속해서 統一戰線式的 混亂을 조장하는 것을 지속하고, 남쪽이 發展을 못하게 沮害하는 것이죠, 남쪽을 묶어 두는 한편 北韓은 남쪽이 해왔던 소위 開發獨裁式的 成長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5년내지 10

년내에 南半部를 능가하는 經濟成長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자기네들의 視角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第三者인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은 幻想的인 얘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만일 北韓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假定을 한다면 그러면 최근 北韓이 하고 있는 行爲 하나 하나는 그 틀속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假定을 해 보았습니다.

만일에 北韓의 對南政策의 자세를 그런식으로 우리가 엮어 본다고 그러면 그 틀 속에서 北韓이 對南政策을 취할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對話戰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自明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오늘 討論해 보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問題提起로 하나 던져 두고, 對應도 기왕 내친김에 한마디만 하고 그치겠습니다마는 이런 環境에서 朴教授님께서 더 구체적인 것으로 交通問題라든가 3通問題를 끄집어내서 擧論하셨습니다. 거의 다 제가 同意하는 問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對話라고 하는데 대한 우리쪽에서의 有用性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자 이것입니다.

北韓이라는 體制特性과 여러가지를 감안해 보았을 때 對話 自體를 가지고 北韓을 改造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北韓體制 改革의 수단으로서의 對話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對話라고 하는 것은 우리쪽에서 어떤 意味를 가지느냐, 한가지입니다.

우리 政府가 우리의 北韓에 대한 자세를 천하에 분명하게 闡明하는 道具와 機構 및 그러한 場所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다른 기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對話의 相對는 세가지입니다. 國內에선 우리 國民 일반이고 그리고 北韓의 政府當局者고 그리고 전 세계의 國際社會입니다. 이 세가지에 우리는 北韓을 이렇게 하려고 그리고 統一을 이런 方向으로 추진하려고 그리고 이렇게 진지하게 하려고 한다 하는 우리의 姿勢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通路로 그리고 하나의 手段으로, 마당으로 對話를 活用하자고만 정해놓는다고 그러면 그뒤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對話를 어떻게 運營할까 하는 것은 自明해지지 않겠느냐, 우선 抽象的인 얘기입니다마는 혹시 어떻게 다시한번 發言기회가

있을 지 몰라서 첫번째 發言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司 會 다음은 康仁德 先生께서 討論 해주시겠습니다.

康仁德 아까 朴先生님께서 제 論文에 대해서 너무 과찬의 말을 해주셨기 때문에 송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미 朴先生님 보고에서 南北對話에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南北對話의 展望에 대해서 자세하게 요약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李相禹 教授께서 對話란 뭐냐, 앞으로의 對話의 目的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提起해주셨기 때문에 가장 核心的인 문제를 提起 해주셨다고 생각해서 이 問題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朴先生님 페이지에 대한 제 코멘트는, 다 읽어 보고 그다음에 同意하기 때문에 조금더 구체적으로 한두가지만 指摘을 해 둘까 이런 생각입니다.

李相禹 教授의 지금 지적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對外開放, 이것은 앞으로 3년동안 進行될 것이 우리 눈에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對南開放, 또 對內的인 體制改革 이쪽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특히 저는 최근 北韓에서 얘기하는 獨逸式 統一方法, 吸收統一이라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저렇게 신경질적으로 反應할까 하는 문제를 곰곰히 생각하면서 이 위험성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獨逸의 吸收統一 논의가 가능하게 된 그 당시의 現實이라고 그럴까 그 당시의 狀況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獨逸의 輿論調查나 외국에서 獨逸統一에 관한 輿論調查를 쭉 해온 리포트를 보니까 11월 9일 베를린 障壁이 무너질 때까지는 東獨內에서 統一에 대한 구호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나온 여러 學者들의 報告書속에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11월 9일까지는 동독에서 反體制的인 改革의 요구는 굉장히 강한데, 그때 基督教 代表도 그렇고 反體制改革을 주장했던 사람들, 首相의 주장도 그렇고 改革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강하나 統一에 관한 요구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월 9일 이후에 中旬末로부터 下旬初까지 11월 24일까지의 기간에 급격히 늘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11월 9일 베를린 障壁을 무너뜨리고 전 국경선을 開放했기 때문에 11월 9일 이후 나흘동안에 4백만의 東獨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西獨을 방문합니다. 西獨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자신들이 東獨內에서 요구했던 것, 經濟的 豐饒, 政治的인 民主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對內的으로 改革을 하고 무엇을 하고 이것 보다도 統一로 막바로 가면 두가지를 몽땅 한꺼번에 찾을 수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東獨 人民大衆의 사회적 요구와 같은 민족이라는 民族的 感情이 11월 9일 이후 급속도로 하나로 歸一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統一의 슬로건으로 급격히 변하게 됩니다. 이런 급속한 변화는 東獨의 黨責任者, 改革主義者, 西獨의 勸首相 심지어 주변의 어떤 나라, 強大國 누구도 이런 요구를 制御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급속한 吸收統一로 나가는 契機를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南北韓 狀況을 정리해 본다면 만약 南北韓間에 開放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한다고 하면 동시에 풍요로운 경제, 정치적 민주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이것은 吸收統一로 가는 길이지요. 따라서 나는 北韓의 경우에 吸收統一의 문제를 내거는 것은 이것은 모든 南北對話에 基本原則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對內開放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南北間의 關係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지난 7월에 부시大統領과 노태우大統領이 발표한 기본틀, 統一의 기본틀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의 關係에 이니셔티브를 장악하겠다는 이 기도, 이를 구현하기 위한 南北對話 이것은 아무리 우리의 努力이 강해져도 북쪽의 呼應을 얻을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李相禹 教授도 얘기한대로 앞으로 對話의 目的이 뭐냐를 다시 整備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가 내놓은 提案 가운데 3通問題 혹은 南北間 基本合意에 대한 問題, 여러가지 문제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북쪽에게 對南開放을 促求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吸收統一의 길로 가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問題로 되지 않을까, 이런 意味에서 저는 앞으로 3, 4년동안에 南北對話의 진척이라는 것을 그렇게 기대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朴教授께서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經濟가 이 모양으로 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問題입니다. 저는 1970년대 이후 南北對話를 보면서 역시 힘이 없이는 對話가 不可能하다 하는 것을 전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1970년대 赤十字會談을 처음에 제기하고 이것이 南北調節委員會로 發展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1971년, 朴教授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總選에서 朴正熙 大統領이 이겼다는 것이 하나의 要因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외에 중요한 要因은 아까 여러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國際的인 要因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要因 가운데 하나가 選舉에 의해서 정정당당하게 이겨냈다는, 따라서 강력한 리더쉽을 가진 南韓의 指導者라는 것, 이것을 북쪽에서 認定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對話에 임하지 않았겠는가, 지난 8월 25일자 북쪽의 10가지 祖平統의 質疑書를 보면 맨위에 「盧徒黨에게」라고 제기하는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태도 이것은, 저는 북쪽이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역시 우리 内部의 問題가 南北對話를 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問題로 다시 등장함을 우리가 認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南北對話도 중요하지만 南北對話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力量의 蓄積問題 이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간단히 지적해 둡니다.

司 會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차례로 丁世鉉 先生께서 討論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나머지 세분이 간단히 討論을 하시고 우선 휴식시간을 15분 갖고 討論過程中서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해서 다시 討論하는 그런 方向으로 나가겠습니다.

丁世鉉 먼저 저 역시 최근에 北韓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가지 對話 또는 南北韓 關係와 관련해서 보여주고 있는 북쪽의 움직임으로 봐서 앞으로 對話의 機能이라고 하는 것이 限界點에 이른 것이 아니냐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對話의 機能, 우리가 지금까지 對話를 통해서 결국 그것을 交流로 연결시키고 또는 協力으로 發展을 시켜나간다, 그렇게 해서 북쪽을 開放시

키는데 있어서, 북쪽의 開放과 改革의 물꼬를 트는 하나의 시발점으로 對話를 지금까지 쪽 생각을 해 왔었고 그런 概念위에서 對話를 운영해 왔었다 하는 그런 前提에서 최근에 蘇聯 事態 이후 좀 멀리는 東歐羅巴 事態 이후에 북쪽이 對話에 대해서 부정 否定的이라고 그럴까 움츠리는 그런 傾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점에서 對話의 機能이 오히려 어떤 점에서 90년대로 들어와서 限界點에 이르렀다. 그 점에 있어서는 朴奉植 教授님께서도 마지막 結論에서 대체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李相禹 教授님께서도 그점을 지적하셨고 지금 康仁德 博士님께서도 그것을 지적 하셨는데 저 역시 차제에 우리가 對話의 概念을 재정립한다고 그럴까 또는 對話와 관련된 여러가지 政策方向을 다시한번 再考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同意를 표합니다.

특히 새로운 提議를 또 내놓을 것인가, 예컨대 10월 22일 열리게 되어있는 高位級會談에서 일정한 양보를 함으로 해서 頂上會談의 可能性을 높인다 하는 그런 前提下에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考慮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새로운 提議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까지 여러가지로 나왔던 提議나 또는 方案 같은 것을 차제에 體系化해 가면서 對話에 있어서 우리의 原則을 분명히 提示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그런 방향의 對話를 運營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對內的으로는 기왕의 提議나 또는 여러가지 方案들을 體系化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통일논의를 재정리해서 國民的 合意를 확대해 나간다면, 결국 그것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南北關係가 改善될 수밖에 없는 그런 周邊情勢가 조성된다든지 北韓内部의 變化가 생길때 우리한테 協商에 유리한 조건을 提供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몇가지 質問이라고 그럴까 여쭙 볼 말씀이 있습니다.

朴教授께서는 蘇聯이 제의한 아시아관 安保協力會議(CSCA), 이 問題에 대해서 우리가 關心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물론 현재로서는 美國이 여기에 대해서 反對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中國이나 日本 역시 이점에 있어서 조금 否定的인 立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北韓도 관심이 별로 없는것 같다. 그러나 우리 立場에서 본다면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결국 우리의 統一環境 造成에 있어서 CSCA 같은 그런 관계가 肯定的인 役割을 하리라는 그런점에서 關心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이 呼應을 받을 可能性이 없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關聯 國家들이 여기에 대해서 否定的 내지는 무관심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美國이나 中國, 日本, 北韓 이런 나라들이 결국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이것이 成事될 수 있다면, 이 呼應을 받을 可能性이 있다는 말씀을 하실때 判斷의 근거가, 특히 時期는 대체적으로 언제쯤, 어떤 狀況에서 누구로부터의 呼應이 먼저 시작이 되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具現될 수 있는가 하는 朴教授님 나름의 展望이 있으시면 그것을 말씀 해주시면 저희들이 情勢를 展望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統一費用 問題와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朴教授님은 결국 어차피 統一이라는 것은 吸收統一 方式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점에서 우리가 對備해야 된다는 그런식으로 저는 理解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統一을 대비한 經濟體質의 健全한 成長이란 측면에서 重大한 問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經濟體質의 健全한 方向으로의 改善이라고 그럴까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東西獨의 경우를 볼때 東獨 사람들에게 제발로 걸어서 서독으로 넘어 올 수 있도록, 또는 西獨의 품에 안기고 싶어하는 심정을 誘發시킨 것은 西獨의 福祉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北韓과의 關係를 앞으로 좋은 方向으로 發展시키기 위한 토대로서 우리 經濟體質을 改善한다고 그럴 경우에 어떤 方向으로 해야 되는가, 예를들면 西獨의 경우는 이른바 産業民主主義라는 것이 결국 西獨의 福祉를 돋보이게 만들었고 東獨 사람들로 하여금 西獨이라고 하는 體制를 바람직한 體制로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그런 評價들이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社會에서도 현재와 같은 그런 方式으로 계속 끌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産業民主主義와 같은 분위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대해서 見解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北韓 情勢를 전망해 주시면서 기왕에 北韓이 유엔가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政策의 變化를 지금 시작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3년이내에 그것이 本格化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제앞에 두분 선생께서 討論하실 때 대체로 북쪽의 여러가지 對南戰略과 관련된 變化展望을 하시면서 상당히 否定的이라고 그럴까 悲觀的으로 보셨는데, 朴教授께서 앞으로 3년안에 큰 변동을 겪을 것이다, 여기서 變動이라는 것은 단순 對外政策의 變化만이 아니고 사회자체의 커다란 質的인 또는 方向面에 있어서의 變化, 이것을 變動이라고 쓰셨을 텐데 대충 암시하는 것은 對南政策은 不變할 것이다, 그러나 對外關係는 急變할 것이다. 이런 것이 北韓 住民들에게 충격을 주어서 95년도에는 큰 變動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북쪽의 指導部가 對外와 對南·對內를 二元的으로 運營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것이 限界點에 이르러 가지고 결국은 어떤 점에서 폭발하지 않겠는가, 소위 現實과 政策사이의 乖離를 극복하고 그것을 現實的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전제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變動이 일어나는 경우에 어떤식의 變動이 일어나리라고 대체로 예상하시는지, 文字化하는 경우에 적어서 점을 치실 수가 없어가지고 안 쓰신 것으로 짐작이 됩시다마는, 예컨대 루마니아型 變動이 오리라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蘇聯型의 變動, 대체로 北韓 住民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큰 變動이 95년경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식으로 본다면 위로부터의 政策的인 變化라기 보다는 밑으로부터의 革命的 變化를 變動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대체로 北韓社會가 變化하는 경우에 蘇聯型이다, 東獨型이다, 루마니아型이다 여러가지 형태로 類型化하는 研究들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형태의 變動이 북쪽에 나타나리라고 展望을 하시는지 그 몇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司 會 討論者들이 너무 時間을 잘 지켜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時間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 것 같은데 우선 1次 討論은 잘막하게 끝내시고 휴식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조금 가열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은 司會者의 재주로 가열을 시키는 방법을 講究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鄭千九 教授께서 討論해 주시겠습니다.

鄭千九 朴奉植 教授님의 전반적인 것에 대충 同意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 소견하고 인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南北對話 20年の 評價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 보탠다면 전반적으로 세가지 정도로 要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南北對話가 中斷과 再開를 반복하면서 한번 끊어졌다가 다시 再開될 때마다 對話의 質과 量이 擴大돼 나가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가지 制度化가 많이 됐다. 對話方式이라든가 節次, 對話技術 또 交流形式에 대한 合意같은 것이 많이 쌓여왔다는 점이나 對話交流를 통해서 南北韓에 이미 20년을 통해서 南北對話에 관심을 가진 그룹이 많이 形成되었다. 그래서 참석하고 계신 선생님들이나 저나 對話關係에 參與한 분들이 많아짐으로써 그분들은 基本的으로 對話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운이 형성될 것같고 여기에 經濟交流가 시작되면 經濟人들이 南北對話에 관심을 가지고 一般 國民을 밀고 나갈으로써 이것이 그래서 나중에 對話가 무엇을 目的으로 했는지 하는 그것으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對話가 단순히 어떤 弘報次元에서나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實質的인 意味를 갖는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다시 연결시키겠습니다.

두번째로 南北對話 環境부분에서 蘇聯의 安保協力會議 구상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가지 論議를 했던 理論들이 기본적으로 특히 美國의 基本的인 利益을 侵害하게 되어있는 점하고, 그동안에 아시아에서의 協力關係는 多者間的의 協力關係 보다는 雙務關係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아시아 지역은 多樣性때문에 西歐와 같이 하나로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하고 그런 점하고 이 문제하고 一致하는 질문을 丁世鉉 博士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北韓의 態度展望에 있어서 李相禹 先生님도 말씀하셨습시다마는 기본적으로 對外路線을 開放하지만 對南路線은 아직은 별개로 二重的인 基準을 가지고 있는 것같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評價라고 보시다마는 제 생각을 보탠다면 對南路線에 있어서도 앞으로 전반적인 北韓의 戰略에 있어서 對南革命 路線을 그대로는 계속 가지고 있겠지만 그 프라이어리티(priority)는 상당히 낮아 지지 않겠느냐, 과거 유엔加入 以前에는 對南革命이라는 프라이어리티(priority)가 상당히 높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維持는 하겠지만 프라이어리티가 상당히 낮아질 것 같은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拋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두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北韓 内部體制 維持 명분때문에 계속 南朝鮮 革命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고, 또 南北對話에서 北韓이 가지는 어떤 國力 差異라든가 이런 열세를 만회하는 하나의 手段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本質的인 問題에 있어서 아까 첫번째 評價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무엇을 對話의 目的으로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評價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평가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對話에는 한가지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目的이 한꺼번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時代에 따라서 그때 그때 따라 目的의 重要性이 변동되고 우리가 對話戰略을 구사할 때도 그때 그때에 어느쪽을 重視해야 될지, 또 어떤 項目에 대해서 어떤 점을 重視해야 될지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一律的으로 판단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세가지의 目的을 우리가 對話를 통해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추구한 것처럼 어떻게 南北對話를 통해서 基本的인 合意點을 北韓과 찾아내느냐 하는 合意導出 方法으로서 對話의 目的이 있고, 그다음에 對話를 통해서 여러가지 節次上의 合意가 많이 蓄積되어 합의를 도출하는 측면에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도 특히 南北關係가 변모되고 유엔가입을 하면서 合意導出의 부분이 결코 경시될 수 없다, 이점도 앞으로 많이 發展할 것으로 봐서 상당히 重要하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홍보, 아까 李相禹 先生님 말씀하신대로 國民을 대상으로, 北韓을 대상으로, 世界를 대상으로 우리의 立場을 밝히는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번째로서는 아침에 具宗書 論說委員 페이퍼를 보니까 우리의 對話目的은 北韓의 開放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꼭 北韓의 開放이라는 측면보다도 그것을 包括的의 概念으로 해서 北韓의 政策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의미에서 對話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이, 세가지 目的이나 對話의 內容이 시기에 따라서 어느쪽이 강조 될 수가 있고 또 토픽(topic)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가지는 다 동시에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볼때는 合意導出이라는 것은 역시 우리가 추구했던 기본틀을

어떻게 하면 北韓과 合意를 導出하느냐 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 생각에는 기본틀을 꼭 文書로 確認할 것이 아니라 文書는 상대방에서 거부할 염려도 있으니 여태까지 한대로 具體的인 하나하나에 대한 案件을 合意해서 하나의 관행과 비슷하게 合意를 이룰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복잡하니까 連絡官 常駐 같은 것을 은근히 해가지고 평양 한사람, 이쪽에 한사람 교대로 해서 한다는 식으로 간단한 것부터 合意해서 蓄積하는 것이 기본틀에 合意하는 方法이 아니냐, 그다음에 弘報나 政策과 관련하여 北韓을 變化시킬 수도 있고 또 홍보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案件들이 앞으로 여러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朴教授님 지적하신 것 중에서 核問題에 대해서 NCND政策을 말씀하셨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主權國家 國民으로서 우리 國土內에 核武器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確認할 수 없다는 것은 앞으로 民主化 時代에 걸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있느냐 없느냐 최소한도 정부가 밝힐, 그런데 몰리지 않겠느냐, 輿論上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NCND政策은 많은 學者들이 지적하듯이 현재로선 實效性이 없다. 핵억지를 위해서 NCND를 한다는 것인데 지금은 平和時代고 또 동족에 대해서 核報復을 하겠다는 威脅은 현재로서는 實效性이 없기 때문에 抑制의 効果가 없다. 그런 점에서 NCND政策은 再考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北韓의 民主化와 人權問題에 대해서 朴教授님이 提示하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北韓의 民主化, 人道的 問題를 어떤 방식으로 北韓에 대해서 展開하고 提起할 것인가 하는 方式의 問題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대체적으로 合意는 이런데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는 세가지 方法이 있다고 봅니다.

첫번째는 北韓이 韓國社會에 대해서 한 것 같이 北韓을 공격하는 하나의 무기로 前提條件을 제시, 攻擊的인 方法으로 그런 人權이나 人道的 問題를 제기하는 그런 方法이 있고, 또 하나는 北韓이 하나까 우리도 맞받아 쳐가지고 北韓의 韓國社會에 대한 공격을 中和하는 方法으로 人權이나 人道的 問題를 거론하는 方法이 있고, 세번째는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순수하게 同胞愛의 의미에서 前提條件도 아니고 다만 우리는 같은 民族이기 때문에 관심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세가지 方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지막 말씀드린 세번째 방법, 前提條件도 아니고 北韓에 대한 맞대응도 아닌 정말 우리 民族의 이름으로 北韓 住民의 삶의 質이나 그런데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人權問題나 民主化 問題를 기회있을 때마다 거론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司 會 감사합니다.

다음은 車榮九博士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車榮九 평소 존경하는 朴奉植教授님의 글을 잘 읽었고, 몇가지 여쭙고 싶은 事項들 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차례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지금까지의 北韓의 變化를 본질적인 軌道修正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質問 또는 생각을 해보자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은, 예를 들어서 유엔 同時加入을 受容했다든가 IAEA查察 受容을 하는 첫단계 조치를 했다든가 또는 對日修交로의 方向으로 전환을 했다든가 美國에 대한 柔和政策을 여러면으로 펴고 있다든가 또는 금년초 新年辭에서도 高麗聯邦制 統一方案의 修正을 시사했다든가 經濟特區를 추진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작년부터 금년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의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견 보기에는 重要的 變化라고 볼 수 있고, 아직 그러기에는 이르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 문제는 北韓에 本質的 軌道修正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를 할때에 무엇을 本質的 轉換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合意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北韓이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을 공개적으로 포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중요한 것이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統一戰線戰略을 拋棄했다고 宣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朝鮮」 政策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發表해야 되는 것인가, 뭔가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로 재어봐서 北韓이 이 잣대속에 들어 왔으니 이것은 本質的

變化의 軌道修正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무슨 基準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이 可能한가 하는 문제가 南北對話에 있어서 우리의 판단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朴教授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는 北韓의 改革·開放에 관한 문제입니다. 開放은 문을 여는 것이니까 北韓이 마음을 먹으면 부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改革은 開放 다음 단계, 물론 동시에 일어 날 수도 있지만, 改革은 開放보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北韓의 현재 체제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改革이 가능한가, 北韓에 改革主義者가 있는가, 北韓內에 改革을 하는 方法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제가 아는 北韓 사람과의 對話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北韓에는 改革을 아는 사람이 없다, 改革의 方法을 배운 사람도 없고, 들어 본 사람도 있을는지 몰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노하우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改革開放을 北韓이 하려면 開放의 문을 열면 되니까 첫단계로서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改革은 노하우를 알아야 되고 핵심이 되는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蘇聯은 엘친이라든가 고르바초프라는 브레인이 있었으며, 中國같은 경우 동소평 등등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끌고 나가는 무엇이 있었는데 과연 北韓에 改革을 할 수 있는 리더가 있느냐 그리고 改革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北韓에서는 우리가 改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세번째 문제는 北韓體制 붕괴에 관한 것인데 교수님이 뒷부분에서도 상당히 기본을 깔고 계십니다. 그 問題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崩壞에 대한 막연한 期待와 幻想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崩壞라고 하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崩壞하는 데는 하나의 必要하고 充分한 與件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날에 있었던 東歐羅巴, 東獨, 蘇聯 共產黨이 崩壞되고 體制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까지의 그 나라들의 지난날의 過程들, 서구와의 모든 交流, 또 내부에 쌓여있던 要素들, 붕괴될 때까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要素인데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 北韓이

開放하고 南韓과 交流를 하고 이렇게 하면 北韓은 금방 붕괴된다, 그런 생각을 그쪽 東歐를 생각하시면서 하는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康仁德 博士님께서 아까 東獨의 케이스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北韓 사람들에게 韓國은 憧憬의 대상인가 하는 것도 아직 確信이 잘 안 서는 문제고 그래서 崩壞에 관한 必要하고 充分한 條件, 北韓이 붕괴될 때까지 그것에 관해서 좀더 심층적인 생각을 해봐야 되고 質問을 본격적으로 던져봐야 됩니다. 北韓의 체제가 얼마나 維持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深層的 研究가 필요하고 北韓이 南韓하고 交流를 하고 對話를 하고 日本한테 개방하고 이렇게 되면 몇년내에 붕괴된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곧 崩壞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곧 統一인가 하는 것입니다. 崩壞=統一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北韓이 韓國政府에 쿠데타도 있었고 여러가지 政權의 變化가 있었습니다, 政權의 變化가 있었는데 그때 北韓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꿈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韓國에 쿠데타가 있었고 政權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이 體制가 崩壞되어 韓國사람들이 전부 손들고 北韓으로 올라올지 모른다, 70년대 北韓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政權이 붕괴되는데도 나라는 崩壞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政權이 들어서서 그 政權은 北韓에게 더 부드럽지도 않은 提案을 내놓았고 韓國은 生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崩壞=統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北韓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또다른 體制와 또다른 하나의 리더쉽이 나와서 그들의 體制를 維持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問題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南北韓 關係에 있어서 管理의 目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南北韓 關係에 있어서 管理의 目的을 아까 이상우教授께서 對話의 目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南北關係를 管理한다는 차원에서 目的은 무엇인가, 말하자면 北韓을 붕괴시키는 쪽으로 必要하고 充分한 條件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南北關係 管理目的인가 아니면 北韓의 政權을 安定化시키는 쪽으로 모든 管理를 끌어 가는 것이 南北韓關係의 管理의 目的인가, 어떤 쪽을 目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政策과 戰略의 추진은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다음 제가提起하고 싶은 문제는 統一에 관한 強迫觀念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統一에 대해서 지금 統一至上主義에 쫓기는 統一指向政策이 아니던가 하는 문제입니다. 統一을 하려고 할수록 統一의 열기가 나면 날수록 統一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獨逸도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統一 強迫觀念으로부터 解放하는 것, 統一熱氣를 식이는 방법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統一을 達成시킬 수 있는 可能性이 많은게 아닌가. 결국 統一이라고 하는 것은 民族이 다함께 번영하기 위해서 하자는 것이니까 그러려면 南北關係가 잘 管理되면서 북쪽도 잘 살고 남쪽도 잘 살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統一이 되는 것이지, 쫓기면서 統一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혹시 朴教授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平和體制문제인데 南北關係를 平和體制로 정착해야 되는 措置問題에 관해서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CSCA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國際的 協力體制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措置입니다. 南北關係도 平和體制로 정착할 조치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對話戰略의 方向問題인데 크게 보면 對話戰略을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세미나에서 발표하신 分具委員님 論旨에 의하면 웬만하면 받아 주라, 북한의 對南戰略에 대한 겁을 버려라, 그리고 對話를 擴大하고 이어 가라, 이런 식의 스토리였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하나의 선택은 아까 丁世鉉博士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國民의 컨센서스를 거치고 原則을 정하고 그 原則을 밀고 나가라, 그러다 보면 對話가 끊어질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끌고 나가라, 두가지로 크게 보면 分離가 가능한데 90년대의 對話戰略의 방향은 1번이나 2번이나 하는 것입니다. 양쪽을 다 합친다면 어떤 形態로 합쳐야 되느냐, 어떤 原則을 잡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言及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형태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司 會 감사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基本的인 問題들이 討論過程에서 제기된 것으로 압니다. 요약하면 소위

北韓의 變化 可能性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만약 可能性이 있다고 하면 그 誘導의 方法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느냐, 두번째로 현시점에서 그리고 앞으로 향후 3년간 南北對話 目的이나 機能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90년대의 南北對話의 方向設定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세번째는 소위 南北關係와 統一問題에 관련된 國內的인 準備나 態勢를 어떻게 갖추어야 하느냐 하는 問題들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問題의 提起가 있었다고 봅니다.

5분간 휴식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중심으로 다시 열띤 討論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司 會 다시 會議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討論者들께서 제기한 중요한 問題들에 대한 發表者의 答辯을 듣기로 하겠습니다마는 司會者로서 討論의 흥미를 위해서 한가지만 提起한다고 하면 역시 提起된 問題들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흔히 北韓의 變化를 얘기하면서 討論者들 가운데 상당수가 開放은 하지만 改革은 안할 것이다. 얘기를 듣고 남는 疑問이 뭐냐하면 改革을 각오하지 않는 開放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 改革規模나 方式은 北韓 나름의 방식과 규모로 개혁하겠지만, 상당히 다수의 사람들이 현재로서는 北韓에게 남은 길은 소위 中共式 改革을 축소된 規模로나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狀況에 있다고 評價하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인데, 오늘 여기에서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開放은 하겠지만 改革은 拒否할 것이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현재 실정에서 北韓이 느끼고 있는 危機의 性格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體制를 維持하기 위해서는 改革을 拒否해야 되고 體制를 維持하기 위해서는 어떤식으로나마 改革을 받아들여야 될, 두개의 상반되는 必要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狀況이기 때문에 判斷이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같은 北韓의 狀況에서 改革을 前提로 하지 않는 開放이라는 것이 과연 可能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討論해 볼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車博士께서 제기해 주셨는데 가령 北韓의 變化를 誘導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위 北韓의 體制崩壞로 가도록 誘導할 것이냐, 아니면 北韓 指導層이 위기감없이 피해의식없이 合理的으로 改革을 受容할 수 있도록 誘導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하는 問題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측에서도 뚜렷한 정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金日成 死後에 金正日이 순조롭게 權力을 繼承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좋을 것인지, 아니면 金正日이 權力을 계승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 더 좋으나에 관한 明白한 判斷이 없듯이 소위 北韓의 變化를 誘導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소위 말하는 進歩勢力과 保守勢力들 사이에서, 우리 안에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몇가지 당연히 떠오르는 의문과 관련해서 앞으로 討論이 접근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朴奉植 말씀하신 순서대로 모든 提起해 주신 問題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지를 못하고 제 나름대로 대답을 드릴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터이니 提起하신 問題에 대해서 제 대답이 없으면 제가 능력이 없어서 대답을 피한 것으로 理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맨 먼저 이상우教授님께서 韓·中修交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疑問을 제기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日·北韓間에 修交가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公式的인 修交와 實質的인 協力이 분리되어서 實質協力으로 이루어지되 公式修交는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하는 점은 대단히 문제의 진행에 示唆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日本과 北韓의 修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日本하고 北韓의 修交 혹은 이것이 韓國이 말하는 交叉承認으로 가는 하나의 현상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문제를 日本하고 北韓하고의 修交事實을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이에 修交한다는 차원을 넘어선 韓半島 政治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우리가 여러가지 側面에서 눈여겨 봐야 될 現象이 아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독안에 든 쥐가 독을 깨고 도망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 바로 北韓과 日本의 修交가 그 한 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정도까지 이 問題를 대단히 重要視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日本하고 北韓의 修交는 금년내에는 이렇게 티격태격하지만 해를 넘으면서부터 加速化될 것이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모스크바에서 실패한 쿠데타가 日本의 對蘇政策과 그 자세에 상당히 影響을 주리라고 봅니다마는 역시 日本 나름대로 政治大國으로 혹은 日本이 底力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北韓하고 修交過程에서 또 그 結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日本이 泰國에 투자해서 완전히 성공을 했습니다. 제2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역시 北韓을 상대로 해서 調整을 하는, 적어도 北韓이 人權問題에 대해서 日本人妻 歸還問題, 이번에 「이은혜」 문제에 대해서 北韓이 성의를 보인다면 日本으로서는 北韓하고의 修交와 協力을 주저해야 하거나 지연시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北韓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놓고 가슴을 열고 나온다면 日本하고의 修交는 비교적 쉽게 전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대부분 지금 北韓이 對外關係는 활발하게 開放적으로 中共의 노선에 따라서 할 것이다. 그러나 對南戰略과 관련하여 南北韓 對話와 交流는 體制開放이 아닌 것이다, 體制開放하면서 改革이 안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말싸움 비슷하게 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저는 지금까지 보기에는 北韓이 對話는 하되 그리고 交流는 하되 北韓體制가 開放이 안 되는 交流의 방향을 택해 왔다. 또 당분간 가능한 한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다. 또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交流를 하다 보면 결국 開放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 일텐데 交流가 축적이 된다면 불가피하게 開放이 되겠지만 北韓은 적어도 交流는 하되 가능한 한 開放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交流를 진행하려고 할 것이 아닌가 저는 一般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체로 對外政策은 활발히 開放하되 對南政策이나 國內體制의 改革은 하지 않고 넘어 가기를 바라는 것이 현재 北韓이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現實적으로 가능할까 가능치 않을까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論議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상우教授님께서 北韓이 南側이 그 사이 경험해 왔던 開發獨裁時代라고 부르던 經濟開發政策을 시행해 온 것을 그대로 역이용 또는 본을 따는 경우, 저는 바로 이점도 아까 제가 3년내에, 5년내에 우리 나름의 經濟體制를 再確立하지 못하는 경우에 北韓이 經濟的인 도전을 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도 이상우教授와 같은 맥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康仁德博士님께서 對外開放은 進行하되 體制改革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저하고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는 獨逸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하는 전후 상황, 베를린 障壁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東歐羅巴, 동베를린의 붕괴라는 현상이 北韓에서도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많은 與件을 서로 比較해서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丁世鉉博士가 질문을 2, 3개 했고, 車榮九博士도 했는데 丁世鉉 博士와 車榮九 博士의 질문을 함께 묶어서 하기로 하고 鄭千九 教授의 말씀에 대한 언급부터 해볼까 싶습니다.

물론 南北對話가 그 사이에 中斷되고 再開되고 하면서 對話의 量과 質이 늘어나고 또 많은 對話에서 서로 合意된 테크닉이 축적돼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對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점차 많아지는 현상이라는 측면을 저는 항상 南北對話事務局 討論場에 와서 많은 討論을 하면서 南北對話에 참가하는 사람은 南北對話를 위한 對話, 그 對話가 갖는 國內外 政治的인 意味는 생각하지 않고 다분히 對話를 成事시키는데 골몰하는 態度도 더러는 봐왔습니다. 그런면에서 본다면 두번째 評價에서 鄭教授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약간 저는 異見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는 역시 對南政策과 관련해서 對外關係는 開放하면서 對內政策은 不開放하고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對南革命 戰略의 프라이어리티는 낮아질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나는 동감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對話評價의 방법에 저도 의견을 같이 하는 바이고, 다음에는 南北對話를 통해서 北韓에게 體制的인 면에서 開放을 하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北韓으로서는 가능한 한 體制開放的으로 影響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그들은 對話를 진행해 왔고 交流를 하려고 해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北韓에 대한 人權問題의 제기방법은 세가지 다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역시 赤十字會談의 적극 추진이라는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北韓의 人權問題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정도로 鄭教授 말씀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정세현博士와 차영구博士의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吸收統一의 첫째 질문에 CSCE와 유사한 CSCA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周邊國家의 호응이 어떤 식으로 호응이 올 수 있느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日本의 일부 세력에서는 굳이 蘇聯의 제안이지만 그것을 배격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意見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또 제가 보기에 韓美軍事協力關係의 변화 이것도 그대로 영구히 갈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결국 美國 중심으로의 雙務的인 關係에 있어 온 防衛協力 體制에 따르는 안정유지라는 것이 역시 冷戰時代的인 體制입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修正이 가해질 문제가 아닌가, 이 修正이 가해지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아펙(APEC)과 같은 방식으로 經濟 社會的인 측면에서 기왕에 美國 중심으로 軍事 安保爲主로만 연결되어 있던 軍事政治現象에 대해서 社會, 經濟 이런 측면에서 집단적인 어프로치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蓄積이 되고 擴張돼 나간다면 결국 美國 중심으로 되어있는 雙務的인 軍事協力만으로 이루어진 이 體制에는 변화가 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吸收統一에 대비해서 東西獨의 경우에는 西獨에 있어서 産業民主主義라는 것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다른 요인도 있지만 東獨 주민들이 西獨에 대한 동경, 西獨式 社會經濟體制에 대한 동경을 가졌다는 사실이 우리하고는 다른, 吸收統合이 이론적으로 不可避하고 또 그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東獨의 경우는 西獨에 대한 동경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남쪽에 대한 동경이라는 것은 北韓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北韓社會가 철저히 閉鎖社會라는데 있지만 南朝鮮은 西獨처럼 社會經濟體制에 있어서 그야말로 동경의 대상이 된 體制를 과연 우리가 維持하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아까 제가 첫 설명을 할때에 지금 共產主義의 패망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대단히 흥분해 마지 않는 이런 찬스가 왔음에도 과연 현재 우리의 이러한 體制를 가지고 이 歷史的인 찬스를 소화해 낼 수 있겠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런데서 오는 비관적인 判斷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北韓이 變動할 것 같은데 變動을 어떻게 예상하느냐 變動이 뭐냐 하는 문제는

차영구博士가 제기했던 문제와 연결되는 것 같아서 연결시켜서 제 나름대로 所見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영구博士의 질문은 우리가 南北韓 問題를 다룸에 있어서 차분하게 생각하게 하는 대단히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北韓의 變化, 다시 말하면 유엔가입 등등 이런 일들이 그 變化의 케이스인데 이 變化를 우리들은 현재까지는 本質的인 變化가 아니다. 대내적인 體制開放을 안하기 위해서, 體制改革을 안하기 위해서 맞받아치는 對外關係의 변화이지 本質的인 體制變更이나 本質的인 軌道修正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解釋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解釋에 일단 동의를 합니다.

가령 유엔同時加入의 결정, 北韓이 아무리 유엔同時加入이라는 것이 남조선만의 가입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좋지 않은 현상을 막기 위해서 北韓이 가입했다고 하지만 결국 그렇게만 되고 말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北韓의 加入 動機는 남조선만의 가입에서 오는 불리한 現象을 막기 위해서이지만 결국은 同時加入한다고 하는 현실로 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런 케이스가 점차로 蓄積되는, 말하자면 原子力關係의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對日修交도 분명히 北韓體制의 現存體制의 維持를 위한 對日修交이지 北韓體制를 바꾼다든지 市場經濟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든지 人權問題를 향상시킨다든지 一黨獨裁에 修正을 가한다든지 하기 위한 對日修交이 아닌 것만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高麗聯邦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高麗聯邦制의 경우는 약간 요사이 다른 느낌을 갖는데 高麗聯邦制라는 것이 60년대부터 70년대 쪽 있어오니다마는 聯邦制의 방법으로 南朝鮮을 흡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70년대까지는 南朝鮮을 吸收統合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聯邦制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다분히 金日成이 용어를 한두가지 바꾸어 놓은 것을 본다면 南朝鮮에 흡수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聯邦制를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같은 聯邦制 內容인데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기왕에는 南朝鮮을 흡수하기 위한 聯邦制였던 것이 이제는 南朝鮮에 흡수당하지 않기 위한 聯邦制로 그 時代的인 用途가 변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그만큼 그런 用途의 變更 정도만큼은 北韓도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질적인 軌道修正이라고 봐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本質的인 軌道修正은 아니다, 물론 北韓 스스로 불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물론 아까 유엔가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北韓이 本質的인 軌道修正은 아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보았자 이런 케이스가 累積되면 그 累積된 사실이 마르크스주의에서 量과 質을 결정한다는 말은 옳은지 모르겠으나 이런 케이스의 累積이 北韓의 本質的인 修正을 사실상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北韓 스스로가 本質的인 軌道修正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北韓이 本質的으로 변화했다, 변하지 않았다 하는 基準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문제는 대단히 重要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많은 분들의 見解가 여기에 표현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本質的으로 變化했다는 基準이라는 것은 이 基準이 어디까지냐, 기준은 누가 設定하느냐, 현재까지의 基準은 北韓 스스로가 '나는 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기 전에는 本質的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엔에 南北韓 동시가입을 해서 南北韓 共存을 하겠다 하고 나왔더라면 그것은 변한 것으로 基準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대로 南朝鮮만의 加入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이러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加入한다, 그러면 本質的으로 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일단 假定的인 기준을 제가 그렇게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쪽으로 불매 基準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다른 問題가 나오고 있으나 일단 그런 基準을 본다면 그런식으로 1차적인 基準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開放은 쉬우나 改革은 어렵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北韓의 開放이란 말은 日本하고의 수교를 開放이라고 그러고, 經濟特區도 開放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對日修交도 開放이 아니고 經濟特區도 개방이 아니라고 봅니다. 開放을 안하려고 經濟特區를

만들고, 開放을 안하려고 日本하고 修交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이 개방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北韓 스스로가 開放을 안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開放의 基準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도 變化의 基準이 그앞에 있듯이 마찬가지로 開放의 基準도 北韓의 立場에 기준을 둔다면 開放을 하기 위한 日本하고의 修交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개방은 쉬우나 改革은 어렵다는 말은 北韓을 기준으로 하는 말입니다. 북한은 지금 현재 改革을 하지 않기 위해서 改革하지 않고도 넘어가는 手段과 方法으로 지금 開放을 하고 있는 것이고, 改革은 金日成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개혁을 아는 사람, 改革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 과연 北韓에 改革이 가능한가, 이것은 金日成 스스로가 改革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改革이라는 말 쓰니까 改革이 되는데 국민들이 레지스탕스라든지 혹은 經濟的인 식량부족에 의해서 共同的인 示威를 한다든가 사보타지를 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만연되는 경우에 改革의 실마리가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改革軍人이 있어서, 改革 專門家가 있어서 改革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적어도 그것이 共產主義 社會나 全體主義 社會에 있어서는 改革主導 勢力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改革主導 勢力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不滿 勢力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改革主導 勢力이 아니라 不滿 勢力이 생겨서 불만세력이 불만을 터뜨리고 破壞를 하는 過程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改革의 結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 共產主義 社會에서는 우리가 自由民主主義 社會나 開放된 社會에 있어서 改革에 대한 아이디어를, 그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그런식의 社會構造가 돼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따라서 北韓에서 改革擔當 勢力이 없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또 우리식으로 말하는 改革을 할줄 모르는 것도 當然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體制崩壞와 관련해서 붕괴에 대한 期待와 붕괴가 되기에 必要充分條件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體制崩壞를 가져올 수 있는 必要充分條件이나,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 제 자신이 그렇게 딱 따져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시다. 글을 쓰면서도 따져서 생각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물론 北韓이 그들 스스로 體制를 維持할 능력이 언제까지 있다고 보느냐 이점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다시 말해서 제가 보기에 北韓 스스로가 開放을 안하고 體制改革을 안한다고 하면서도 하고 있는 유엔同時加入, 日本하고의 修交, 經濟特區 設定을 하다가 보면 스스로 지금과 같은 體制의 維持能力은 감퇴하고 말 것이 아닌가, 물론 北韓體制의 붕괴가 곧 統一을 가져 오는 것이냐 하는 것은 물론 아니라고 보여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北韓體制가 金日成이 망하고 金正日이 등장하고, 金正日이 망하면 또 金正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등장해서 北韓體制는 수정된 상태에서 金正日이 보다는 修正된 狀態에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統一이라는 말과 北韓에 새로 들어서는 金日成이든 金正日이든 아닌 政治體制와 統一의 문제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統一의 函數關係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좀더 상상력을 발휘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이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南北關係라는 것도 역시 대단히 政治的인 力動關係입니다.

아까 차영구 博士는 우리가 統一至上主義, 統一에 대한 強迫觀念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때로는 대단히 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統一至上主義, 統一에 대한 強迫觀念이라는 것이 때로는 統一을 촉진시키는 커다란 충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統一에 대한 強迫觀念이 南北間에 팽배되어 있다 할 것 같으면 金日成體制나 金正日 體制가 붕괴되는 경우에 統一로 이어져 갈 수 있는 하나의 충격적인, 大衆 혹은 群衆心理的으로 이 衝擊이 폭발된다면 金正日이 잇는 새로운 體制가 안정되기 전에 南北統一로 이루어질 수 있는 契機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역시 南北韓統一에, 어떻게 보면 非理性的인 群衆心理라고 할까, 集團心理가 統一로 어떤 사태를, 담을 뛰어 넘게 하는 충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반드시 해로운 것만은 아니더라는 見解를 예를 들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南北關係의 管理와 目的, 北韓政權을 붕괴시키는 것이 좋으나 아니냐, 北韓政權을 安定시켜 나가는 것이 좋으나 이것은 저는 結論부터 말씀드리자면 北韓體制를 하루빨리 붕괴시켜 나가는 것이 옳다는 見解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平和體制 定着措置의 하나로서 CSCA를 통해서 南北關係의 管理에 있어서 北韓의

體制을 붕괴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옳으나, 北韓體制를 安定시켜 나가서 그야말로 平和統一의 과정을 밟는 것이 옳으나, 이 문제는 좀더 얘기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조속한 崩壞가 옳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흔히 北韓 政治體制 安定化를 進行시켜 나간다 하는 것은 그 安定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령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北韓이 經濟 特區를 만든다. 그런데 日本하고 修交를 그 特區를 중심으로 해서 日本돈을 가지고 北韓이 經濟開發을 해나가고 中國의 모델에 따라서 北韓經濟를 開放해 간다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독안에 든 쥐가 독을 깨고 도망갈 수 있는 길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태가 과연 바람직하느냐, 그렇지 않고 金日成體制的 崩壞와 더불어, 정리를 하면 金日成政權이 붕괴됐다 하는 경우에 北韓體制를 우리가 접수하는 方法이 무엇이냐, 名分이 무엇이냐, 말하자면 北韓에서 政權이 무너지는 경우에 北韓에 들어오는 政權이, 그 새로 들어오는 政府가 南朝鮮하고 합치겠다, 지금 西獨의 경우에는 東獨이 붕괴되고 統一되는 方法이 西獨憲法에 규정되어 있는 既存 西獨聯邦에 편입하는 형식으로 東獨이 西獨에 합병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흥구長官께서 있을때 만든 統一方案 속에 그러한 과정이 들어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動的으로는 國境을 넘어오는 西獨에 대한 憧憬, 西獨으로 뛰어 넘어오는 그 感情, 熱情, 強迫觀念이 것이 動的인 것이라면 制度는 西獨憲法에 정해져 있는 그 制度와 節次에 따라서 統合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의 경우에도 南北韓의 統一에 있어서 그 두가지를 並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統一方案이 그렇게 構想이 되어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점을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北韓體制가 이대로 持續되도록 놔두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적어도 開發獨裁 형식으로 北韓이 日本돈을 가지고 싼 勞賃을 가지고 中國式으로 經濟開發을 해 나가는 경우에 10년이 걸린다, 그런 상태라는 것은 지금 北韓 住民들로 하여금 역시 金日成體制下에 착취를 당하고 있도록 우리가 방치한다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民族的인 良心에서 옳은 길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司 會 충분한 答辯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發表者께서 아주 重大한 문제를 하나 提起해주시는 바람에 플로어에서 활발한 討論이 일어날 素材를 마련해 주신 셈입니다.

고멘타리제 레벨이라는 사람은, 흔히 評論을 쓰는 右翼論客인데 이 사람의 얘기를 보면 그저 共產主義가 근본적으로 西方的 理念에서 볼때 사악한 것이라면, 소위 反人間的이고 사악한 體制라고 한다면, 共產主義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왜 그것을 자주 救出해 줘야 된다고 들까붙어가지고 오히려 사악한 體制를 연명시켜 주느냐, 아예 망하도록 放置하거나 助長하는 방법이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要旨의 論理를 전개하고 있는데 지금 朴教授께서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얘기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社會에서는 현재 北韓의 安定된 改革을 도와 주어야 된다 하는 알핏 보기에 상당히 進歩的인 論議가 상당히 다수의 論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플로어에서 활발한 質問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北韓의 變化를 어떤 것을 가지고 變化라고 부르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發表者께서 명확히 規定은 안하셨습니다마는, 가령 北韓이 南北韓 유엔同時加入에 同意하는 것도 南韓이 단독으로 가입해서 오는 否定的인 影響을 막기 위해서 加入했다고 얘기를 한 그것은 變化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그점에서 다릅니다. 현재 北韓이 自發的으로 이니시에이트(initiate) 하는 시점에서 自發的으로 能動的으로 시작하는 變化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北韓의 變化라는 것은 불가항력으로 받아들이는 變化입니다. 소위 外部의 變化에서 오는 壓力을 버티지 못해서 불가항력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變化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北韓이 말로야 어떻게 했던간에, 가령 유엔同時加入에 同意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朝鮮」 論理를 포기하는 결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中國의 설득에 의해서, 蘇聯의 설득에 의해서 불가항력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重要的 變化로 우리가 간주해야 될 理由가 있지 않는가.

마치 社會主義 體制의 기본적 결함에 대한 北韓 指導層이 자발적 認識위에서 變化를, 改革을

주도 하는 것만 가지고 變化라고 한다면 北韓에는 당분간 變化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외부의 環境造成에서 오는 變化와 壓力을 버티지를 못해서 불가항력으로 受容하는 정도의 變化라도 우리가 현시점에서 北韓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상당히 重大한 變化라고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런 疑問이 제기됐는데,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플로어에서 한두분 質問하실 분이 있으시면 質問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問題와 관련해서 討論者들께서... 康仁德 두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改革과 開放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中國의 文獻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開放은 改革의 한 구성부분입니다.』 명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개방은 改革의 한 구성부분이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改革이 있어야 開放이 실질적으로 오는 것이죠. 아까 對外開放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는 다시 말해서 전체 經濟體制의 全般的인 改革은 中國式으로 해서 開放으로 誘導할 수 있는, 開放을 現實化 하는 그런 措置段階로서 저는 對外開放에 필요한 몇가지 법,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느냐, 合營法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대체로 中國에서 4백 몇십개 만드니까 對外開放에 필요한 合作會社를 단순히 物物交換 가지고는 이것은 開放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西方國家와의 經濟的인 協力·合作會社를 설립하고 그 지역에서 資本主義 國家들이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段階로 나가는 그런 조치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관심거리로 봐야 될 問題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번째, 차영구博士가 얘기한 북쪽의 本質的 變化, 그 變化는 뭐냐 이 문제는 蘇聯共產黨, 東유럽共產黨 그리고 中國共產黨 문헌에 보면 명백히 나와있습니다. 本質的 變化는 막스레닌주의적 각도의 側面에서 基本的인 테제를 바꾼 것이죠. 그 핵심적인 것은 역시 階級鬭爭 論理입니다. 階級鬭爭 論理를 中國共產黨의 경우는 階級協調로 바꾸어 버렸죠. 이래야 多元主義가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유엔가입을 變化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만약 階級鬭爭 論理를 拋棄하지 않는다면 유엔加入+平和共存인데, 平和共存은

후루시초프시대의 平和共存 論理로 귀착되고 말겠죠. 階級鬭爭의 다른 형태, 對外關係에서 平和共存은 얼마든지 戰術的으로 응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本質的 變化라고 할 때는 궁극적으로는 多元主義的 立場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북쪽에서 최근의 論文을 보면 哲學的인 部分에서 제일 신랄하게 問題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多元主義죠. 多元主義的=多黨制니까. 그래서 一黨獨裁 포기하는 것이니까 階級鬭爭 論理를 어느정도 수정하고 中國式으로 協調, 階級間的 鬭爭의 시대가 아니라 協調의 시대 다라는 것이 發表가 된다면 이것은 本質的 變化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金憲教授도 얘기한대로 그것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면 一黨 獨裁가 무너지고, 一黨獨裁가 무너지면 과연 世襲體制가 무너지는데 그쪽으로 자발적으로 갈 수 있을까. 따라서 당분간은 戰術的인 階級鬭爭 論理에 근거한 규정에 근거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南北間의 關係에서 언제나 이 문제가 앞장서겠죠. 汎民族大會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난 8월1일자 金日成의 論文이 대단히 중요한 논문아닙니까. 분명히 統一問題를 바꿨죠. 명확한 階級鬭爭論理에서 統一을 資本主義와 社會主義, 革命과 反革命 사이의 날카로운 階級鬭爭이라고 규정했었는데, 이번에 金日成의 論文에 명백히 나와 있지만 작년 10 월달에 윤기복의 論文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죠.

거기에 보면 統一은 두가지로 自主의 問題, 民族自主를 실현하는 문제, 두번째는 民族團結을 기하는 문제=나는 民族主義者가 되는 것이죠. 이런 階級鬭爭 論理를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論理가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저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金日成이 民族主義를 내놓고 나는 共產主義的 民族主義者 그리고 國際主義者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民族主義는 平和共存의, 계급투쟁의 한 형태로서의 平和共存의 의미로 밖에 해석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앞으로 對南戰略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대단히 어려운 중요한 시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북쪽에서는 金日成이 전례없이 民族主義를 표면에 내세울 것입니다. 民族主義的 觀點에서 金九 先生을 이용하고, 최덕신將軍을 이용했고, 문익환씨를 이용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몰려 올때 會談場안에서나 會談場 밖에서나 우리가 공격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論理가 개발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朴教授께서 맨 마지막에 弘報의 問題를 얘기했는데 南北對話는 두개의 戰術을 언제나 펴는, 다시말하면 會談場에서는 會談場으로서의 戰略을 구사해야 될 것이고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會談場 밖에서의 북쪽과의 對應戰略 등 언제나 두 戰術을 펴는 작전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더욱 이 問題가 중심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相禹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문제 중에서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討議에서 南北韓 關係와 東西獨 關係를 여러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와 그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 認定하고 있습니다.

우선 北韓이 東獨이 아니고 우리가 西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東西獨關係에 있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民族分裂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戰爭을 치렀습니다마는 東西獨은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進展하는 속도에 있어서 우리가 20년 늦고 있습니다. 1970년 에르푸르트 會談이 있었고, 소위 總理會談이 있었고, 72년에 基本條約이 체결됐는데 우리가 90년 總理會談을 시작했고 같하면 내년쯤에 혹은 92년쯤 가서 南北韓에서는 基本條約이 締結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20년 늦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하고 있는 北韓體制의 改革可能性과 北韓과 우리 大韓民國과의 關係의 설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北韓體制가 현재의 體制를 만들고 維持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東獨에서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의 경우는 理念體系를 떠나서도 현재에 집권하고 있는 支配層이 그대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損害나 讓步 정도로 그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살 수 있는 唯一의 방법은 계속 支配權을 장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生存을 위한 戰略이라고 하는 것이 北韓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政策의 基調가 되어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金憲先生께서 말씀하신 외부의 變化에서 오는 壓力이라든가 影響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政策을 바꿔야 된다면 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그 限界나 目標은 어디까지나

北韓 支配體制가 그대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北韓體制의 變化 可能性에 대해서는 흔히 金·金體制 이후를 논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가게 되면 두 金·金體制는 끝나고 그다음 體制가 나올텐데 그 다음 體制의 성격이 과연 開發獨裁型의 그런 型이나, 혹은 中國式 改革을 하는 그런 體制가 될 것이냐, 그러한 어떤 體制로 가든지 간에 北韓體制는 당분간은 적어도 집권한 세력은 그 자리에서 자기네가 물러날 수 있는 改革은 못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東西獨의 경우에 이번에 제가 東獨 사람들을 만나 보았습니다마는 결론은 한가지입니다. 東獨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東獨 支配層이 統一이 되어도 소위 吸收統一을 당하고도 죽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東獨의 상당히 중요한 분을 만나 봤는데 그래요. “마지막 결국 吸收당할 때 자기네가 생각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일을 못하지만 年金을 받을 것 아니냐, 西獨基準에 따라서 그 西獨에서 오는 пен션의 1/3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버는 정도다. 그러니까 活動을 못하지만 먹고는 산다.” 그러니까 讓步한 것이예요. 쉽게 말하면 東獨에서는 人民革命이 일어나서 體制가 붕괴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총포로 鎮壓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을 하지 않고도 살아 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北韓의 경우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中國도 현재는 이제 體制改革의 필요성을 철저히 느끼고 있습니다. 經濟改革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本人이 알고 있으면서도 더 못가는 이유는 여기 中國에서도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東獨처럼 쉽게는 자기의 政治改革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結論을 내리면 北韓體制가 실사 최악의 경우 막스레닌주의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 한발 더 나아가서 우리와 비슷한 體制를 택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와 吸收統一하고, 協議해서 統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아까 여기서 車先生께서 마지막에 질문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 견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西獨教授께서 저희들한테 권한 것인데 뭐냐하면 “北韓體制와 너희들이

統一하려고 그러면 어떤 형태든지 支配體制에게 생명의 保障과 최소한의 살아 나갈 수 있는 것을 保障해 준다는 것을 確信시키기 전에는 統一 自體는 어렵다는 것을 알아 뒤라”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얘기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들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北韓을 다 뒤나가는데 있어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司 會 감사합니다.

좋은 司會는 司會者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마지막 討論 부분에서 結論을 誘導하는 司會가 좋은 司會라고 알기 때문에 이미 結論은 다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II. 主題發表論文(全文)

南北對話 20年の 評價와 그 展望

— 向後 3年の 情勢와 戰略을 중심으로 —

具 宗 書 (中央日報 論說委員)

< 目 次 >

1. 序 論
2. 南北對話 20年の 評價
3. 對話의 環境과 그 變化의 展望
4. 北韓의 對話態度와 우리의 戰略
5. 結 論

1. 序論：우리 사회의 세가지 視角

시대적 변화의 過渡期인 지금 분단민족인 우리의 重要課題의 하나는 南北統一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統一問題·北韓政策을 놓고 세 갈래의 흐름이 교차되고 있다. 維新과 5共 당시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保守派와 統一을 최우선의 지상과제로 생각하는 急進派, 그리고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합리성을 지켜야 한다는 穩健派가 그것이다.

保守派는 주변정세가 아직도 과거의 냉전시대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北韓도 그때의 그 체제가 당시의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통일정책이나 북한정책을 설블리 바뀌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北韓이 자유화·개방화되고 대남혁명전략노선을 포기하여 韓國과의 共存을 명백히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의 極右派

세력이 여기에 속한다. 그들은 統一의 主體는 정부이며 北韓政策은 정부에 의해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急進派를 共產主義者로 보고 穩健派의 統一努力도 위협시하여 이를 견제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의 통일노력을 모두 「환상적 통일지상주의」로 간주하려 한다.

急進派는 북한과 전면적인 교류·협상을 벌여 統一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統一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집권세력이 既得權 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고의적으로 統一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재야와 운동권 등 韓國社會의 左派勢力이 이에 속한다. 그들은 統一의 主體는 민중이며 統一政策이나 北韓政策은 민중이 행동주체가 되어 민중 자신에 의해 주도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지금의 정권과 保守派를 反統一勢力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統一運動에 대한 그들의 간섭이나 통제도 거부한다. 穩健派에 대해서는 개량주의·기회주의로 간주, 統一의 主體가 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통일세력은 急進派뿐이며 그들이 진실로 민중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穩健派는 과거의 정책을 수정하여 北韓과의 接觸과 交流를 적극 추진해서 우선 南北이 共存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統一에 대한 보수파의 「시기상조론」에 반대하면서 급진파의 「통일지상주의」도 거부하고 있다. 그들은 統一政策이나 北韓政策은 변화하는 남북한 사정이나 주변정세에 보조를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進步的인 知識人들이 여기에 속한다. 행정부 가운데 「7.7宣言」, 「7.20宣言」을 만들어 낸 정책 담당자들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穩健派는 「7·7宣言」이나 「7·20宣言」을 액면 그대로 지지하고 있다. 穩健派는 정부가 北韓政策·統一問題를 주관하되 그 집행은 민간부분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保守派를 「통일공포증환자」, 急進派를 「모험적 통일지상주의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保守派보다는 急進派에 더 가까운 사고와 행동을 하고 있다.

이상은 문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단순화한 아이디어 타입(ideal type), 즉 基本型이다. 따라서 이 3개 類型들 사이의 중간적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急進派는 최근 상당히 변하여 穩健派에 크게 접근돼 있고 절차문제에 관해 政府와의 타협도 시도하고 있다.

統一은 변화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요구한다. 思考의 변화, 政策의 변화, 行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保守派의 사고는 統一에 적합치 않다. 또 統一은 중대한 문제다. 거기엔 民族의 운명과 國家의 장래가 걸려 있고 중대한 위험도 수반되고 있다. 따라서 統一을 무리하게 서둘러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急進派의 사고도 적합치 않다. 지금으로서는 穩健派의 노선이 가장 많은 타당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한계는 있다. 지금의 온건파 주장이 한층 과감하고 적극성을 떨 때 가장 바람직한 方式이 되리라고 믿는다.

2. 南北對話 20년의 評價

가. 分斷國家 接近努力의 세 類型

分斷國家들이 상호간의 관계개선과 평화적인 再統合을 위해 전개한 노력은 對話와 交流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의 전개양상은 각 分斷國家들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1) 獨逸型：先對話 後交流

獨逸의 경우는 1969년 西獨에 브란트의 社會民主黨 연립정권이 등장하면서 대화가 시작됐다. 브란트 政府는 그해 10월 발족되자마자 ① 소련·동구 등 공산국가들에 대한 武力不行使를 선언하고 ② 오데르·나이제線を 둘러싼 國境問題에 대해 폴란드와 협상을 개시하며 ③ 東·西獨의 2개 국가의 존재를 승인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東方政策을 내걸었다. 이것은 東西獨의 분단관계와 東西의 냉전체제에서의 西獨의 화해정책 선언이다.

브란트의 東方政策은 공산국가들과의 화해를 기초로 하여 戰後 유럽의 현상을 승인하는 토대 위에서 바르샤바조약 국가들과의 相互不可侵條約을 체결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이런 정책의 연장선 위에서 1970년 3월 東獨의 에르푸르트에서 분단 이후 최초의 東西獨 首相會談이 열렸다.

이후 兩獨간의 대화는 더욱 진전되어 72년 12월에 양측의 관계정상화에 관한 基本條約이 체결되어 이듬해 6월에 정식 發效되었다. 그후 양측 정부간의 실무교섭이 호전되어 人的·物的 交流, 통신·방송 교류까지 이뤄졌다. 그 결과 西獨 기업의 東獨投資와 친척의 상호방문도 실현됐다.

이처럼 獨逸이 통일되기까지는 西獨에 의한 일방적인 開放政策 선언, 兩獨和解를 위한 周邊國 外交 확대, 東西獨 頂上會談, 兩側 政府의 실무회담을 거쳐 兩獨間의 교류가 이뤄졌다. 이것은 곧 先對話 後交流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사정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예멘方式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中國型：先交流 後對話

中國의 경우는 獨逸型과는 반대다. 北京이나 臺北은 대화나 교류에 대해서는 냉담했다. 어쩌다 北京政府가 유연한 자세를 보인 적이 있지만 실효성이나 진지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臺北의 반응도 냉담하거나 부정적이었다.

臺灣政府의 경우 三不政策을 大陸政策의 기본으로 내걸어 공산당과는 담판하지 않고(不談判), 접촉하지 않고(不接觸), 타협하지 않는다(不妥協)는 노선을 지켜 왔다. 그 결과 양측 정부 사이에는 공식적인 對話나 接觸이 일체 없었다. 대만정부는 以不變 應萬變(변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변화에 대처한다)을 대륙정책의 모토로 삼아 왔다.

이러한 대만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 그대로다. 이런 명백히 선언된 大陸政策은 공식적으로 수정된 바 없고 지금도 그러한 政策에 변함이 없다고 수시로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의 실제 정책은 공식선언과 크게 다르다. 「三民主義에 의한 大陸收復」만을 외쳐 온 반공국가 臺灣이 87년부터 국민들에게 本土 訪問을 공식허용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대만정부는 국민들의 本土訪問과 物資交易를 묵인해 왔다. 따라서 87년의 조치는 이미 실현되고 있는 본토와의 人的·物的 交流를 공식화한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中國은 경직된 原則을 표면에 제시해 놓고는 이면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허용해 왔다.

따라서 공식적인 接觸이나 對話없이 交流가 먼저 시작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中國方式은 獨逸方式과는 정반대인 先交流 後對話라고 볼 수 있다.

(3) 韓國型：對話와 交流의 並行

韓國方式은 獨逸型和 中國型の 절충형에 가깝다. 南北韓 사이에서는 일찍부터 對話가 있었다. 그러나 합의를 거쳐 基本協定이 체결되거나 이 협정에 근거한 남북관계의 制度化나 交流의 實現은 이뤄진 것이 별로 없다. 「7·4共同聲明」이 합의를 거쳐 발표된 바 있지만 그 효력은 정지상태에 있다. 합의를 거쳐 쌍방 각기 150명 규모의 고향방문·예술공연이 있었고 축구경기의 교환실시, 공연단의 합동공연, 탁구의 단일팀 출전이 이루어졌지만 지속화 되지는 않고 있다.

이처럼 韓國은 공식대화를 시작했지만 基本的 合意나 持續的인 交流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部分的 合意와 一時的 交流는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南北韓의 접근방식은 獨逸型도, 中國型도 아닌 제3의 方式이 되어가고 있다. 그것은 對話와 交流의 병행이 될 것이다.

나. 3段階의 南北對話

지금까지 南北韓 사이에는 세차례의 공식 대화가 이루어져 왔다.

첫번째의 대화는 1970년 초반의 第3共和國 시기다. 우리측 大韓赤十字社의 제의에 따라 離散家族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작된 南北赤十字會談과 양측 統治權者의 의사 교환을 위한 南北調節委員會 會議가 이 시기의 주요 對話形態였다.

두번째의 南北對話는 80년대 중반 第5共和國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때의 대화형태는 赤十字會談의 계속과 더불어 國會會談·經濟會談·體育會談으로 확대됐다.

세번째 회담은 지금의 90년대초의 第6共和國 시기에 이루어졌다. 지금의 對話形態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는 이름의 總理會談이 주종을 이루고 부차적으로 체육·연예 분야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南北對話가 성과있게 추진되려면 두가지 조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 하나는 「周邊環境의

성숙」이다. 이것은 쌍방이 對話의 필요성을 느낄 뿐 아니라 對話를 방해하는 세력이 없을 때를 말한다. 다른 하나의 조건은 지도자의 「對話意志」다. 이것은 쌍방 통치권자가 南北間의 현안 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 두가지 조건이 이루어지면 南北對話는 合意를 도출하고 交流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南北對話는 이 두가지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기되고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여기서 「소기의 목적」이란 合意의 도출과 交流의 실현이다. 이 「합의」와 「교류」는 對話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일단 合意가 이루어져 交流가 실현되면 우리의 對北政策 목표인 北韓의 변화, 즉 北의 開放化·民主化·多元化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統一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 第1期 南北對話(1970년대)

對話가 이루어질 環境은 성립돼 있었다. 1969년 1월 美國에서 정권이 교체되어 共和黨의 닉슨 行政府가 들어서면서 세계정세는 급진적으로 호전되고 있었다. 먼저 美國政府는 그해 7월의 「괘 독트린」을 발표하여 아시아問題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듬해 2월에는 괘 독트린의 정신을 세계적으로 확대시킨 「닉슨 독트린」이 발표됐다. 이런 새로운 닉슨의 世界政策에 따라 越南戰爭을 종식시키기 위한 平和交渉이 시작되고 中國과 美國·日本 사이에는 外交關係 개선이 급진전됐다. 이런 전반적인 화해분위기 속에서 세계는 美·蘇 兩極化로부터 中國·日本·EC가 추가되는 5極 多元化 時代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한편 韓半島에서는 駐韓美軍의 부분철수가 논의되기 시작하여 1개사단의 감축이 이뤄졌다. 美國이 월남과 한국에서 군사적 후퇴를 하게 되자 北韓의 도발위험은 중대될 것으로 판단됐다. 北韓으로서도 1968년의 1·21청와대 기습,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가 모두 실패하자 새로운 革命戰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武力使用 대신 對話를 통한 平和戰略의 고려로 나타났다.

이처럼 内外環境은 南北對話에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었으나 南과 北의 지도자들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意志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美國의 후퇴를 보면서 주변정세가 北韓에 유리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고 판단한 金日成은 대등한 입장에서 南北對話를 통해 흥정하고 협상할 생각이 없었다. 이것은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 北이 南을 향해 군사용 땅굴을 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입증된다.

한편 南韓에서는 71년의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朴正熙대통령이 大統領 間接選舉制를 골자로 하는 憲法改正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한 朴正熙대통령에게 南北對話는 이같은 장기집권장치를 만들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처럼 南北 統治權者의 대화의지 부족 속에서 시작된 南北對話가 만족할만한 성과를 올리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실제로 赤十字會談은 많은 난관속에 지지부진했고 調節委員會 會議도 명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25회의 板門店 豫備會談을 계속하면서 진행된 赤十字會談에서는 의제 5개항에 합의가 이뤄져 72년 8월부터 本會談이 시작됐다. 서울과 평양을 번갈아 왕복하며 7회나 개최된 本會談에서는 많은 토의가 있었지만 공식적인 합의문서는 도출하지 못했다.

南北調節委員會도 예비접촉 과정에서 「7·4共同声明」이라는 역사적인 문서를 만들어 냈으면서도 실제의 회의 과정에서는 생산적인 결과를 창출하지 못했다. 3회의 共同委員長 회의와 3회의 本會議를 열면서 계속된 調節委員會는 정치·군사·경제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있었지만 文書化된 합의는 없었다.

第1期 南北對話는 合意를 창출하거나 交流를 실현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對話는 無益하고 無意味한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제1기 대화는 공식적인 成果는 없었다해도 부차적인 成果와 意味는 막대했다.

赤十字會談은 南北사이의 公式對話의 효시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이 회담은 南北對話에 관한 方式·體制·慣例를 형성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문제에 관한 論點을 명백히 부각시키고 南과 北의 異見을 드러내 줌으로써 차후의 접근을 위한 기초작업이 됐다.

統治權者의 간접대화 내지 대리회담이라 할 수 있는 調節委 會議는 남과 북 사이에 놓여있는 중요 懸案問題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雙方의 입장과 이해관계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보

여주었다는 점에서 역시 앞으로의 南北問題 해결의 기초작업이 됐다.

70년대의 제1기 南北對話는 南北會談의 효시로서 남북관계의 기본문서가 되는 「7·4共同聲明」의 채택 발표, 直通電話의 개설을 통한 연락채널의 설정, 회담기간의 人的 交流와 그것을 통한 상호 이해 등이 중요 성과로 꼽힐 수 있다. 이것은 비록 副次的인 성과이지만 南北關係를 관리 및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예비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1기 南北對話는 비록 실패했다 해도 그 성과는 肯定的이라 할 수 있다.

(2) 第2期 南北對話(1980년대)

對話의 환경도, 지도자의 의지도 미숙했던 시기에 열린 것이 제2기 南北對話였다.

세계적으로는 1979년말의 아프카니스탄事態로 미·소관계가 냉각되어 제2차 冷戰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결과 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84년의 LA올림픽이 반쪽 大會로 끝났다.

南韓에서는 朴 大統領시해사건(79.10.26)에 이어 12·12軍變, 이듬해의 光州事態 등으로 국도의 혼미상태를 겪고 있었다. 밖으로부터는 소련 군용기의 KAL機격추(83.9.1), 北韓의 아웅산폭파(83.10.9)가 있어 南韓의 사회적 시련은 컸다.

이 일련의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南의 지도자 全斗煥 대통령은 12·12사건과 光州事態로, 北의 지도자 金日成 주석은 아웅산폭파 사건으로 각자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南北의 지도자들은 정치적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南北對話의 필요성을 느꼈을지 모른다.

제2기 南北對話는 北側의 수재물자 제공제외와 南側의 접수 수락으로 분위기가 익어 결국 赤十字會談 3회, 經濟會談 5회, 國會會談 예비접촉 2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LA올림픽에 南北韓 단일팀을 출전시키기 위한 體育會談도 3회가 열렸다.

대화를 위한 周邊情勢나 지도자의 意志가 모두 성숙치 못한 상태에서 시작된 제2기 對話도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이 80년대의 對話도 명백한 合意의 도출이나 제도화된 지속적인 交流의 실현을 보지 못한 채 故鄉訪問團 교환이 한번 있었을 뿐이다.

板門店에서 세차례 열린 體育會談은 우리측이 버마사건에 대한 北側의 시인·사과를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처음부터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결국 이 회담은 아무런 실질적 합의를 못본 채 蘇聯의 LA올림픽 불참 방침이 구체화되면서 유산되고 말았다.

역시 板門店에서 5차례 열린 經濟會談은 정부차원의 실무회담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기대를 걸게 했었다. 실제로 南北間에는 상호 교환 가능한 물품에 대해 폭넓은 의견 일치가 있었다. 그러나 결국은 아무런 合意文書나 物資交流를 못본 채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經濟會談은 최초의 官吏級會談이라는 점에서 역시 각별한 의미가 있고 교역품목, 자연자원 공동개발, 공동어로구역 설정, 경의선 連結, 경제협력위원회 設置 등에 의견일치를 봄으로써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경제분야에서 南北關係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했다.

國會會談도 두차례의 豫備會談에서 대표단 규모, 회담 장소와 일시, 왕래절차 등에는 의견 일치를 보았으나 本會談의 의제와 회담형식에서 의견이 엇갈려 역시 결렬됐다. 그러나 國會會談은 北이 주장하는 政治會談의 실상에 대한 탐색이 되었고 국민대표기관인 立法府의 접촉이었다는 점에서 색다른 의미가 있다.

赤十字會談은 서울과 평양에서 세차례 열려 여러가지 문제에서 의견이 일치됐다. 70년대의 會談을 속개하는 형식으로 열린 이 會談에서는 離散家族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合意가 이루어졌으나 정식문서로 채택하지 못해 역시 可視的 結果는 산출되지 못했다.

그러나 赤十字 부문에서는 고향방문단 50명, 예술공연단 50명, 보도진 30명, 지원인원 20명, 인솔자 1명 등 151명으로 구성된 교류단을 相互交換하는데 성공했다. 이것은 분단 이후 최초의 民間次元의 交流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록 1회의 행사로 끝나기는 했지만 그런 규모의 민간집단을 상호 교류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創始性의 의미로서는 물론, 앞으로의 交流의 모델과 관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것은 南北이 一時的·斷續的으로나마 合意를 이루고 그것을 實現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이벤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식 합의가 어렵고 지속적인 교류나 制度化가 어려운 경우라도 실험적·시범적으로 南北交流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처럼 80년대 南北對話도 명시적인 合意나 지속적인 交流의 제도화를 이룩하지 못한 채 끝나 역시 失敗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제2기 대화도 제1기 대화처럼 공식적인 성과는 없었다 해도 부차적인 성과는 컸다.

80년대의 南北對話는 대화의 폭과 주체를 경제분야, 정부관리급, 국회부문으로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한층 진전된 성과를 보였다. 제1기 對話와 마찬가지로 회담 자체가 南과 北을 만나게 하고 부분적인 交流를 불가피하게 수반한다는 점에서 南北關係 발전을 축적시키는데 기여했다.

(3) 第3期 南北對話(1990년대)

90년대의 南北對話는 주변환경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유리하게 성숙돼 있을 뿐만 아니라 南北 指導者들의 對話意志도 과거 어느 때보다 강화됐다.

우리 社會와 5共 말기의 격심한 정치·사회적 혼란을 거쳐 88년 2월 새 政府가 발족되기 전후 내외정세도 급변하고 있었다.

開放과 改革을 표방한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미·소 데탕트가 급진되어 군축이 성사되는 등 冷戰體制도 구조적으로 와해되기 시작했다. 中·蘇關係도 크게 호전되어 고르바초프의 北京訪問(89.5.15)이 이루어졌다.

東歐 공산권에서는 脫共·非共 운동이 일어나 공산독재가 폐기되고 多黨制政治가 이루어져 民主化·開放化가 급진전됐다. 獨逸에서는 東獨政權의 붕괴와 함께 西獨中心의 통일이 이뤄졌다.

韓國에서는 盧泰愚대통령의 개방적·적극적인 北方外交·北韓政策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88 올림픽의 성공으로 우리에게 유리해진 국제환경을 이용하여 정부는 北方外交를 과감히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산국가와 수교가 이뤄지고 있었다. 정부는 「7·7특별선언」을 발표하여 北韓政策에도 개방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런 内外與件 속에서 北韓은 대화의 필요성을 느꼈다. 밖에서 밀려오는 重壓感을 완화하면서 안에서 일지 모르는 아래로부터의 壓力을 피하기 위해서도 南과의 대화는 필요했는지 모른다. 더구나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KAL機폭파사건(87년 11월)이 있었고 南韓에서 정부가

교체되어 對北 積極性을 보여주는 등 변화된 환경이 北韓을 대화의 場으로 나오게 한 요인이었다.

南北 지도자의 의지도 강했다. 盧泰愚 大統領은 共產圈 政策, 즉 북방외교와 남북관계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北韓體制 維持의 궁극적 책임을 지고 있는 金日成으로서도 임박해오는 權力承繼의 안전과 經濟難 타개, 人民的 불만의 해소, 外部世界의 압력 회피를 위해서도 南北對話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뿐 아니라 南北사이의 합의와 그 실천이 北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여기서 金日成의 대화의지가 과거보다 한층 현실적으로 강화됐다고 판단된다.

대화를 위한 周邊環境과 남북 지도자의 對話意志가 강화됐다는 것은 90년대의 南北對話에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이번 제3기 대화에서는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겠지만 여러 분야에서 正式合意가 이뤄지고 그 중 일부는 制度化되어 南北間의 交流가 제한적으로나마 지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90년대의 대화를 위한 남북간의 豫備接觸은 80년대 말부터 시작됐다. 이 접촉은 관문점에서의 國會會談準備接觸 10회, 高位級會談豫備接觸 10회(예비회담 8회, 실무대표접촉 2회), 赤十字會談實務代表接觸 8회를 거쳐 그중 高位級 豫備會談은 本會談으로 이어졌으며, 體育會談은 本會談 9회, 實務代表接觸 6회가 진행되었다.

體育會談은 1990년의 北京아시안게임의 단일대표 참가를 위한 것이었다. 89년 3월부터 접촉을 시작하여 9회의 本會談을 열었으나 끝내 단일팀 출전은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이 회담에서 團旗·團歌·團의 명칭 등에 의견일치를 본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이 결정은 그후의 단일팀 출전때 효력을 발생했다.

高位級會談은 서울과 평양에서 세차례 열렸다. 아직 합의된 문서는 없지만 내용면에서 의견이 일치된 부분이 많고 兩側이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회담기간 중 국무총리와 군부대표, 각 분야의 고위관리로 구성된 代表團이 상대측 國家元首를 면담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것도 특기할 일이다. 회담 성격상 분단에 따른 모든 중요

현안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南北對話의 最高位의 기본적 회담기구가 된다.

특히 獨逸의 경우 首相會談이 東西獨 基本協定을 만들어 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兩獨의 평화적 교류가 본격화 되어 결국은 獨逸式 統一을 가져왔다는 사실과 연결시켜 볼 때 南北高位級會談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獨逸은 분단 15년만에 首相會談이 이루어지고 2년 9개월만에 基本協定, 20년 후(기본협정 이후 17년)에 統一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경우 분단 45년만에 雙方總理를 首席代表로 하는 高位級會談이 이루어져 이제 1년을 맞고 있다.

제3기 南北對話期間 중에는 축구교환경기, 탁구와 축구의 단일팀 출전, 합동교환공연 등이 이루어져 非政治的 民間部門에서는 대화없는 交流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남북간에 直交易이 이루어지고 北이 淸津經濟特區에 우리의 참여를 희망함으로써 실질적인 交流의 實現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90년대의 제3기 대화기간 중의 南北關係에서는 獨逸型和 中國型 방식이 함께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성과는 中國型 接近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이 특징이다.

지금까지의 3단계에 걸친 南北對話를 종합해 볼 때 비록 公式的인 合意文書나 거기에 기초한 제도적·지속적 交流를 이루어내지는 못했으나 많은 歷史的 意味와 肯定的 成果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南北對話는 武力方式으로 시작된 統一努力을 平和的인 方式으로 전환시켰고 獨逸型 접근방식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성과를 올리지 못해 지금은 中國型 접근방식을 병행하여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제 南北對話는 對話環境이 성숙되고 對話意志도 강화되어 더 많은 成果가 기대된다고 하겠다.

3. 對話의 環境과 그 變化의 展望(向後 3년)

가. 周邊情勢의 일반적 성격

1985년의 고르바초프 登場은 世界歷史의 흐름을 바꿔 놓았다. 페레스트로이카로 상징화된

그의 變革路線은 냉전구조의 붕괴와 동서화해, 공산체제의 개방화·민주화·다원화, 민족단위의 새로운 국가형성운동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 지금의 世界情勢 흐름은 바로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해 규정됐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다...

앞으로의 世界情勢도 지금의 흐름에 따라 그 연장선 위에서 발전돼 나갈 것이다. 이 特徵은 다음 몇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세계적 데탕트의 發展과 戰爭可能性의 회박화다. 이제는 과거에 생각하던 세계적 규모의 큰 戰爭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될 수 없게 됐다. 군사적인 힘의 中心體인 미국·소련·중국 사이에 戰爭이 일어날 가능성은 추호도 발전되거나 豫見되지 않는다.

이같은 세계적인 화해분위기의 발전이 世界大戰의 가능성은 줄여놓지만 地域戰爭의 가능성은 높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런 견해의 바탕 위에서 韓半島에서 무력충돌의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는 安保主義者들의 주장이 나와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 세계 4강의 이익이 교차되는 韓半島에서의 전쟁가능성은 世界的인 전쟁가능성과 비례한다고 보아야 한다. 世界大戰의 위험이 높을 때는 韓半島에서도 전쟁위험이 높아지지만 世界戰爭의 위험성이 적어지면 이 지역에서의 紛爭 가능성도 적어진다.

더구나 걸프전쟁은 지역전쟁의 위험성을 한층 낮추어 놓았다. 中東과 같이 세계 強大國의 利害關係가 걸려 있는 지역에서의 소규모 전쟁은 결코 地域紛爭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걸프전쟁이 보여 주었다. 더욱이 유엔會員國의 안전은 유엔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번 걸프전쟁에서 보여 주었다. 쿠웨이트가 유엔會員國이 아니었다면 걸프전의 양상은 바뀌었을지 모른다. 이제 南韓과 北韓이 동시에 UN에 가입된다. 이것이 남북간의 무력충돌 위험을 그만큼 줄인다고 예상할 수 있다.

둘째는 脫이데올로기와 經濟優先의 현실주의 경향이다. 이것은 이미 수년전부터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온 경향이지만 페레스트로이카의 등장과 동구변혁 이후 支配的인 현상으로 정착됐다.

이런 흐름의 구체적인 징표는 韓國 北方外交의 성공과 소련을 포함한 공산국가들과 한국의 수교 성립, 바르샤바조약기구(WTO)의 해체와 東歐國家들의 EC加入운동, 蘇聯共產黨의 脫마

르크스-레닌主義的 社會民主主義 강령 채택, 소련의 G-7會議 참석 및 西方援助 호소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地域單位를 중심으로 하는 經濟協力體의 등장이다. 이미 유럽공동체(EC)에 의해 선도되고 있는 이같은 地域共同體 결성운동은 남·북아메리카, 동남아, 스칸디나비아 등지에서 활발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東아시아에서도 豆滿江流域의 북한·소련·중국의 여러 지역에 經濟特區가 준비되기 시작하여 自由貿易地帶로 발전될 계획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東亞經濟共同體로 발전하는 모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는 民族을 단위로 하는 새로운 國家形成 운동이다. 이것은 多民族 複합國가가 민족단위의 국가로 해체되고 分斷된 民族들의 통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련이나 유고슬라비아가 해체위험을 받고 있는 多民族 國家라면 독일·예멘·한국은 통합과정에 있는 單一民族國家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周邊情勢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고르바초프의 政治生命, 金日成의 사망 등이 열거될 수 있다.

고르바초프가 반대파의 정치공세 또는 내정실패로 실권당할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설사 그가 퇴진한다 해도 蘇聯政策의 기본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고르바초프 실권 이후 保守派가 집권하면 현재의 개혁속도가 다소 완화되고 改革의 폭이 재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방향은 현재의 그것과 유사할 것이다. 이것은 中國의 毛澤東이 文化革命에서 현실주의적 改革派를 타파하는데 성공했으면서도 결국은 「4개 근대화」 노선을 받아들이고 美國·日本과 국교를 개선함으로써 결국은 그가 타도한 반대파의 改革路線을 선택한 것과 유사하게 될 것이다.

고르바초프 실권 이후 엘친 중심의 急進派가 집권한다 해도 개혁속도가 가속화되고 개혁의 폭이 넓어지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고르바초프路線의 연장선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金日成이 사망할 경우 北韓의 정치세력은 변동할지 모르나 역시 정책의 基本方向은 지금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金日成이 점진적·소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對外的인 開放은 더욱 적극화되고 內政改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가 죽고나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方向은 金日成의 사망 후 金正日이 집권하든, 그외의 어느 세력이 집권하든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것은 毛澤東 사망 이후 반대파였던 鄧小平 중심의 실용주의 세력이 집권했지만 그들의 정책노선은 毛澤東이 말기에 추구했던 「4個近代化」 노선의 연장에 불과한 것과 유사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金日成이 추구할 노선은 毛澤東 말기의 실용주의 정책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世界情勢 흐름은 고르바초프의 정치생명이나 金日成의 자연생명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지금의 방향으로 진전돼 나갈 것이다. 다소 政治的 혼란이 예상되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소련이나 북한 내부의 權力再編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 韓半島 情勢

韓國에서는 1년 반 이내에 總選舉와 大統領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권력판도에 변화가 일 것도 예상된다. 그러나 사회적 變動이나 기존 정책의 變化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며, 對外政策·北韓政策도 현재의 정책노선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外交面에서도 美國·日本과의 기존의 友邦關係가 유지되는 한편 韓·蘇關係는 더욱 밀접해 지고 中國과도 1~2년 이내에 修交가 이뤄질 것이다. 일반적인 國際情勢의 발전에 힘입어 우리의 국제적 위신이 신장되고 외교적 역량은 강화될 전망이다.

社會的으로는 經濟成長이 계속되고 左派勢力은 퇴조하며 국민적인 保守傾向이 강화되어 안정을 회복·유지해 나가게 될 것이다. 더욱이 經濟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對外關係·對北關係에서 우리는 더욱 자신감을 얻게 될 것도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軍事的으로는 1992년부터 미군감축이 시작되어 그 첫해에 7천명이 철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거나 사회적 동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韓美防衛條約이

있고 美軍이 완전 철수하지 않는 한 그 7천명의 철수는 상징성 이외의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93년 이후의 美軍撤收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보아가며 韓·美 양국정부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므로 軍事的 安全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이다.

한편 北韓은 金日成이 생존해 있는 한 政治權力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支配權力의 행사에서 金日成의 권한이 점진적으로 金正日로 이양되어 나가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외부 동요나 정책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北韓은 지금 金日成이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對外的인 개방, 南北關係의 증폭에 이어 內政改革에 착수하여 제한된 범위안에서 점진적으로 自由化를 시작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北韓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北韓의 變化는 수년전부터 진전돼 왔다. 다만 최근에는 그 變化가 표면적·적극적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최근 北韓이 UN加入을 결정하고, 對美·對日 접근을 적극화하고 「하나의 조선」노선을 사실상 수정했음에도 우리 사회의 保守反共勢力은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같은 변화는 숨은 의도를 가진 일시적·표면적인 제스처라는 認識을 가지고 보려 한다. 이런 인식은 冷戰的 思考의 소산으로서 시대의 변화를 모르는 비현실적 사고이므로 거기에 개의하여 政策決定이나 政策執行이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北韓·日本의 수교는 韓國·中國의 수교를 전후해서 거의 같은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北韓·日本의 外交關係 성립은 韓半島에서 4強의 교차외교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7년째 억류해 온 日本의 富士山丸 선원 2명을 석방하고 정식으로 일본과의 國交正常化 협상에 들어가 있다. 北韓은 일본에 대해 國交以前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日本은 북한에 대해 核安全協定 체결을 촉구하고 있으나 兩國의 수교는 낙관적일 것으로 보인다.

北韓·美國의 수교는 北韓·日本, 韓國·中國의 외교관계가 성립된 이후 머지않은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北韓은 北京에서 美國政府와 외교접촉을 시작했고, 美國의 학술대회에 여러차례 대표를 파견했으며, 최근에는 「6·25」때 실종·사망한 美軍의 유해를 반환함으로써 對美關係를 완화시켰다.

美國은 北韓에 대해 核安全協定の 조인, 국가테러의 중단, 南北對話에서의 성실성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北韓은 南韓에서의 美軍撤收, 核武器 철거, 北韓에 대한 核不使用 약속을 미국에 대해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의 상호수용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금년 9월이면 南北韓은 동시에 UN에 가입한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對外的 地位나 南北關係 변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南北間의 냉전적 대결상태는 변질됐으나 對話秩序나 協商의 규칙은 아직 制度化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불안정 상태도 남북한의 UN가입을 계기로 변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北韓이 것처럼 반대해 오던 南北韓의 UN 개별가입을 스스로 선택한 것은 그들이 국제적 고립을 두려워하고 있고, 개방은 그들의 體制 維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이 것처럼 외쳐 온 「하나의 朝鮮」 노선의 포기를 사실상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

南北韓의 UN가입으로 北의 고립적 폐쇄성은 수정되어 北韓이 변화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韓國에 대해서는 UN加入이 中國을 비롯한 베트남·라오스·쿠바 등 나머지 未修交 共產國家와의 외교관계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北韓은 변화를 시작했지만 거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그것은 현재의 金日成體制와 金日成體面의 유지 때문이다.

北韓이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한 것은 스스로 변신하지 않으면 지금의 體制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변화는 體制維持에 위협이 되지않는 범위 안에서만 개혁과 개방이 이뤄질 것이다.

北韓에서의 金日成의 지위가 神的 位置에 있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北韓體制의 중요한 역할이 되어 있다. 따라서 北韓의 變化는 金日成體制와 함께 金日成體面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고 수용될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변화는 현재의 집권세력에 의해 행해지고 위로부터의 변화가 될 것이다. 北韓의 變化는 자발적인 선택이기 보다는 외부의 압력과 영향에 의한 수동적 선택이기 때문에 점진적·부분적인 변화에 머물 것이다. 이런 양상은 金日成이 살아있는 한 좀처럼 변하지 않을 것이다.

향후 3년간의 국제정세나 한반도 사정은 內的인 變化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方向과 基調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南北對話를 고무하고 南北關係를 발전시키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4. 北韓의 對話態度와 우리의 戰略(向後 3年)

南北對話나 北韓政策의 목표는 民族統一이다. 이 統一은 민족의 화해나 민족역량의 손상이 없는 범위안에서 달성돼야 한다. 따라서 통일은 平和的이어야 한다. 統一을 위한 南北戰爭이나 북한 또는 남한 내에서의 流血事態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전쟁과 유혈을 피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지연도 감수해야 한다.

平和的 統一을 위해서는 南北對話와 南北交流가 선행돼야 한다. 지금 이같은 統一努力이 정체 또는 지연되고 있는 것은 北韓 때문이다. 北韓이 종전의 孤立主義的 閉鎖政策을 수정하여 開放化되어야 한다. 북한이 개방되면 內的인 改革이 수반되고 그 개혁의 결과는 북한사회의 民主化·多元化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상태가 곧 統一 직전의 東獨이나 變革 전후의 東歐의 모습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南側의 對話戰略이나 北韓政策은 北의 정책과 노선을 변화시켜 開放化하도록 유도하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이것이 달성되면 北의 변화는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닐 것이다.

가. 北韓態度의 展望

北韓은 그동안 소련·동구의 변화를 외면하면서 「우리 식으로 살자」는 종래의 고립·폐쇄 노선을 고수해 왔다. 그 결과는 外交的 孤立과 經濟的 沈滯다. 이것은 국민적 불만을 누적시킬 뿐만 아니라 北韓의 體制 자체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환경에서 지금 북한이 당면한 지상과제는 金日成體制의 유지, 金日成體面의 수호다.

이 두개의 과제를 수행키 위해 北은 최근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美國과의 대화, 日本과의 수교협상, 南韓의 실체인정, 유엔加入 결정, 核査察 수용, 「두개의 조선」 인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北의 변화가 아직은 對外的인 局面에 국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金日成은 對外開放은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內政改革에는 손을 쓰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 北이 내부적인 개혁까지 착수하여 民主化·多元化되어야 한다.

南北對話나 南北關係에서 북한은 對外開放의 차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추구할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지금의 난제를 타개하여 金日成體制·金日成體面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美國과의 관계개선이 先決課題가 된다.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개선될 때 日本을 포함한 西方國家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그래야만 西方의 지원하에 경제상태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러한 美國이 북한에 대해 南北關係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北은 南北關係를 진전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 南北高位級會談

北韓은 이 회담에서 軍備縮小 분야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임할 것이다. 지금 북한은 GNP의 30% 내외를 軍事費로 쓰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경제력으로서는 過負擔이 된다. 따라서 군사비의 경감없이는 지금의 經濟難을 극복할 수 없다.

北韓이 不可侵宣言의 우선채택을 고집하고 있는 것도 軍縮協商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北韓이 미군철수의 주장을 강력하게 계속하고 있는 이면에는 南으로부터의 군사적 압력을 완화하여 자기네 군비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으로 北韓이 日本으로부터 배상금과 經協資金을 받고 다른 西方國家로부터 차관을 얻어 工業施設을 증설케 되면 勞動力 수요가 증가된다. 이 경우 이 노동력에 충당키 위해서는 兵力規模를 줄일 필요가 생긴다.

따라서 北韓은 軍縮의 실현을 위해서라면 다른 분야에서의 양보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그 양보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는 南北間의 게임에서 결정될 것이다. 현재 北은 開放을 두려워

하고 있고, 南은 美軍撤收를 바라지 않고 있다. 이 양측의 아킬레스腱 사이에서 양보선이 결정될 것이다. 여기서도 北韓은 金日成體制와 金日成體面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타협과 양보를 벌이게 될 것이다.

(2) 南北赤十字會談

赤十字會談은 북한사회의 開放과 북한인민의 意識變化, 南한의 社會的 침투를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한다는 점에서 北韓은 성의를 갖지 않으려 할 것이다. 더구나 赤十字會談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離散家族의 의미가 남과 북 사이에 전연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에게 離散家族은 北을 등지고 탈출한 反共人士들로서 우리 체제를 떠받치는 믿음직한 세력이고 北으로 넘어간 사람은 극소수다. 따라서 離散家族에 대한 우리측의 애정은 크다.

그러나 北으로서는 南한으로 간 북한출신의 離散家族은 일종의 反動的인 敵이며 北韓에 있는 南한출신 이산가족들은 金日成이 미워한 南勞黨의 잔당에 불과하다. 따라서 金日成은 이산가족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北이 赤十字會談에서 고려할 점은 내외의 여론이다. 人道的인 問題를 외면할 경우 北이 받게 될 여론의 압력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北은 赤十字會談을 통해 문제를 일괄적으로 타결하여 離散家族 問題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그때 그때 시대적 상황을 보아가며 제한된 一時的인 交流로 임할 가능성이 크다. 즉 추석·구정의 성묘단·고향방문단 성격의 교환을 더 선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南北經濟會談

經濟는 北韓이 南韓과의 협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다. 實利面에서 經濟會談에 대한 기대는 크다. 그러나 北이 南에 비해 가장 취약한 분야가 또한 經濟다. 北韓이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아마도 北韓은 公式會談을 거치지 않고 실질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게 될지 모른다. 가령 양측 商社를 통해 쌀의 直交易를 성취하거나 南한의 기업인을 불러 投資를 유도하는

방식을 선호할 것이다. 이것은 주로 民間次元의 경제협력 방식이 된다.

政府次元에서는 회담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北韓은 秘密會談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협의·결정하고 가능하면 발표하지 않는 方式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經濟分野는 앞으로 南北關係 발전이 가장 크게 기대되는 영역이 되고 이것이 北의 社會的 변화를 유도하는데 중요한 役割을 하게 될 것이다.

(4) 政黨·社會團體 會議

北韓이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온 政黨·社會團體 연석회의와 같은 주장은 점차 퇴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聯合戰線 방식의 전략은 그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南側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궁지에 몰렸을 때 남한을 비방하고 교란하기 위한 선전도구로 쓰는데 머물 것이다.

기타 體育·文化·藝術 분야의 對話는 정식회담보다는 실질적인 交流를 위주로 하여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즉 최근 단일팀이나 교환경기·교환공연·합동공연이 이룩된 방식으로 이뤄져 나갈 것이다.

나. 우리側의 對應戰略

(1) 統一의 Model : 통일민주복지국가

우리의 北韓政策이나 南北對話는 궁극적으로 분단된 민족의 再統一에 있다. 우리가 統一을 지향한다면 統一의 모형과 統一된 국가의 모형을 미리 설정해 놓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統一된 우리 조국은 정치적으로는 民主共和國이며, 경제적으로는 그 우월성이 입증된 현대적인 修正資本主義體制다. 우리는 非民主的인 專制國家를 추구할 수 없고 이미 그 비능률성으로 인해 붕괴 내지 수정 과정에 있는 共產主義體制를 추구할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한다.

지금 韓半島에서는 南韓이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자본주의, 사회적 다원주의, 외교적 국제주의·개방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北韓은 정치적 전체주의, 경제적 공산주의, 사회적 유일체제, 외교적 고립주의·폐쇄체제를 지향해 왔다. 지금의 세계의 대세는 前者의 승리, 後者の 패배로 귀착되고 있다. 蘇聯의 변혁, 中國의 진통, 東歐의 격변, 獨逸의 통일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된 우리의 조국은 동북아와 세계의 平和와 安定에 기여하고, 민족성원 모두에게 自由와 人權이 보장되고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民主福祉國家로 되어야 할 것이다.

(2) 對北政策의 당면목표 : 북한사회의 開放化

현재 北韓은 독일식 통일에 대한 공포감에 젖어 있다. 최근에 와서 북한이 상이한 두 體制가 어느 일방을 먹거나 그 일방에 먹히지 않는 두 政府, 두 體制를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공포심의 반영이다.

平和統一의 걸림들은 말할것도 없이 北韓體制의 고립성·폐쇄성이다. 따라서 우리의 北韓政策, 對話戰略은 북한의 開放化에 집중돼야 한다. 북한사회가 일단 개방되면 각 분야로 變化가 파급되어 대내적인 民主化·多元化가 이룩될 것이다. 그것은 北韓에서 平和統一을 가능케 하는 環境과 條件을 성숙시키게 된다. 우리의 北韓政策 목표가 북한사회의 開放인 이상 우리의 정책이나 제도 가운데 北의 개방에 저해되는 것은 과감히 개폐해야 한다.

① 制限없는 對北開放

북한사회를 개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對北政策이 적극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지금은 北을 두려워하거나 北과의 接觸을 꺼려할 필요가 없다. 北韓에 대해 우리 사회를 제한없이 개방하고 북한과의 接觸을 제한없이 허용해야 한다. 制限은 그것이 우리 사회를 명백하고도 현저하게 파괴하는 직접적인 것일 경우에만 취해져야 한다. 지금 南과 北 사이에 접촉과 교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

北側과 접촉하고 교류하면 그만큼 우리의 실상을 北에 알리게 된다. 우리를 알게 되면 南韓에 대한 북한의 認識에 變化가 일어나고 그 認識의 變化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 북한사회가

이렇게 변하면 北側은 개방화·민주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결국 北韓의 唯一體制를 多元體制로 전환시킨다. 그것이 곧 北韓의 정책·노선·체제·세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는 먼저 우리 體制의 우월성을 인식하고 北韓에 대해 自信心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體制는 그 우월성이 이미 입증되어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그 어느 體制보다도 우수함이 관명됐다. 더구나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우리 體制를 신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極右派들은 對北劣等感에 젖어있다. 極左派는 우리 體制를 부정하려 하고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 非現實的이어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토대가 없는 그같은 인식체계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비해 北韓體制는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북한은 거짓을 바탕으로 한 강요된 선전으로 사회를 버티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金日成 우상화나 共產體制의 우월성에 대한 날조된 신화는 최근 소련언론 보도와 공산권의 현실에 의해 근본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金日成의 항일활동, 6·25의 北侵說 등에 대한 소련측의 부정적 보도가 그것을 입증한다. 이제 우리사회와 交流·接觸을 넓혀 북한 주민 다수가 우리 남한 동포가 누리는 自由水準, 物資水準, 미래에 대한 安定水準을 알게 되면 북한사회는 급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 許可制로 되어 있는 공산권, 특히 북한과의 接觸·交流를 사실상의 申告制로 운영해야 된다. 즉 정부는 國民들로부터 허가신청을 받으면 명백하고도 급박하게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사 운동권학생이나 좌파인사라도 訪北을 허용해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들의 訪北效果도 엄정하게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남한에서 하던 행위를 북한에 가서 한다고 해서 우리사회가 실제로 받은 危害는 어느정도인가, 그들의 행위가 北韓社會의 변화에 미친 영향은 없는가, 그들의 구속이 우리에게 미친 부정적 효과는 없는가? 이런 점을 總體的으로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南과 北의 접촉과 교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본다면 89년 平祝 때의 南韓學生 不參, 90년 汎民族大會의 流產도 재평가되어야 한다. 만일 平祝때 평양측 요구나 학생측 주장대로 5만명을 평양에 보냈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규모상 5만명이 무리여서 1천명

정도라도 보냈으면 어떠했을까, 우리 대학생들을 바라보는 북한사회의 對南社會 認識, 主思主義的 학생들이 主思의 현장에서 느끼는 主思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인식에 변화를 주었을 것이다. 우리 學生들이 북한의 不自由하고 빈곤한 모습을 보고 북한에 대한 환상도 크게 완화됐을 것이다. 北韓當局도 그후로는 선불리 學生들을 선동하여 공동집회를 종용하지도 못하게 됐을지 모른다. 물론 대규모의 左派學生 派北에 부정적 결과도 따르겠지만 종합적으로는 北을 변화시켜 우리의 정책목표인 平和統一을 가능케하는 환경조성을 가속시켰을 것으로 믿는다.

② 對話의 상대는 政權, 목표는 住民

우리의 北韓政策과 南北對話의 상대는 집권세력인 평양정권을 상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北韓의 방식대로 직접 人民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험이 따른다. 北韓은 市民社會나 中產市民層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전체주의적 유일체제다. 북한에서 직접 人民을 선동하여 反政府 봉기라도 일어난다면 북한판 天安門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같은 방식이나 사태는 오히려 北의 사회적 변화를 후퇴시키고 南北關係를 악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북한정책이나 남북대화는 政權을 상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그 目標은 북한동포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北韓을 상대할 때 항상 북한동포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이익과 복지가 향상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의 對北行動은 우리가 1989년의 獨逸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東獨人들이 한 것처럼 北韓동포들이 南을 주저없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保守派 일부에서는 북한과의 對話나 交流가 평양정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北韓體制는 방치해 두면 저절로 붕괴될 것이기 때문에 經濟通商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北韓同胞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短見일 뿐이다. 사랑의 쌀이나 쌀의 교역은 우선 굶주리는 北韓同胞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추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交流의 축적은 결국 北의 變化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③ 統一-外交의 強化

統一은 우리 한반도의 地政學的 立地로 볼 때 결코 우리의 國內問題만이 아니다. 여기에는 우리 周邊 4強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UN이 관련되어 있다. 獨逸統一이 이뤄지기까지는 西獨이 건국 이후 일관하여 아데나워 基民黨政府의 西方外交, 브란트社民黨의 東方政策, 현재의 콜政府의 미·영·불·소를 상대로 한 占領國外交의 성공적 추진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統一이나 남북관계 발전은 外交的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첫째는 北方外交의 확대·강화다. 오늘날과 같은 水準의 南北關係 내지 北의 변화를 가능케 한 것은 6共이래의 성공적인 北方外交의 성과다. 소련과의 國交수립, 中國과의 관계개선, 東歐국가들과의 外交關係가 없었다면 北은 아직도 과거와 같은 냉전적 적대자세를 버리지 않았을지 모른다.

둘째는 對美外交다. 미국은 우리의 최대의 맹방이다. 미국은 지금 北韓으로 하여금 南北關係를 개선하고 開放體制로 나가도록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제로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 소련이 세계적 超強大國 隊列에서 탈락된 지금 초강세력은 美國뿐이다. 미국은 앞으로의 국제질서 형성이나 국제정치 운영, 南北關係 발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력한 나라다. 우리가 북한정책·남북대화를 추진할 때 美國에 예속될 필요는 없지만 항상 協議하고 協力하는 것이 유익하다. 日本을 견제하고 北方外交를 강화하는 데도 美國의 힘은 필요하다.

셋째는 기회주의적인 日本의 견제다. 일본은 南北關係의 발전이나 民族統一의 달성을 방해할 잠재적인 세력으로 보아야 한다. 일본은 또 北韓의 개방을 기회로 北韓을 市場化하여 자기내 경제체제에 북한을 예속시키려 할 것도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對日外交를 통해 日本이 北韓과 접촉하면서 南北關係 발전을 방해하거나 북한경제를 예속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해야 한다. 여기에는 美國이나 蘇聯·中國의 외교적 지원도 필요하다.

(3) 對北 對話戰略

우리의 北韓政策 目標가 북한사회의 개방이고 이를 위해서는 北韓과 접촉·교류를 제한없이

허용해야 한다면 南北對話에서의 우리의 戰略도 이에 준하여 보다 신축성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지금 북한과의 接觸·對話·交流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익을 주고 북한에게는 불이익이 된다. 그것들은 많을수록, 오래 할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우리는 接觸·對話·交流 그 자체를 目的視해야 한다. 접촉의 효과, 대화의 실적, 교류의 성과를 따질 필요가 없다. 우리 체제의 파괴와 국가적 이익의 훼손에 현저하고도 긴박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웬만한 것은 양보해 주고 그 대가로 接觸·對話·交流를 늘려야 한다.

① 南北高位級會談

이 회담에서 우리측은 獨逸의 동·서독 基本條約에 준하는 「남북관계개선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提示, 이를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이것은 北側의 주장까지 포괄한 타당성있는 제안임에도 北은 응하지 않았다.

그 대신 北韓은 「남북불가침과 화해협력선언」을 제시, 이것을 먼저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北韓은 북한·미국의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의 철수도 요구했다.

이 두개의 제안중 우리側의 방안이 현실적이고 보다 안전한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독일이 성공시킨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會談을 발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北의 주장이 최선은 아니라도 들어줄 필요가 있다. 특히 不可侵은 우리가 먼저 주장하기 시작했고 북한측 案이 우리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實効性이 있고 확고한 보장장치가 수반되는 그러한 不可侵은 받아들인다 해도 우리에게 현저하고도 긴박한 不利益은 없다고 믿는다.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北의 不可侵宣言은 군축협상·미군철수로 연결되는 사전 단계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北의 의도에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 의도라는 것은 우리측의 예측에 불과하며, 또 北의 의도와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不可侵채택 후에 軍縮協商에 들어 간다해서 우리가 不可侵을 피해야 할 이유도 없다. 그 군축의 시기와 내용은 南과 北이 합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拒否權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不可侵宣言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駐韓美軍이 철수해야 할 이유도 없다. 南과 北 사이에 군사력 불균형이 있고 실제로 北의 군사력이 우세하다면 미군이 철수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우리는 實効性이 있고 보장장치가 마련된 不可侵 채택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② 南北赤十字會談

北이 赤十字會談을 피한다 해도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서 회담을 재개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對話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거기서 합의가 이뤄져 실현된다면 離散家族의 고통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北韓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效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北韓이 혁명가극의 공연을 제시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북한 출판물의 자유판매를 사실상 방임해 왔고 그 효과가 우리에게 아무런 피해가 못된다는 것도 입증됐다. 會談을 성사시키고 合意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피바다』 『꽃파는 처녀』 등 어떤 것이라도 수용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80년대말에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에서 문제가 되었던 『꽃파는 처녀』는 이미 학원가에서 널리 관람되고 있으나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입은 피해는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南北의 窓」 등 북한프로의 TV방영 등으로 인한 우리사회의 경험과 우리국민의 知的수준은 北의 선전에 대해 충분한 면역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北韓이 공식대화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실질적인 사업을 통해서라도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왕래·교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다른 會談에서도 會談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면 北側의 웬만한 조건은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우리體制의 強固性和 우리 국민들의 確固性을 믿고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북에 공세를 펴야 한다. 그것은 지금의 상황에선 북과의 接觸·對話·交流는 많으면 많을수록 北의 변화를 촉진시켜 獨逸式 統一의 환경조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5. 結論：南北關係는 民族主義의 토대위에서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유리한 南北對話의 기회를 맞고 있다. 대화환경이 성숙되어 있다. 南北의 지도자가 상당한 水準의 對話意志를 가지고 있고 대화의 현실적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統一을 위한 기반을 造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 몇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과거에 보였던 政策決定 單位와 政策實行 單位 사이의 異質性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7·7선언」에 나타난 그대로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89년 平祝과 90년의 板門店 汎民族大會에 우리 左派들이 대거 참가했다면 南北關係는 지금쯤 상당히 定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집행과정에서의 우리측 措置는 「7·7선언」이나 「7·20민족대교류선언」이 보여준 期待나 예상과는 거리가 있었다.

둘째는 北韓의 의도에 대한 지나친 과민반응과 統一戰線戰術에 대한 공포심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우리는 北韓으로부터 예상외의 제안이 나오면 먼저 그들의 底意를 예측하여 소극적·부정적으로 대응해 왔다. 또 北韓이 우리사회의 여러 단체·기관을 상대한 提議가 있으면 통일전선전략이라고 하여 역시 否定的 反應을 보였다.

전략이란 상대가 이미 알고 있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意圖라는 것도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역시 실현되지 못한다. 底意나 의도를 알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상대를 막아낼 수 있다. 對話를 기피·거부하는 것은 敗北主義的 자세다. 지금 北은 조금도 우리가 두려워 할 존재가 못된다. 우리는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셋째는 필요하다면 秘密接觸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南과 北의 특수관계로 볼 때 비공개접촉이 보다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秘密接觸이라 해도 공식기구에 의해 이미 밝혀진 기본정책의 범위 안에서 協商이 이뤄져야 한다. 과거에는 이런 두가지 基準을 벗어나서 비밀교섭이 있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었다.

넷째는 南北對話의 기본정신은 民族主義라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민족국가 단위의 국제적인

利益競爭이 극심하다. 南과 北은 외국으로부터 民族의 利益을 수호·신장시키는데 공동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北韓을 日本市場化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도 이런 民族利益을 지키는 길이다. 南과 北이 공동의 民族主義에 입각하여 현안문제에 접근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民族主義原則 위에서 南北問題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外國의 경계를 피할 필요가 있다. 強大國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弱小國들의 民族主義이기 때문이다. 南北間의 비밀접촉은 이런 점에서도 유효하다고 믿는다.

南北對話 20年 評價와 向後 3年을 내다본 南北對話 推進戰略

朴 奉 植 (서울大 教授)

< 目 次 >

1. 南北對話 20년의 評價
2. 南北對話의 環境과 그 變化展望 : 向後 3年間
3. 北韓의 南北對話 態度展望과 우리側 對話推進 戰略

1. 南北對話 20년의 評價

가. 70년대의 南北對話

南北韓關係史를 봄에 있어서 1970年을 한 기점으로 잡을 수 있다. 즉 그 이전을 對話없는 對決의 時代로, 그 이후를 對話있는 對決의 時代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1970년 이전은 1945年 第2次大戰 終戰으로 정해진 세계적인 體制, 즉 冷戰體制가 韓國戰爭으로 더 굳어져 있어 비교적 단순한 政策運用으로도 體制維持가 가능하였다고 하겠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의 20년간도 70년대와 80년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1970년대는 北韓이 스스로 사태가 유리하다는 상태에서 對話가 출발 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1970년대가

경과하면서 南韓의 경제력과 自主國防力강화로 北韓이 不利해져갔다. 1975年 越南共産化 성공은 金日成에게 가장 중요한 기회로 보였으며 “南北韓間 戰爭이 나면 없어지는 것은 38線이요, 없어지는 것은 統一이다.”라고 하며 中國의 원조를 청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70年の「10·26事態」는 失意에 빠진 金日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기회였다. 1970년에서 시작되는 시대는 아시아政治에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이다. 즉 韓半島의 分斷과 이를 중심으로 하는 自由陣營과 共産陣營의 대결은 물샐틈 없는 장벽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장벽이 越南戰爭에서 能力과 手段에 한계를 느낀 美國이 아시아政策의 틀을 변경하게 되자 여기에 맞추어 南北韓도 生存을 위해 또는 政治變化에서 불리한 지경에 빠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는데 그 方法의 하나로서 南北韓間에는 對話라는 현상을 연출하게 되었다.

1969年 7月 당시 美國大統領 후보였던 「닉슨」氏가 美國은 아시아에서 地上戰에 介入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주장을 하게 되고, 그가 大統領으로 당선되어 이를 「닉슨독트린」으로 공식화시켰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越南戰爭의 名譽로운 종결을 위한 정책이었으나 한편 駐韓美軍도 철수하는 것으로 되었다.

1971年 駐韓美軍 第7師團이 철수하였으며, 1973년에는 지금도 남아있는 第2師團을 철수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닉슨」大統領 스스로 中國을 訪問하여 1972年年 2月 소위 「上海共同聲明」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1971년에 「닉슨」이 中國과의 和解政策을 위해 「헨리 키신저」가 密使로 中國에 파견되는 것이 알려지자 소련은 같은 시기에 印度와 相互援助條約을 체결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사실상 同盟關係에 있다. 이처럼 소련이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은 中·蘇對立이 表面化되었기 때문에 美·中의 和解를 中國의 親美化로 보았으며, 따라서 中國과 사이가 나쁜 印度를 中國을 대신하는 파트너로 잡았다.

美·中관계의 改善에 소련이 것처럼 예민한 反應을 보일 정도이면 韓半島에도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없다. 美·中國은 韓國戰爭에서 처음으로 敵對關係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바로 그 美·中國이 南·北韓間的 敵對狀態는 그대로 둔 채 그들만이 和解를 단행하였다. 따라서 南·北韓은 美·中國관계의 변화에 맞추어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北韓은 「닉슨」의 中國訪問을 “닉슨이 白旗를 들고 北京에 오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태가 北韓에 유리하게 전개 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中國은 美國의 政策變化를 그대로 받아 들이고 있으면 되는 상태에서 그것이 北韓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美·中國 和解가 美國의 政策變化로 이루어지는 만큼 美國의 동맹국인 韓國은 거의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어 있었다. 즉 韓國 安保維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駐韓美軍의 철수발표와 그 實行은 韓國社會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닉슨」은 「上海共同聲明」에서 中國의 「平和共存 5原則」을 받아 들였고 같은해 1972年 9月 日·中國間에 國交가 수립 되었다. 한편 東·西獨은 「兩獨關係의 기본에 관한 條約」을 체결 하였다.

國內의으로는 1971年 4月 第7代 大統領選舉가 있었는데 여기서 野黨候補는 豫備軍 廢止, 勞資共同委員會 構成, 大學生軍事訓練 廢止, 非政治的인 南北交流 그리고 4大國 保障 등을 주장하였다.

韓國政府가 對話에 나서게 된 國內의 사정은 金日成 스스로가 적절히 말해주고 있다. 즉 “남조선 學生들이 軍事訓練을 반대하고 平和統一을 주장하며 매일같이 들고 일어나 투쟁하고 있으며, 그리고 野黨 大統領候補가 향토예비군을 해체하고 情報政治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平和統一을 하겠다고 하였다.”¹⁾ 라고 지적하였다.

北韓과의 對決에서 유일한 依支인 美國이 中國과 和解하고, 아무런 事前協議 없이 一方的으로 美軍을 철수하는 美國의 정책과 國內에서는 無責任한 統一論議가 大統領選舉를 기해 확산된 그러한 상황은 南北對話가 南北間, 좋게말해 公開的인 경쟁을 의미하고, 나아가서 北韓의 對南瓦解工作의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對話의 광장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南北韓 1인당 GNP는 南韓이 248弗이었고, 北韓이 286弗이었으며 1975년에 와서도 南韓이 591弗, 北韓이 579弗에 머물고 있었다.

1) 康仁德, 「北韓의 南北對話 戰略戰術 評價 및 展望」(統一院: 1990), pp.16~17.

그래서 南北對話에 나서면서 1971年 12月 政府는 國家非常事態를 선포하고 國內體制를 戰時體制化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에 자신을 얻은 政府는 政治의 安全만 확보되면 内外의 도전은 극복 될 수 있고 또 극복되어야 한다는 의지로 政治를 펼쳐나갔다.

한편, 北韓에서는 美國의 아시아政策이 一般的인 후퇴를 실시한다고 판단했다. 越南戰爭이 共產側에 유리하게 전개 되었으며, 그 결과로 美國의 후퇴정책이 천명되었고 그 일환으로 美國이 中國과 和解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韓半島에서도 美軍의 철수가 公言되고 實現되고 있었기 때문에 情勢는 北韓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 韓國內에서도 政府의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統一論議가 활발해지고 野黨勢가 政府에 위협적인 상태에까지 와 있어 보였기 때문에 北韓政府가 보다 有和的인 정책을 전개한다면 南韓의 體制는 쉽게 親北的인 세력에 의해 접수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970년 8월 15日 朴正熙 大統領은 光復 25周年 慶祝辭에서 “民主主義와 共產主義의 그 어느 體制가 國民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開放과 創造의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소위 體制競爭을 제의하였다. 이것은 北韓이 1960년대에 4大軍事路線을 추진한데 비하여 南韓에서는 經濟再建에 注力한 결과 自信을 얻은데서 오는 政策聲明이었다.

그 內容은 아직 統一論議가 금기시 되던 때임을 감안한다면 획기적인 내용이었으며, 안으로는 國民을 향해 自信을 갖도록 용기를 주는데 목표를 두었으며 北韓과 外國에 대해서는 어려운 처지에서나마 전진하는 정치적 意志를 보인 것이라 하겠다.

돌이켜 보면 지금은 體制競爭에서 成敗가 명백해 졌지만 20년전인 1970年の 상황에서 본다면 용기있는 정책표시였다고 하겠다. 進退兩難의 困境에서 前進만이 살길이라는 신념에서 즉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을 나아간 것이었다.

유리한 정세에서 對話를 시작하게 된 北韓은 南韓側이 「7·4共同聲明」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民族統一 3大原則으로 「自主·平和·民族大團結」을 받아들이게 되자, 더욱 그들은 南韓에서

統一戰線을 공공연히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金日成이 주장해 오던 內容의 3大原則은 外勢에 의존하지 않고 對美·日關係에서 自主性을 가지며 따라서 外國軍의 철수가 뒤따라야하는 것이며, 平和를 위해 서로 적대적인 제도와 자세를 포기해야 하며 이를 위해 共產黨을 반대하는 각종 法과 制度를 없애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政府機關은 물론 사회단체와 個人들도 大同團結하여 政府協商에 참여하여야 한다는데 南韓이 同意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北韓은 政治合作을 통해 聯邦制에 의한 統一을 추구하는 政治的 目的이 당연히 주된 관심이지만 역시 軍費부담도 줄어가면서 政治目的을 달성하려 한 것 같다. 調節委員會 第2次 共同委員長會議 기간중 金日成과의 대화에서 그는 “南韓은 2억 5,000萬弗의 원조를 받지만 우리는 원조도 없다.”²⁾ 고 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된 南北對話에서 韓國政府는 北韓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고 그들의 政治的 企圖를 좌절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왔으며, 한편 우리側의 主張을 밝혀 北韓에 대해 공세적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北韓은 赤十字會談이나 調節委 運營에 있어서 政治 우선주의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南韓은 赤十字會談에서는 人道主義 原則을 고수하고 離散家族의 고통을 해소하는 現實的인 案을 주장한데 반해, 北韓은 이들 事業을 하기 전에 南韓內에서 法的·社會的 條件과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장, 즉 政治問題의 先決을 요구하고 나왔다.

調節委 會議에서도 우리側은 社會·經濟問題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단계적, 기능주의적 접근을 주장한데 반해, 北韓은 政治·軍事問題 우선해결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人的往來와 接觸에 있어서 體育人, 藝術人 등 制限된, 또는 北에서 특수한 地位에 있는 人士만의 接觸을 허용하고, 일반 離散家族이나 특정인사가 아닌 부류의 人的接觸이나 交流는 극력 피해 오는 자세였다. 즉 北韓은 南韓에 대해 無制限的인 人的接觸을 요구하면서 北韓에서는 완전히 제

2) 康仁德, 上揭論文, p.52.

한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1973년의 「6·23 外交政策宣言」이 나오자 그들은 南北對話가 南韓主張을 정당화해 주는데 지나지 않고 그들의 統一戰線戰略이 수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對話를 단절하고 말았다.

北韓은 南北對話를 진행하면서 속았다는 감을 금할 수 없었을 것이다. 南韓은 民族統一 3大原則을 수락해 놓고도 이를 실천에 옮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南北對話를 이용하여 反共體制 강화와 維新體制를 확립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金大中 拉致事件을 구실로 해서 對話를 중단하고 말았다.

이상에서 보면 南北韓關係史에서 李承晚 大統領은 北韓의 武力南侵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뒤이은 安保體制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朴正熙 大統領은 李大統領이 세워놓은 體制에 대한 北韓으로부터의 政治南侵을 저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1970년대초의 內外的인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넘겼고 그 기간에 경제성장까지 이루었음은 奇蹟적인 일이라 하겠다.

나. 80年代의 南北對話

1980년대의 南北對話는 「10·26事態」에서 「5·17」까지와 全斗煥 大統領 政府의 등장 이후로 나누어 北韓의 공세와 관련해서 보는 것이 편리할 것 같다.

北韓側은 「10·26사태」를 1970년대 후반이래 南韓에서 조성된 反維新 革新勢力의 승리로 간주하여 統一의 장애물인 維新體制가 붕괴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사태는 「4·19혁명」에 못지않은 好機로 이를 잘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 對南革命의 첩경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따라서 北韓은 反維新勢力들의 사상적 성향을 反反共勢力으로 發展시켜 韓國內에서 새로운 政治勢力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종래 維新政府가 추진해 온 統一政策의 反動性을 강조하는 방도로 움직여 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가능한 한 南韓에 대한 革命要求를 은폐하면서 民族的 自主의 입장을 강조하는 對南姿勢를 보이는 것이 이 기간중의 상황이라고 하겠다.

北韓은 南韓內 左翼勢力간의 統一戰線 형성은 물론 左翼勢力과 民主勢力간의 統一戰線, 反維新, 反軍部勢力間的 統一戰線 등 다양한 戰線을 형성하기 위한 戰術的 고려에서 崔圭夏 大統領 政府下에서 새로 등장한 각 세력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왔다.³⁾ 제안 方法은 政府人士는 물론 各界의 人士들 중 그들이 對話할 人士를 선정하는 식으로 해서 南韓의 指導層內 混亂을 조성하려 하였다. 한편 大學을 위시한 각종 단체에서 民主化를 내 걸어 南韓內에 있어온 政治價値를 政治發展이란 이름으로 전복하려는 사실상의 사회혁명을 추진하려 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5·17사태」로 저지되고 韓國內 軍部中心의 정권이 들어서자 그들은 總理會談을 위한 實務接觸을 중지하고 對南宣傳攻勢를 内外에 전개하였다. 새로 등장한 第5共和國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거부의 자세를 취하였다.

金日成은 1980年 10月 10日 소집된 勞動黨 第6次大會에서 「5·17」이후 5共和國 樹立까지의 南韓정세를 규탄하고 「高麗民主聯邦共和國」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案에는 前提條件으로서 南韓政治體制를 容共政權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이 政權과 聯邦을 실시하겠다는 자세를 취하였다.⁴⁾ 内外의 革命力量을 총동원하여 5共軍部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를 취하였다.

이러한 北韓의 자세에도 불구하고 새 政府는 1981年 1月 12日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의 相互訪問을 제의하였고, 6月 5日에는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을 제의하였다.

여기에 대해 北韓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공격으로 對話를 운위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對話의 전제조건으로 民主人士의 석방, 民主政黨·團體의 復活, 反共政策 拋棄, 6·23宣言 取消, 駐韓美軍의 撤收 등을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南朝鮮 勞動者, 農民, 青年學生들이 총동원하여 南朝鮮의 民主化를 위한 救國聖戰에 한결같이 일어서라”⁵⁾고 선동하였다. 이러한 第5共和國 打倒의 内外에 걸친 노력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으며 1983年 10月の 아웅산 폭탄테러사건으로 연결되었다.

3) 康仁德, 上揭論文, p.60.

4) 「南北韓 統一·對話 提議比較(第1券)」(統一院: 1991). pp.285~6.

5) 康仁德, 前揭論文, p.65.

그런데 北韓이 악마처럼 증오하던 5共政府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자세로 상대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은 올림픽 때문이라 하겠다. 1984년에 LA올림픽에 韓國의 참여를 지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1981年 9月 IOC 바덴바덴총회에서 88서울올림픽이 결정된 이후 이를 지지하기 위한 노력에서 한국에 각종 제의를 하고 접촉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고 한편 北韓이 우리에게 水災救護物資 提供을 제의했을 때 우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시작된 접촉 등으로 北韓은 다시 統一戰線戰術에 입각한 對南接觸에 나서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10·26事態」 이후의 好機를 빼앗긴 분노로 시작된 5共政府 全面拒否 戰略도 결국 실패한 셈이다. 아웅산 테러사건으로 국제사회에서 테러국가로 낙인찍혔고, 88서울올림픽을 지지하는데 실패하였으며,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국의 소련 및 東유럽진출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준 셈이다.

80년대의 南北對話는 5共政權이 國內에서 있었던 正統性 是非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마무리와 올림픽에 성공함으로써 北韓에 대해서 자신있는 태도로 임할 수 있었다. 對北提義에서 「金日成主席」운운해서 北韓의 口味를 유도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北韓의 여러가지 非文明的인 행동은 우리 友邦들의 對北경계심을 높였다. 무엇보다도 올림픽의 성공적인 준비와 그 실행은 모든 면에서 對北競爭에서의 完勝을 의미하였다.

1960년대까지의 對北守勢, 1970년대의 均衡維持 그리고 1980년대에서의 對北優勢의 확립 등을 통해 自由 民主의 우세를 확립한 것은 民族 모두를 위해 慶賀할 일임에 틀림없다.

2. 南北對話의 環境과 그 變化展望：向後 3年間

가. 周邊情勢

韓半島 周邊情勢는 서울올림픽을 기해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서울올림픽에 참가한 소련과 東유럽국가들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政府主導型이라는 것에만 착안하여 자기들도 韓國의 발전

모델을 배우려 하는 태도를 가졌다.

그중 소련은 서울올림픽 기간중 각종 文化行事를 실시하여 韓國人의 가슴에 쌓인 오랫동안 소련에 대한 敵對意識을 씻어 버렸다. 이것이 韓半島 周邊情勢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주변정세 변화의 계기와 그 진행과정에 대한 說明은 일단 유보하고 1988년 이후 강대국간의 脫冷戰 狀況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第2次大戰後 冷戰體制는 유럽을 中心으로하는 美·蘇간의 세계적 세력범위 분할로 시작되었다. 유럽에서는 分割이 비교적 명백한데 반하여 아시아에서는 그것이 명백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시아는 戰爭이 열전으로 변하여 지금도 그 餘震이 남아 있다. 바로 그 冷戰體制는 中心部인 유럽에서는 상징적으로나 制度的으로도 해소되었다. 獨逸의 統一, 「바르샤바」 同盟體制의 해체, 1990年 11月 파리에에서의 새 유럽을 위한 「파리헌장」 채택 등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유럽에서는 冷戰을 청산한 美·蘇가 아시아에서는 冷戰時代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의 분위 기초차 이룩되지 못하고 있다. 유럽에서 美·蘇는 在來式 戰力減縮에 관한 協定(OFE)을 체결하였으나 아시아에서는 그러한 준비가 없다. 오히려 소련은 이 協定에서 감축해야 할 一部를 우랄山脈 以東으로 옮겨 놓고 있다고 전한다. 그리고 소련은 극동지역에서 海·空軍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美國은 우세한 海軍力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련과의 이 地域에서의 軍縮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소련은 아시아版 「安保協力會議」(CSCA)案을 제시하여 亞太地域에의 진출을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美國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기존하는 美國의 기득권적 지위에 修正을 가하는 일을 원치않고 있다. 美·蘇를 위시한 아시아 주변국들은 冷戰시대의 體制와 冷戰시대에 얻어 놓은 기득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冷戰시대의 이데올로기적인 羈束은 벗어나서 現實的 利益追求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가장 앞선 나라가 소련이고 中國이며 日本이다. 미국은 가장 느린 셈이다.

소련은 北韓과 1961年 締結한 同盟條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韓國과 修交했을 뿐만 아니라

1991年 4月 제주도에서의 韓·蘇頂上會談에서 友好協力條約 締結을 제의하기까지 하였다. 소련은 1990年 7月 北韓과 1961년에 맺은 同盟條約을 5년간 더 연장시켰다.⁶⁾

또한 소련은 1990年 9月 韓·蘇修交가 이루어지고 12月 「세바르드나제」外務長官이 사임한 이후에도 北韓에 武器援助 등으로 金日成을 안심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무렵은 「고르바초프」가 國內 保守派의 압력으로 右傾하던 시기이다. 1991年 4月 이후 「고르바초프」가 다시 改革을 추진하고 있어 北韓에 대한 소련의 자세는 상당히 유동적이다.

공식적으로는 韓國과의 수교가 종래의 同盟國 關係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 왔다. 그러나 北韓이 소련의 韓國과의 수교를 비난해 온 것은 사실로서 同盟關係에 영향을 이미 끼치고 말았다. 그러나 北韓이 유엔가입을 결정하고 日本과의 修交交渉을 시작한 이상 소련을 탓하고만 있을 수 없으며 독자적으로 살길을 찾아 나서고 있는 셈이다.

소련은 1990年 7月24日 蘇聯 對外經濟 關係改善에 관한 大統領令을 발하여 1991年 1월부터 中國, 베트남, 北韓 등에도 무역거래에서 硬貨를 사용할 것을 통고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다소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전한다.

이렇게 하여 소련은 北韓과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韓國과의 수교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亞·太地域으로의 政治的 進出의 돌파구를 韓半島에서 찾으려 하는 것 같다. 「고르바초프」는 쿠바까지 가서 「카스트로」를 만났는데 平壤은 가지 않았다. 1989年 5月 北京까지 갔고 1991年 4月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平壤은 아직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소련지도부가 갖는 金日成에 대한 입장을 짐작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는 1991年 4月 日本을 방문하여 어려운 교섭을 벌였으나 북방영토문제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日本下院에서의 연설에서 日·蘇平和條約締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亞·太地域의 軍縮문제를 위해 蘇聯·日本·美國의 3國協調와 여기에 中國과 印度를 포함한 5個國會議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日本은 냉담한 태도를 취하였다. 印度는

6) 이 條約의 正式 有效기한은 10년인데 기한만료 1年前에 상대방에 기한종료 意思를 통고하지 않으면 5년간씩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1971年 美·中國關係好轉이 시작될 무렵 이를 견제하기 위해 소련과 友好協力條約을締結하여 兩國은 사실상의 同盟關係에 있다.

소련의 현재까지 亞·太地域으로 進出의 새로운 局面은 「고르바초프」집권이래 韓國과의 修交 이외에는 없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北韓이 유엔에 가입하고 日本과 수교한다면 더욱 마음 편하게 -北韓을 의식하여 소련이 하고자 한 일을 못한 적은 없지만- 韓國과의 關係增進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韓·美關係의 현상이나 소련이 이데올로기적 입장은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열강간의 이해관계는 물론 韓·蘇 兩國間에도 政治的 關係는 진전되기 어렵다. 그 이외의 經濟·貿易·文化關係는 더 밀접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련이 제의한 韓·蘇友好協力條約은 政治問題가 관련된다. 즉 友好協調의이면 최소한 第三者와의 條約에서 相對方을 敵으로 삼는 약속은 하지 못하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向後 가까운 시일내에 이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소련이 제안하고 있는 아시아版 「安保協力會議」(CSCA)案도 美國을 위시한 대부분의 나라가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多邊的인 協議體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傳統, 歷史, 政治體制, 文化가 서로 다르다는데 있다. 그리고 軍事協力方法도 雙務的 方法이지 유럽처럼 多面的이 아니다. 美·日, 韓·美防衛條約이 있고, 蘇·北韓, 소·베트남, 蘇·印度條約이 있다. 그리고 中國과 北韓間의 조약이 있다. 中·蘇간에는 1950年 2月14日 30年 有效期間의 同盟條約이 있었으나 1979年 中國政府가 有效期限 不延長을 소련에 통고하여 美國과 國交修交에 보답하였기에 兩國間에 아무런 法的 關係가 없다.

그러나 최근 亞·太地域에 각종 主要會議가 열리고 있으며 環太平洋協力の 구상이 구체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만큼 소련이 제안한 아시아版 「安保協力會議」構想은 호응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금은 中國과 북한마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韓國의 입장에서 본다면 설혹 友邦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이 會議案에는 우리로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첫째로 北韓을 아시아政治의 現實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協議體에 끌어들이기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이 會議構想은 유럽의 경우 會議參與國간의 人的交流의 自由化, 人權伸張 등을 政治文書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北韓은 물론 中國과 베트남 등 社會主義를 포기하기를 반대하는 나라들을 위해서도 이 구상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中國은 소련과는 달리 社會主義의 大義를 고수하는 입장이다. 이 점에서 北韓에게 큰 依支가 되고 있다. 소련과는 달리 政治改革은 하지 않고 經濟改革만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支配體制는 그대로 두고 經濟부문에서만 市場經濟 原理를 도입하여 현재까지는 그 나름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

북한은 이 中國의 모형을 멀리서나마 뒤따르려 하고 있다. 1984년의 合營法 채택이 그 한 예였다. 그리고 최근 中國은 韓國과의 경제협력 강화는 물론 經濟成長을 촉진하기 위해 西方側과의 관계개선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北韓에 대한 後見人 노릇을 지양하는 方向으로 가고 있는 면이 있다. 1991年 5月 3日부터 6日까지 中國의 李鵬 總理가 平壤을 방문하였다. 이 때 李總理는 北韓側의 歡迎宴 演說에서 종래와는 달리 「中·北韓간의 血盟」云云的 용어를 전혀 쓰지 않았다고 한다. 李總理는 “朝鮮은 東亞의 英雄國家이며 光榮있는 革命傳統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革命의 과정에서 中國이 더불어 싸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李總理의 訪問後 中國外交部는 “유엔가입문제를 협의했다”고 간단히 公式報道 하였다. 그리고 李總理의 北韓방문을 前後해서 中共의 지도자들은 外國손님들에게 “朝鮮은 自尊心이 강한 나라로서 對話는 하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등의 말을 흘려 金日成의 자세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北韓이 유엔 개별가입을 결정하는 외교부성명을 5月 27日 발표하고, 6月 1日 金日成이 이와 관련된 언급을 日本 共同通信記者와의 회견을 통해 하게된 것은 李鵬 總理의 北韓訪問의 성

7) 이 대목은 “血の同盟, 中·朝 關係は どう變わる”, 「世界週報」(1991.6.11), pp.14~17. 참조.

과라고 하겠다. 여기서 보면 中國은 소련이 韓國의 유엔가입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서 北韓을 위해 亞·太平洋 冷戰의 과수꾼 노릇을 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때문이라 하겠다.

中國도 소련과 마찬가지로 北韓이 이제 유엔에 加入하고 日本과 修交한다면 오랫동안 北韓의 後見人 노릇을 해 온 짐을 벗는 셈이다. 中國은 共產黨지배를 계속하기 위해서도 經濟發展을 촉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韓國과 修交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겠다. 臺灣問題가 있어 韓國과의 修交가 이론상 어려운 국면이 있으나 韓·中修交는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中國은 政治的 自由가 同伴되지 않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 이 地域에서의 역할 증대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 美國과의 關係 不振과 유엔安保理 常任理事國이면서 점차로 세계정치에 영향력을 강화하기 시작한 G-7會議에 참여하지 못하는 中國은 이 地域에서나마 활동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韓國과의 관계증진은 가속될 가능성이 커 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北韓에 대한 後見人 역할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 日本은 韓半島周邊에서는 기존의 經濟力과 北韓과의 修交를 통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991年 7月 런던에서 열린 G-7首腦會議에서 이미 經濟大國으로서 세계정치에 發言權을 강화하고 있는 日本은 아시아政治에서도 강한 發言權을 행사하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訪日을 맞이하여 보인 日本의 강한 자세는 앞으로 政治大國으로의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점에서는 美國과 소련 그리고 中國과의 협공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經濟力 발휘에만 그치는 자세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北韓과의 修交에서 日本의 對北韓 協力方式에 따라서는 北韓政治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日本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日本에 대한 경계는 계속되겠지만, 日本은 경제력으로 對日경계체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이 예상된다. 이 점에서 소련과 中國도 美國의 亞·太 地域에서의 강력한 존재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끝으로 美國의 움직임은 본다. 美國은 소련의 亞·太地域으로의 진출기도와 韓·蘇관계의 진전, 中國政治의 움직임과 日本經濟力의 政治力化를 포함한 日·蘇관계의 전개, 日本·北韓의 修交등을 보면서 서서히 美國 나름의 구상을 진행중에 있다.

1990年 4月 알려진 아시아를 위한 戰略構造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3단계로 나누어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 1단계(1990~1992)에서는 1992년 12월까지 아시아地域으로부터 美軍 15,250名을 철수하는데 이 중에는 韓國으로부터 철수하는 7,000名도 여기에 포함한다. 제2단계(1993~1995)와 제3단계(1996~2000)에서의 美國戰力構造의 조정은 安保狀況을 보아 가면서 同盟國들과 協議調整해 가면서 진행시킨다고 한다.

駐韓美軍과 관련해서는 제2단계의 기간에 美 第2師團의 재편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다. 물론 北韓의 核開發問題가 1992년까지 해소되고 남북대화에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 제2단계 計劃이 실천에 옮겨질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제2단계의 기간과 北韓의 金日成이 1995년에 統一을 달성하겠다는 시기가 겹친다는 면에서 관심이 더 커진다. 南北韓관계가 正常化되더라도 駐韓美軍의 空軍과 情報蒐集能力은 韓國에 유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규모의 美軍은 北韓에 적대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판단과 인식의 전환이 병행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우리의 주변정세는 이제 南北韓間의 正常關係를 위해 급격히 유리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나. 南韓情勢

韓國政治의 變動은 10년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면을 보아왔다. 「4·19」와 「5·16」그리고 1970년대초의 維新과 「10·26」 등으로 보면 10年 週期說에 一理가 없지 않다. 1990년대는 소련과 東유럽의 變動 그리고 1991년의 韓國에서의 地自制를 위한 選舉 등으로 政治의 熱을 發散하고 있어 충동적 變動은 연기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制度的으로 盧大統領의 任期가 1993年初로 다가 오고 있어 이를 기해 政治變動이 예고되고 있다. 이 變動을 충격적으로 맞이 할 것인가, 충격없이 넘어 갈 것인가는 예측 不許이다.

그리고 현행대로 大統領責任制로 갈 것인가 內閣制로 바뀌 갈 것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현재까지의 경험에서 볼때 大統領制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6共 이후의 風潮의 하나인 權力에의 懷疑가 만연하여 政局의 安定은 어려울 것이다. 차라리 內閣制에 의하여 잦은 改閣을 통해 國民의 政治에 대한 過剩關心을 해소해 가면서 政局安定을 기하는 것이 좋을지 모른다.

또 大統領制를 고수하는 경우 選舉過程에서의 地域感情의 動員은 더 큰 不幸을 가져 올 수 있다. 여하튼 1993년을 전후해서 韓國의 政治는 크게 혼란을 겪을 예정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이제 政局의 혼란은 政治圈의 혼란에 그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社會와 經濟는 성장하고 있다. 政局이 곧 나라의 運命을 결정할 수 있던 시대는 1970년대와 더불어 지나갔다.

따라서 1993年 전후의 정세는 南北對話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政局의 混亂을 틈타 北韓의 對南戰術의 변화와 對話의 지연에 口實은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6共政府가 지속성있는 經濟政策을 펴지 못하고 단기적인 輿論에 附隨하는 政策을 지속해 온 결과 經濟의 根本的인 문제에 不調和와 차질을 가져와 製造業의 계속적 成長이 불가능한 상태를 造成하고, 건축업 등에 과잉투자로 GNP수치만 성장시키고 있는 現象은 결코 건전한 將來를 약속하는 것이 못되고 있어 우려된다. 北韓과의 對比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 統一을 대비한 經濟體質의 건전한 成長이란 측면에서는 중대한 問題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 北韓情勢

北韓의 政治는 體制的인 變化의 측면에서 보면 金正日에 의한 政權承繼의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사실상 承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1980年 6次黨大會 開催 이후 大會를 열지 못하여 이를 公式化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뿐이다. 앞으로 3年 이내에 政策을—그것이 戰術的次元이건 아니건간에—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많다. 이미 변화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3年 이내에 이것이 더욱 본격화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金日成은 1995년에 統一을 이룩한다고 했는데, 1993年年에 金正日이 政權을 引受한다면 1995

년에 北韓政權이 무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3年内에 많은 면에서 政策의 變化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北韓內 住民들에게 충격을 준다면 1995년경에 큰 變化를 겪을 수 있을 것이다. 金日成이 이 무렵 사망한다면 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다.

요컨대 향후 3年은 北韓의 政權은 그대로 지속 되겠지만 政策에는 많은 變化가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 金日成이 유엔가입을 결정하였고 日本과의 수교를 서두르고 있는 기본적인 이유는 中國이 위에서 지적한대로 더 이상 北韓의 後見國이 되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했기 때문이다. 北韓은 이제 스스로 利用 가능한 手段과 資源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

유엔에의 가입은 그 결과 國際的 照明을 더 받게 된다는 것 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日本과의 修交는 우선 1992년까지 核問題에서 日本의 의구심을 깨끗이 풀어 주어야 한다. 이점은 北韓이 美國과의 關係改善을 추진하는데서도 마찬가지이다.

日本은 北韓과 修交하고 어떤 口實로든 支援을 하게 되는데 그 方法에 있어서 北韓政權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北韓은 南北對話에 있어서도 종래와 같은 자세로 임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물론 이것은 日本의 자세에 달린 문제이다.

여하튼 향후 3年内 金日成政權은 主體思想의 한계점을 알리는 各種 事件에 부딪칠 가능성이 많다. 經濟的인 어려움에 대해 주민들의 인내를 강요하는 데는 限界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對外政策의 필요 때문에 南北對話를 추진할 가능성이 많아졌다. 실제 對南政策을 기본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對外關係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도 對外關係에서 더욱 開放的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日本이 北韓과의 修交와는 따로 취급하기로 한 李恩惠 문제와 北送日本人妻 問題는 앞으로 北韓내 人權問題에 문을 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日本이 이 문제에서도 진전이 없을 경우 北韓에의 援助實施는 日本議會의 견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향후 3年間 北韓이 겪을 충격은 體制의 기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라 하겠다. 이들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北韓은 유엔에 가입한 사실을 충분히 이용하여 對外活動을 활발히 전개할 가능성이 많다. 그것은 駐韓美軍과 韓國에 있는 美國의 核武器 撤去問題를 유엔에

호소하는 한편 韓半島에서의 軍縮문제를 크게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는 소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北韓이 對外關係에서 이데올로기적 自己 幽閉狀態를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韓·美軍事協力關係에 대한 공격을 중심으로 對外宣傳을 강화할 것이며 이는 南北韓간에서도 軍事·政治問題 우선 해결을 주장하는 것과 연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3. 北韓의 南北對話 態度展望과 우리측 對話推進 戰略

가. 北韓의 態度 展望

北韓이 앞으로 展開할 對話에 대한 政策의 기본은 對南基本戰略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多方面的 對話攻勢를 전개하는 것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内外에 그들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다. 北韓은 對外的으로 活動-유엔加入을 기해-을 확대 하면서 南北對話의 진행이 부진한 것을 南韓의 消極的 자세 때문으로 돌리려 할 것이며 對日修交에 이어 對美關係改善에 나설때까지 核査察問題나 6.25戰爭中 行方不明者의 확인 등에 성의를 보이면서 日本과 美國에의 접근을 적극화 할 것이다.

北韓의 對話에 대한 기본자세는 對話는 가능한 한 多方面으로 적극화 하되 그것이 北韓社會의 開放에는 이르지 않게 하는 方法을 취할 것이다. 따라서 對話가 交流로 이어지고, 交流가 北韓社會의 開放으로 연결되기를 전제로 하는 우리의 對話概念과는 다른 方法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對話에서 政治的 宣傳效果가 큰 문제를 택할 것이다. 예컨대 유엔에서의 활동과 對南宣傳活動에 一貫性을 부여하기 위하여 駐韓美軍 撤收, 韓半島 非核地帶化 그리고 軍縮 등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韓國의 國內政治에도 충격을 주는 효과를 노릴 것이다. 이러한 점은 蘇聯의 亞·太地域 政策과도 맥을 같이하는 문제로서 内外에 政治的 效果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민감한 核問題는 北韓이 IAEA(國際原子力機構)의 요구를 받아들이다라도 北韓의 政治體制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核問題에 있어서 日本과 美國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 問題를 政治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對外關係에서 北韓은 核카드 이외에는 국제적으로 반향을 불러 일으킬만한 소지가 없다. 물론 이론상 北韓의 核査察問題는 核擴散禁止條約에 가입한 나라의 義務事項이지 이를 政治的이나 外交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理論을 떠나 現實世界에서 北韓은 이를 충분히 内外에 이용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核燃料再處理의 문제는 IAEA의 査察로서 萬全을 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美·日의 對北韓 壓力은 물론 소련도 여기에 同參해야 하는 문제가 提起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韓半島의 非核地帶化問題 등 軍事問題가 주변열강에 의해 논의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러한 점은 北韓도 충분히 이용하려 할 것이다.

北韓의 政治·軍事 優先主義的 對話態度에 따라서 南北高位級會談은 지속될 것이다. 南北高位級會談은 北韓으로서도 몇가지 利點을 가지고 있다.

첫째, 南北高位級會談이 갖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對内外에서 對話의 적극성을 과시하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南北高位級會談은 그들 社會의 開放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서 그들이 南韓을 향해 -政治圈이나 在野도 포함해서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方法이다.

셋째, 南韓은 政治體制上 總理가 자주 바뀌지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통해 南韓의 政治음 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측도 南北高位級會談 추진의 利點이 있지만 -北韓은 南北高位級會談을 南北韓 접촉의 주요한 채널로 유지해 나가려 할 것이다.

앞으로 北韓은 體育과 藝術 方面의 交流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北韓에서 體育人과 藝術人이 가지는 특수한 地位를 충분히 이용하여 이들의 交流를 통해 그 方面의 우수성을 과시하려 할 것이다. 지난날 離散家族相互訪問團의 교환시 예술단을 서로 보낼 것을 제의했던데서도 그들의

태도를 엿 볼 수 있다.

그리고 北韓은 새로운 분야로서 學者交流를 制限的인 범위에서나마 실시하려 할 것이다. 考古學과 歷史學 등에서 그들의 강점을 과시하려 할 것이다. 歷史的 遺物 發掘에서 高句麗時代의 것은 北韓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이 李朝實錄을 完譯한 사실 등에서 보면 우리가 미처 손 쓰지 못한 분야가 學術的인 면에서 있을 수 있다.

또한 北韓은 對南關係에서는 그들의 약점을 노출시키려 하지 않겠지만 相互性의 기반위에 서라면 경제교류가 상당한 범위까지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北韓이 日本과 修交해서 日本의 支援을 받으면서 南北韓 交流를 마다 할 명분이 약할 것이기 때문이며 특히 物資의 交流는 사람의 교류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상 北韓의 開放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自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위 3通의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으리라 기대된다.

나. 우리측의 對話戰略

우리의 對話戰略은 對北對話戰略과 이와 관련된 對內弘報戰略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하겠다. 먼저 對北對話戰略이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본적 주장을 보다 솔직이, 보다 당당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세계사적 추세로 보더라도 北韓이 國際的 孤立狀態로 있고 北韓住民들을 감금상태에서 統治한다는 것은 時代錯誤的인 상황임을 강력히 주장해야 할 것이다.

20년전 1970年 8月 15日 朴正熙大統領이 “南과 北의 體制중 어느 것이 韓半島 住民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제도인가를 住民들로 하여금 선택케 하자”고 한 「宣言」을 이제 실천해 옮길 때가 왔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人權과 人道的 문제는 이제 國際的 관심사로까지 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北韓住民의 人權과 人道的 상황에 무관심하고 政權만을 상대로 對話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正當하지 못한 자세라 생각된다. 우리는 北韓의 對話攻勢에 對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政治理念과 價値觀에 입각한 對北政策을 수립,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앞으로 金日成은 國際的으로 外交活動을 폭넓게 전개할 것이며 核開發問題를 계기로 國際

社會에서 고립과 폐쇄성을 탈피하려 노력할 것이다. 물론 하루아침에 변신할 가능성은 없으나 對美·日關係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 움직일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北韓도 國際社會에서 責任있는 나라로서 등장할 것을 유도하면서 南北關係에서도 公明正大하게 나올 것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北韓은 위에서도 言及한대로 政治·軍事爲主의 對話攻勢로 나올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9月 유엔가입에 맞추어 內外的으로 軍事問題, 즉 韓半島非核化와 軍縮문제를 제기할 것이 예상된다. 이 문제는 國際社會와 南韓內部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 따라서 核問題에서 美國의 不是認·不否認政策에 追隨하고 있는 것 만으로는 不充分하다.

그리고 核査察問題는 核不擴散條約 加盟國으로서 義務라는 法理論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으므로 友邦과 協議하여 명백한 태도를 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案으로서는 北韓의 非核地帶化 주장을 다른 면에서 받아 처리할 필요가 있다. 즉 韓國의 獨自的인 政策表明인데 內容은 核不使用, 不搬入을 천명하고 條件은 北韓이 核査察은 물론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完전한 相互(南北間) 鑑定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 明確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최근 國內에서 原電基地 선정이 어려워지는 國民들의 意識을 순조롭게 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다음은 軍縮問題이다. 이 문제는 一般論으로서 原則적으로 軍事力管理의 次元에서 수동적인 자세에 놓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北韓도 10萬 減軍을 수십년전부터 외치고 있는 선전차원 이상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核問題처럼 구체적인 대응은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된 駐韓美軍問題는 美國防部에서 밝히고 있는 3단계구상으로 內外에 대응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南北高位級會談은 그대로 유지하되 總理接觸의 回數를 줄이더라도 事案에 따르는 閣僚級會談을 추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問題提起를 할 필요가 있겠다. 南北高位級會談은 자연히 一般的 問題를 다루게 되므로 北韓의 對南宣傳場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北韓의 通信開放이 안된 상황을 고려하면 南北高位級會談의 성과 - 즉 우리側이 北韓에 전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어 가져 올 -가 거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전에 주장되어 온 일이지만 끊어진 南北鐵道를 연결하는 문제를 제기하여 經濟交流에 對備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京釜高速電鐵 建設計劃의 一環으로 또는 그를 기해서 南北間 交通을 확대하기 위해 3個年計劃등으로 정리하여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經濟交流도 專門的 判斷을 가지고 우선 物物交換을 중심으로 제안한다면 北韓이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남한 쌀이 北으로 전달된 예를 살려 나가면 좋을 것이다.

최근 報道에 의하면 「統一費用」과 관련해서 독일식 흡수통합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北韓經濟를 일정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 후에 경제통합”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北韓경제의 성격상 일정수준으로의 향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첫째로, 그렇게 되려면 南北韓을 지금부터 單一經濟圈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동독의 경제는 동유럽 어느나라보다 앞섰다고 했으나 결국 동독경제의 해체가 불가피했듯이 南韓과 同一經濟圈의 전제없이 北韓 경제의 일정 水準으로의 向上이란 설혹 經濟向上이 이루어지더라도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統一의 그날 짐만 커지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둘째로 그러한 성과가 내려면 지금부터 北韓經濟 運營의 기본태세부터 바뀌어야 하는데 이것은 政治的 統合이 先行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북한 경제가 南韓과 교류해서 그 결과로 一定 水準까지 向上되기 전에 北韓政治體制는 무너지고 말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統一費用」운운으로 서독식 통일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이론은 北韓의 獨逸式 統一을 거부하는 자세에 不知不識間에 동조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獨逸式 統合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獨逸式統合에 잘못이 있다면 소련에 「統一費用」을 너무 많이 물었고, 統合過程에서 東·西 마르크를 1對1로 해 준 잘못과, 西獨人이 東獨서 갖고 있던 土地 등 부동산에 대해 權利의 회복을 약속한 점등 이다. 이것은 統一過程의 選舉에서 있을 票를 인식한 政治家들의 잘못이지 統一 그 자체가 가져온 費用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南北對話는 이제 政權的 次元의 關心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되는 단계에 왔다고 하겠다. 종래까지는 어차피 對話가 통일과 연결지어질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南北對話를 政權次元에서 이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모든 對話와 접촉에서 統一이 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政權的 動機나 政權的 次元의 效果를 노리지 말아야 한다. 서독 韓首相이 통일을 빨리 獨自的으로 처리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選舉를 의식한 조치가 가져온 부담은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對內 弘報問題이다. 지금까지는 南北對話나 統一問題는 전담하는 官吏나 專門家들의 일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統一問題는 國民 모두의 관심사여야 한다는 자세에서 철저한 弘報가 필요하다. 對北提議를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또 하고 있는 對北提議의 內容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이것은 對話를 위해서 만이 아니라 우리 統一政策의 正當性에 대한 國民들의 確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南北對話 20年の 評價と 向後展望

統對 91-10-49

1991年 10月 9日 發行

發行處：統 一 院
南北對話事務局

印刷處：(株) 盛林文化